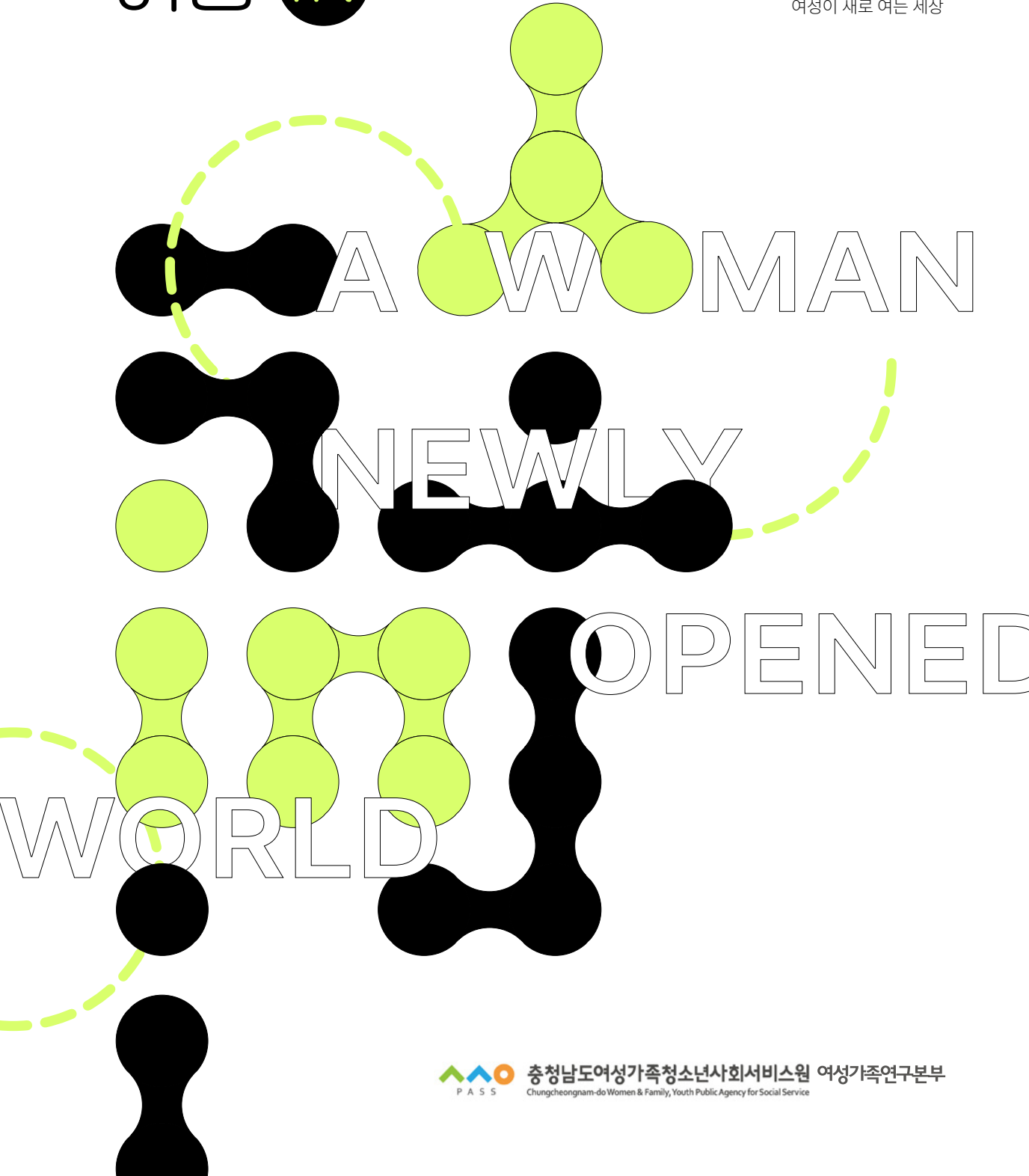


충남 人
여성 IN

2023
Vol. 42

여성이 새로 여는 세상



SPECIAL

충청남도
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출범

2023년 여성가족연구본부
하이라이트

특집 인터뷰

PART 1

2023 충남 성평등 포럼

대만연수

호주연수

PART 2

2023 충남여성 풀뿌리 자치학교

2023 충남여성소모임 인큐베이팅
Start-up

충남 여성 리더십 포럼

2023 충남 성주류화 제도
발전 포럼

PART 3

전략연구과제

기초연구과제

기본연구과제



2023 Vol. 42

여성이 새로 여는 세상

통권
제42호

발행일
2023년 12월 31일

발행인
조경훈

발행처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여성가족연구본부
32560 충청남도 공주시 우금티로 753
공주대학교 옥룡캠퍼스(유아교육관 4층)

연락처
TEL. 041-400-7240
FAX. 041-400-7307

누리집
https://cwfri.re.kr

디자인
(주)디자인시티



SPECIAL

004

충청남도
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출범
경영효율화로
도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

010

2023년
여성가족연구본부 하이라이트
여성 역량 강화와 정책 개발까지
쉽 없이 달린다

014

특집 인터뷰
여성의 눈으로 지역사회를 보자



PART 1

함께

020

2023 충남 성평등 포럼
여성의 눈으로 여성과 함께한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026

대만연수
국제교류를 통한
사회서비스 고도화 모색

030

호주연수
전국여성정책네트워크 국외연수

PART 2

같이

040

2023 충남여성 풀뿌리 자치학교
민주시민 역량 키우고,
세상을 보는 시각을 넓히다

044

2023 충남여성소모임 인큐베이팅
Start-up
성평등 확산과 여성의 삶에 관한 자각

048

충남 여성 리더십 포럼
양성평등 리더십은 '공정한
대한민국'으로 가는 지름길

052

2023 충남 성주류화 제도
발전 포럼
상호협력이 필요한 성 주류화,
여성친화도시에 관한 이해부터
높여야



PART 3

가치

058

전략연구과제
충남 학교 밖 청소년 생활실태 및
보호·지원 방안 연구

063

기초연구과제
충남 여성 경제활동 실태조사



067

기본연구과제
충남 폭력 피해자 보호·지원시설
운영 안내서 개발 연구

070

충남 다문화가족 청년 자녀
사회진입 현실과 지원 방안

074

충남 청년여성농업인 영농정책
지원 방안

081

충남 자치경찰 인사운영 방안 연구

085

충청남도 여성친화도시 사업 이행
현황 분석 및 활성화 방안

091

충청남도 사회적 고립 은둔 청년
실태 및 지원 방안

096

충청남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방안 연구

101

충청남도 케어팜 연계 사회서비스
수요조사 연구

106

충청남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관 협력 강화 방안 연구

110

충청남도 사회보장의 지역 간
격차분석

114

충청남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지원사업 분석 연구



SPECIAL

충청남도
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출범

2023년 여성가족연구본부
하이라이트

특집 인터뷰

PART 1

2023 충남 성평등 포럼

대만연수

호주연수

PART 2

2023 충남여성 풀뿌리 자치학교

2023 충남여성소모임 인큐베이팅
Start-up

충남 여성 리더십 포럼

2023 충남 성주류화 제도
발전 포럼

PART 3

전략연구과제

기초연구과제

기본연구과제



경영효율화로 도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출범



PASS

Chungcheongnam-do Women & Family.
Youth Public Agency for Social Service

충청남도는 1월 4일 도청 프레젠테이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충남도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추진계획에 따라 도내 25개 공공기관을 18개로 통폐합한다고 발표했다.

조직과 인력에 낀 '거품'을 건어내고 허리띠를 조여 도민에 대한 공공서비스를 대폭 강화한다는 것이 충청남도의 설명이었다.

충청남도는 전문 기관의 연구용역과 공공기관 임직원, 실무진, 노동조합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에 대한 의견 수렴, 도민 여론조사, 도의회 설명 등을 통해 이번 추진계획을 마련했다. 계획에 따라 경제·산업과 정책연구, 교육 지원, 문화·예술·관광, 사회정책 및 서비스 분야 12개 기관을 5개로 묶어 총 25개 공공기관을 18개로 통폐합이 추진되었다.

특히 충남사회서비스원, 충남청소년진흥원, 충남여성가족연구원 등 사회정책·서비스 분야 3개 기관이 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으로 통합되었다.

INTEGRATION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출범 과정

2022년 7월 — 김태흠 지사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의지 표명

2022년 12월 28일 —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추진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2023년 01월 04일 — 충청남도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 추진계획 발표(기자회견)

2023년 02월 21일 — 충남도의회 제34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관련 조례안 5개 원안 가결

2023년 05월 25일 — 연구본부 기능 및 연구 방향 수립 세미나

2023년 11월 09일 —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출범식

연구 기능 강화한
'싱크탱크'

충남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연구본부 정식 출범을 앞둔 지난 5월 25일 라마다호텔에서 연구본부의 비전과 연구 방향을 논의하는 세미나가 열렸다.

충청남도여성가족연구원은 24년간 충청남도의 여성가족·성주류화 연구를 수행해 왔고,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은 복지 분야 연구를 수행해 왔다. 통합된 기관의 연구본부가 새로 출범하면서 여성가족, 성주류화, 복지 분야를 아우르는 명실상부한 사회·복지 연구의 싱크탱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이날 세미나에는 연구본부 연구자 등 20여 명이 참석하여 성주류화·복지 분야 전반을 아우르는 연구를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열띤 토론을 펼쳤다.

충남여성가족
청소년사회서비스원
공식 출범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충청남도여성가족연구원·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3개 기관의 통합을 축하하고, 미래의 비전을 모색하는 출범식과 포럼 및 다양한 활동을 포함한 워크숍을 11월 9일 개최했다.

이날 출범식은 식전행사(민요자매 공연)를 시작으로 1부 통합출범식과 2부 통합출범 기념 포럼으로 진행되었다.

출범식에서 조경훈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원장은 식사를 통해 "최근 자료를 보면 사회서비스 대상이 전 국민의 72%로 증가하고 있다"라며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은 사회서비스의 고도화와 지속가능 서비스의 인프라 구축으로 사회서비스 품질 제고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해 가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또 조경훈 원장은 "기관 통합 과정에서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구성원들의 노력과 기관 인팍에 있는 많은 사람의 기대와 격려 속에서 성공적인 통합을 이룰 수 있었다"라며 "민선 8기 도정이 제대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SPECIAL

- 충청남도 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출범
- 2023년 여성가족연구본부 하이라이트
- 특집 인터뷰

PART 1

- 2023 충남 성평등 포럼
- 대만연수
- 호주연수

PART 2

- 2023 충남여성 풀뿌리 자치학교
- 2023 충남여성소모임 인큐베이팅 Start-up
- 충남 여성 리더십 포럼
- 2023 충남 성주류화 제도 발전 포럼

PART 3

- 전략연구과제
- 기초연구과제
- 기본연구과제



000



통합기념 출범식 & 포럼

2023. 11. 09.
14:00~18:00
비체펠리스 그랜드볼룸

충청남도 보건복지국 조대호 국장은 격려사에서 “도에서도 새롭게 출발하는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이 사회서비스, 여성가족, 청소년 등 복지 전 분야를 긴밀히 연계하고 민간협력을 강화하여 충남의 복지 플랫폼을 선도하는 ‘싱크탱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며 “충남여성가족청소년서비스원의 성공적인 출발을 축하하고 응원한다”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충청남도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김응규 위원장, 보건복지부 중앙사회서비스원 조상미 원장 등 충청남도 지역의 관련기관과 주요 인사들이 참석하여 축하와 지원의 메시지를 전달하였다.

출범식 후에는 류진석 충남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공공기관 경영효율화에 따른 통합기관의 현안과 발전 방향 포럼이 이어졌다.

첫 발표자로 나선 김용하 순천향대학교 교수는 통합된 공공기관으로서 성공적 통합과제와 정부 전략에 따른 역할 정립으로 체계적 전략 수립과 구성원 갈등관리를 통한 공감과 협업의 중요성을 발표하였다. 이어 정영태 대구광역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선임연구위원은 대구광역시 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의 통합 과정과 통합에 대한 성과를 발표하였다.

기조 발제 후에는 통합 이후 발생하는 내부적 갈등 극복과 효과적 조직 운영을 위한 협업으로 사회서비스 고도화를 위해 끊임없는 사회서비스원의 혁신을 토론했었다.

이날 공식 행사 후에는 직원 화합의 장으로 마련한 워크숍이 이어졌다. 워크숍은 직원들의 자기교육, 타인 이해, 관계 이해를 높이고 조직 내 협력과 효율성을 높이는 교육과 더불어 통합 기관 직원들이 함께 어울리는 팀워크 강화의 시간이었다.

SPECIAL 01

007

통합출범 기념 포럼 주요 내용

공공기관 경영효율화에 따른 통합기관의 현안과 발전 방향

주제 발표



김용하
순천향대학교 교수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성공적 통합과제와 정부전략에 따른 역할 정립

충남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 방향은 경영성과나 운영효율성이 낮은 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닌 기관 간 통합을 통한 시너지 효과와 운영 효율성 제고가 목적이어야 한다. 기존 직원들의 고용승계와 처우개선으로 만족도를 높이고, 사업과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예산이 본래 목적에 맞게 사용됨으로써 실질적인 서비스 품질을 높여야 한다. 정부의 기관통합 방침은 결국 조직을 확대하고 규모를 키워 수혜자 맞춤형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통합 초기에는 구성원 간, 부서 간에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것을 어떻게 봉합하고 통합해 가느냐가 결국 리더십 역량이다. 서로 양보하고 협력하는 조직문화를 얼마나 빨리 만들어 내느냐가 기관통합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본다.



대구광역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출범과 상생발전

민선 8기 대구광역시는 대대적인 산하 공공기관 구조개혁이 이뤄졌다. 특히 대구광역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은 대구청소년지원재단, 대구여성가족재단, 대구시사회서비스원, 대구평생학습진흥원 4개 기관을 통합해 2022년 10월 1일에 출범하였다. 다양한 복지 수요에 부응하고 공공성과 전문성, 투명성을 높여 지역사회 복지 증진을 이루겠다는 목표였다. 그렇게 1년이 지난 지금 대구광역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은 조직을 슬림화하고 중복기능을 통합해 효율성을 높였다. 그리고 가족친화경영과 상생협력을 위한 노사문화 확산에 힘쓰고, 통합기관 인지도와 접근성 제고를 위한 홍보 확대에도 노력하고 있다. 또한 통합에 따른 불안과 위기를 넘어서 시너지 효과를 거두고 상생발전할 수 있는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영태
대구광역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선임연구위원

SPECIAL

충청남도
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출범
--
2023년 여성가족연구본부
하이라이트
--
특집 인터뷰

PART 1

2023 충남 성평등 포럼
--
대만연수
--
호주연수

PART 2

2023 충남여성 풀뿌리 자치학교
--
2023 충남여성소모임 인큐베이팅
Start-up
--
충남 여성 리더십 포럼
--
2023 충남 성주류화 제도
발전 포럼

PART 3

전략연구과제
--
기초연구과제
--
기본연구과제



토론



이대영
중앙사회서비스원 부장



김혜정
울산광역시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
연구위원



성운숙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

“ ”
“ ” 충남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통합
출범에 대한 기대

세 기관의 물리적 통합 이후 시너지가 발현되도록 통합된 규정, 운영체계, 조직문화 등을 함께 만들어 나가는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이것이 화학적 통합인데, 그동안 진행한 물리적 통합보다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통합의 목적은 서비스가 필요한 곳에 제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많은 응원과 관심 속에서 조직 발전을 위한 단기, 중장기 로드맵과 통합된 규정 정비, 건강한 조직문화 구축 등을 슬기롭게 이뤄가길 소망한다.


“ ”
“ ” 울산의 사례를 통해 본 기관통합의
현안과 과제

경영효율화를 위해 기관통합을 추진하지만, 물리적 통합만으로는 실질적인 통합을 이뤄내기 어렵다. 울산은 기존 팀이 유지되는 방식이었는데, 초기에는 업무 배분이 나 지원이 효과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 중복되는 역할과 기능에 따라 조직을 어떻게 재편하고 인력을 배치할지는 지속적인 논의와 조정이 필요하다. 충남은 기존 충남여성가족연구원의 정책연구 인력과 인프라를 흡수하는 형태로 보이는데, 연구 기능이 강화되는 것을 기대할 수 있다. 이 부분을 더 체계화하고 강화하는 것이 요구된다. 더불어 시너지 창출을 위한 유기적 통합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내부 구성원들이 끊임없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야 한다.


“ ”
“ ” 공공기관 통합에 대한
기대와 우려

기관 통폐합의 본질은 미래 지향적 변증법적 발전구조로의 혁신적 전환에 있다. 다만 서비스 내용과 제공방식 등에 있어 질적 향상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 그리고 경영 혁신 방향과 목표에 따른 장기, 중장기 계획 수립과 실천이 수반되어야 한다. 한편, 기관 간 발전적 융합의 목적 중 하나는 예산 효율성 제고일 것이다. 그러나 효율적 예산 운용은 예산 삭감이 아니라 예산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집행이다. 사명감에 기초한 사회서비스도 좋지만, 더 많은 열정과 지혜를 모으기 위해서는 합리적이고 긍정적인 고용과 근무 여건 보장, 무엇보다 수용 가능한 임금수준이 보장되어야 한다.

토론



이용재
호서대학교 교수



송미영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여성가족연구본부장

“ ”
“ ” 조직간 성공적 통합을 위한
제언과 역할 방향

조직의 생존과 성장을 목표로 여러 분야에서 조직통합이 이뤄지고 있지만 성공이 보장되지는 않는다. 특히 조직통합 시 조직문화를 등한시하면 통합의 성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는다. 통합이 성과를 내려면 인적요소와 조직문화 통합으로 어떤 변화와 부작용이 있는지 확인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조직이 협업하는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하는 것도 필요하다. 서로 합을 맞추면서 체계화되고 공식화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것이 시너지라고 할 수 있다. 윤석열 정부는 사회서비스 방향을 서비스 고도화로 설정했다. 질과 양을 확충해 누구나 필요한 서비스를 누리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역 사회서비스원부터 개념과 방향성을 공유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서비스원 구성원들이 사회서비스 고도화의 목표와 비전, 전략을 공유하고 이를 실행할 분명한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 ”
“ ” 대구광역시 사례에 비춰 본
충남의 기관통합

충남은 사회정책·서비스 분야 경영효율화를 위해 충남여성가족연구원, 충남청소년진흥원, 충남사회서비스원 3개 기관을 통합했다. 당면과제는 당연히 어떻게 화학적 조직융합을 달성하여 시너지를 높이고 조직 갈등을 최소화하느냐일 것이다. 앞서 말씀해 주신 대구광역시 사례에서 통합플랫폼 기반 조성과 인사 및 보수제도 안정화 부분은 매우 인상적이었다. 노사가 합의점을 찾아간 과정, 그리고 통합비전과 목표 설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궁금하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 충남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이 참고할 부분이 많을 것 같다.

SPECIAL

충청남도
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출범
--
2023년 여성가족연구본부
하이라이트
--
특집 인터뷰

PART 1

2023 충남 성평등 포럼
--
대만연수
--
호주연수

PART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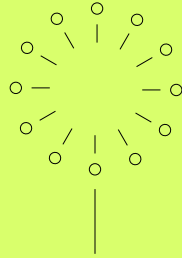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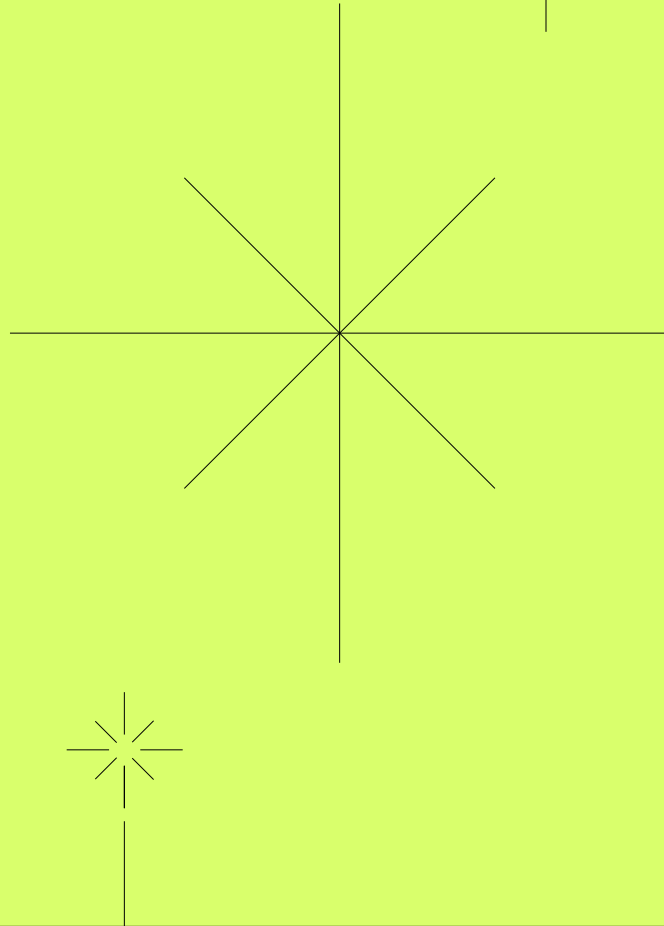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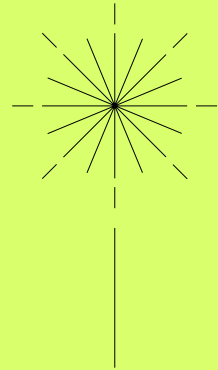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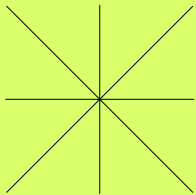
2023 충남여성 풀뿌리 자치학교
--
2023 충남여성소모임 인큐베이팅
Start-up
--
충남 여성 리더십 포럼
--
2023 충남 성주류화 제도
발전 포럼

PART 3

전략연구과제
--
기초연구과제
--
기본연구과제



여성 역량 강화와 정책 개발까지 쉽 없이 달린다



2023

HIGHLIGHT

2023년은 기관통합이라는 거센 바람을 타고 분주한 한 해를 보내야 했습니다. 세 기관이 통합하면서 연구 분야는 확대되었고, 각종 교육사업은 유종의 미를 거두어야 했습니다. 동시에 기존에 이뤄지던 정책 개발과 대외 교류 활동은 더 활발하게 진행했습니다. 이제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에서 여성가족연구본부가 해야 할 역할은 활발한 연구를 통한 여성가족 복지정책의 발굴과 질적 향상일 것입니다. 새해에는 도민이 체감하는 '함께하는 따뜻한 공동체' 충남 실현을 위해 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01

2023. 11. 09.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출범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충청남도여성가족연구원·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3개 기관을 통합한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이 출범했다. 이번 통합은 관계기관 경영 효율화와 사회서비스 기능 강화 등을 위해 추진되었다.

02

2023. 11. 20. ~ 23. 대만 신복시, 명전대학교와 교류 협력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과 대만 신복시, 명전대학교가 업무협약을 통하여 향후 실질적인 교류사업의 발판을 마련하였다.



010

011

SPECIAL

충청남도
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출범
--
2023년 여성가족연구본부
하이라이트
--
특집 인터뷰

PART 1

2023 충남 성평등 포럼
--
대만연수
--
호주연수

PART 2

2023 충남여성 풀뿌리 자치학교
--
2023 충남여성소모임 인큐베이팅
Start-up
--
충남 여성 리더십 포럼
--
2023 충남 성주류화 제도
발전 포럼

PART 3

전략연구과제
--
기초연구과제
--
기본연구과제



03

012

2023. 12. 04.
2023 충남 성평등 포럼

충남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공모를 통해 선정한 3개 지역 참여단이
2023년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서로 응원하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04

2023. 09. 23.
충남 여성 리더십 포럼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 가는 데
필요한 '양성평등 리더십'의 가치를
공유하고 여성단체의 방향성을
논의하는 '충남여성 리더십 포럼'이
9월과 11월 두 차례 개최되었다.

05

2023. 12. 01.
2023 충남여성 풀뿌리자치학교

도내 각 지역 핵심 여성들의 지방자치 참여역량 강화를 목표로 지역
성평등 문화 확산에 관심 있는 여성들을 위해 마련한 2023 충남여성
풀뿌리자치학교가 12월 1일과 2일 이틀간 마지막 교육을 진행했다.



013



06

2023. 12. 01.
충남여성소모임 인큐베이팅 Start-up

도내 풀뿌리여성 소모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 4월 공
모해 6개 소모임을 선정하여 지원했다. 충남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
스원 여성가족연구본부는 이 사업을 통해 도내 양성평등 문화가 확산
하고 여성 활동가 역량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SPECIAL

충청남도
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출범
--
2023년 여성가족연구본부
하이라이트
--
특집 인터뷰

PART 1

2023 충남 성평등 포럼
--
대만연수
--
호주연수

PART 2

2023 충남여성 풀뿌리 자치학교
--
2023 충남여성소모임 인큐베이팅
Start-up
--
충남 여성 리더십 포럼
--
2023 충남 성주류화 제도
발전 포럼

PART 3

전략연구과제
--
기초연구과제
--
기본연구과제



특집 인터뷰

여성의 눈으로
지역사회를 보자

성운아
충청남도여성단체협의회 회장



SPECIAL
INTERVIEW

사자처럼 포효하는 삶을 살아온
성운아 회장을 만나
인터뷰 하다.

성운아 충청남도여성단체협의회 회장은 스스로 '사자처럼 포효하는 삶'을 살아왔다고 설명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가 있을 때 침묵하지 않았다. 또 성운아 회장은 주변 사람들의 요청과 바람에 따르는 삶도 살아왔다. 취지와 필요성에 공감하면 어려움이 있더라도 과감하게 행동하고 앞으로 나아갔다.

그런 성운아 회장의 삶의 궤적은 충남여성단체협의회 변화와도 이어진다. 취임 후 과감한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성운아 회장 과 지역 여성문제와 관련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다.

약자에 관한 관심,
'여성'을 만나

성운아 회장은 우리 사회 약자들의 삶을 개선하고 도울 방법을 찾고 싶었다. 그래서 대학원에서 노인복지를 전공하고 여성과 노인에 관한 논문으로 학위를 받았다.

이후 성운아 회장은 여러 대학에 출강하며 노인복지 인재를 키우는 데 힘썼다. 여기에 홍성군 내포신도시에 요양보호사교육원까지 운영하면서 개인적으로 매우 바쁜 삶을 살고 있었다. 그 와중에 성운아 회장은 짬을 내서 당시 충남여성정책개발원(현재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여성가족연구본부)에서 진행한 여성 성인지 교육을 수강했다. 평소 관심사였던 여성문제를 조금 더 체계적이고 깊게 공부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열심히 공부하던 중에 함께 교육받던 당진시의회 최연숙 의원으로부터 함께 일하자는 제안을 받았다. 최 의원은 한국여성유권자충남연맹 회장과 당진시 여성포럼 대표 등 여성단체에서 여성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 오랫동안 일한 이력이 있었다.

“교육을 함께 받았던 기초의회 의원 몇 분이 이야기하는 여성들이 힘을 모아야 하는 이유에는 매우 공감했지만, 저는 대학 강의와 개인 일 때문에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삶을 사느라 어떤 단체에 들어가 일할 엄두를 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최연숙 의원은 끈질기게 성운아 회장을 설득했다고 한다. 남성 중심의 지역 정치판에서 여성이 조금이라도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우리 사회의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는 이야기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성운아 회장은 한국여성유권자연맹 홍성지부에서 첫 여성단체 구성원으로서 활동을 시작했다.

“한국여성유권자연맹은 도·시·군의회 의정활동을 모니터링하고 역량을 갖춘 여성 정치인을 배출하는 단체입니다. 단순히 어떤 자리를 여성에게 강제로 할당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판의 한계를 여성의 시각으로 함께 고민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면서 의회와 위원회, 공직 등에 능력을 갖춘 우수한 여성 인재가 진출할 기회를 열어가는 것이 우리 단체의 일입니다.”

성운아 회장은 한국여성유권자연맹 홍성지부 지부장으로 선출되어 활발하게 활동하고, 지난해 한국여성유권자충남연맹 도회장을 역임한다. 그리고 올해에는 충청남도여성단체협의회 회장으로 선출되어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역량강화를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활동하고 있다.

SPECIAL

충청남도
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출범
--
2023년 여성가족연구본부
하이라이트
--
특집 인터뷰

PART 1

2023 충남 성평등 포럼
--
대만연수
--
호주연수

PART 2

2023 충남여성 풀뿌리 자치학교
--
2023 충남여성소모임 인큐베이팅
Start-up
--
충남 여성 리더십 포럼
--
2023 충남 성주류화 제도
발전 포럼

PART 3

전략연구과제
--
기초연구과제
--
기본연구과제



충남여성단체협의회 역대 최연소 회장

016

여성문제는 '빙산의 일각'

충청남도여성단체협의회는 내부적으로 조직의 변화와 '일하는 회장'을 선출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성윤아 회장의 취임은 충남여성단체협의회 변화에 대한 열망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오랜 역사를 가진 단체들이 대체로 겪는 문제가 회원들의 고령화와 경직된 조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우리 충남여성단체협의회는 단체가 지속해서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변화하고 개혁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고, 원로 회원 여러분도 동의해주셨습니다.”

사실, 충남여성단체협의회 회장 자리도 성윤아 회장이 바라서 간 것은 아니었다. 단체의 변화를 이끌어달라는 간곡한 요청이었다. 변화의 필요성을 공감하면서 행동하지 않는 것은 성윤아 회장의 성향과 어울리지 않는다. 그래서 충남여성단체협의회장에 취임했고 과감한 변화를 주도하기 시작했다.

“제가 생각한 충남여성단체협의회가 시급하게 바뀌어야 할 부분은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장 회장 임기가 1년밖에 되지 않아 사업이든 정책이든 힘있게 추진할 여건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또 다양한 여성단체와 연대하며 파급력을 키워야 하는데, 신생단체가 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았습니 다. 그래서 저는 취임하자마자 정관을 개정해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고, 협의회 가입 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또 우리 협의회에 들어오지 않은 시군 협동회원단체들을 내년까지 정식 회원단체로 묶어 협의회는 물론 각 시군 여성단체들이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내도록 힘을 계획합니다.”

성윤아 회장은 내가 무언가를 이루는 것보다 앞으로 협의회가 지역사회에서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싶다고 했다.

여성의 사회진출이 확대되고 사회적 인식이 개선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과거와 비교하면 여성의 지위와 사회적 인식은 하늘과 땅 차이라고 할 만하다. 하지만, 성윤아 회장은 여성문제는 '빙산의 일각'이라며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사실 대중이 인식하는 여성문제는 빙산의 일각입니다. 빙산은 수면 위로 드러난 것이 전체 빙산의 10%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나머지 90%는 수면 아래에 있는데, 그 크기를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여성문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적으로 여성문제라고 지적하는 것들은 일부일 뿐입니다. 그래서 여성이 스스로 나서서 자기 문제를 이야기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성윤아 회장은 '여성의 눈으로 지역을 보라'라고 이야기한다. 남성의 시각으로 보지 못한 우리 사회의 모순과 문제를 여성의 세심함과 공감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 사회가 겪는 수많은 갈등은 대결과 승리라는 남성 중심의 논리에서 파생되었지만, 여성은 공감하고 연대하며 우리 사회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



SPECIAL 03

여성의 강점인 공감과 포용은
남성까지 아우를 수 있고,
그 과정에서 갈등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017

변화의 시작은 참여와 행동

성윤아 회장은 양성 페미니즘을 경계한다. 남성과 싸워서 무언가를 얻어내겠다는 생각은 갈등만 키우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이다.

“최근의 젠더 갈등은 서로 이야기를 듣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각자의 처지를 이해하려 하지 않고 자기주장만 반복되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진 것 같아요. 저는 이 문제 해결의 주체가 여성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의 강점인 공감과 포용은 남성까지 아우를 수 있고, 그 과정에서 갈등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성윤아 회장은 '참여와 행동'을 강조하기도 했다. 인구감소와 고령화, 고착된 지역 문화 등이 배경이겠지만, 다른 지역과 비교해 충남은 여성들이 제대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성윤아 회장의 판단이다.

“우리 사회의 반을 구성하는 여성들이 정당하게 자기 목소리를 내는 것만으로도 사회 변화를 끌어낼 수 있습니다. 부당한 차별에 반대하고 관행처럼 이어진 성역할에 의문을 던지는 것이 변화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 귀 기울이고 연대하면서, 참여하고 행동한다면 우리 사회는 더 나은 사회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SPECIAL

충청남도
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출범

2023년 여성가족연구본부
하이라이트

특집 인터뷰

PART 1

2023 충남 성평등 포럼

대만연수

호주연수

PART 2

2023 충남여성 풀뿌리 자치학교

2023 충남여성소모임 인큐베이팅
Start-up

충남 여성 리더십 포럼

2023 충남 성주류화 제도
발전 포럼

PART 3

전략연구과제

기초연구과제

기본연구과제



020

2023 충남 성평등 포럼

여성의 눈으로 여성과 함께한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026

대만연수

국제교류를 통한
사회서비스 고도화 모색

030

호주연수

전국여성정책네트워크 국외연수

SPECIAL

충청남도
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출범
--
2023년 여성가족연구본부
하이라이트
--
특집 인터뷰

PART 1

2023 충남 성평등 포럼
--
대만연수
--
호주연수

PART 2

2023 충남여성 풀뿌리 자치학교
--
2023 충남여성소모임 인큐베이팅
Start-up
--
충남 여성 리더십 포럼
--
2023 충남 성주류화 제도
발전 포럼

PART 3

전략연구과제
--
기초연구과제
--
기본연구과제



2023 충남 성평등 포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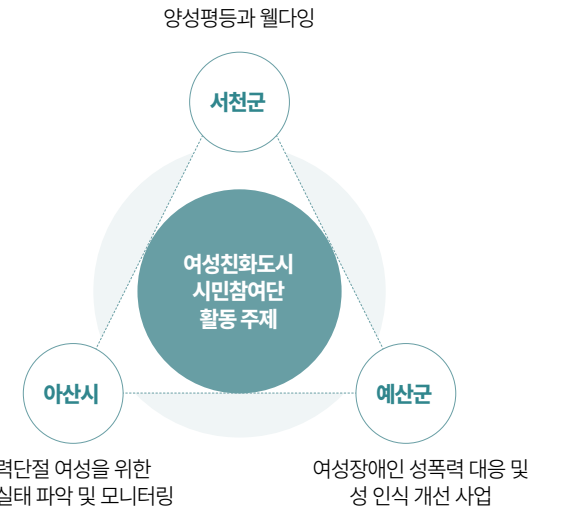


020

2023 충남 성평등 포럼

여성의 눈으로 여성과 함께한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 지난 12월 4일 충남 예산군에서 열린 '2023 충남 성평등 포럼'에 참석한 지역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구성원들의 얼굴에 웃음이 멈추지 않는다. 각자 준비해 온 각종 응원 도구와 소품을 몸에 두르고 기념사진을 찍느라 여념이 없다. 조금 우스꽝스러워 보일지라도 특별한 오늘을 사진 한 장이라도 더 남기려는 듯 촬영은 계속 이어졌다. 한쪽에서는 오랜만에 만났는지 서로 근황을 물으며 이야기꽃을 피웠다. 사회자의 장내를 정리해달라는 부탁에 행사장은 다소 진정이 되는 듯했지만, 여전히 표정들은 큰 기대와 함께 상기되어 있었다. 올 한 해 활동해 온 내용을 여러 사람 앞에서 자랑(?)해야 하는 각 시민참여단 대표 얼굴에는 살짝 긴장감도 보인다.



여성의 역량 강화와 참여로 성평등 지역사회 실현

이번 '2023 충남 성평등 포럼'은 올해 4월 '충청남도 성평등도시만들기 Gender-up' 공모사업을 통해 선정한 서천군, 아산시, 예산군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이 그동안 활동한 내용을 소개하고, 그동안 얻은 성취를 공유하고 연대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이 사업은 지속가능한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시민참여단의 참여 의지를 고취하고 지역의 여성인재로 성장할 기회를 마련하고자 매년 공모사업 형태로 진행되었다.

선정된 지역 시민참여단은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과 컨설팅을 비롯해 활동과 관련한 비용을 지원받으며 각자가 기획한 사업을 추진하였다.

PART 1

021

SPECIAL

충청남도
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출범
--
2023년 여성가족연구본부
하이라이트
--
특집 인터뷰

PART 1

2023 충남 성평등 포럼
--
대만연수
--
호주연수

PART 2

2023 충남여성 풀뿌리 자치학교
--
2023 충남여성소모임 인큐베이팅
Start-up
--
충남 여성 리더십 포럼
--
2023 충남 성주류화 제도
발전 포럼

PART 3

전략연구과제
--
기초연구과제
--
기본연구과제



양성평등과
웰다잉

여성의 관점에서
잘 살고 죽는 것이란?

서천군 여성친화도시 군민참여단(단장 김애경, 이하 서천군 참여단)은 ‘군민참여단 아카데미: 양성평등과 웰다잉’이란 주제로 교육과 토론을 거쳐 북콘서트까지 지역 여성들의 성평등에 관한 인식 개선과 역량 강화를 위해 활발하게 활동하였다.

서천군 참여단은 전문가 과정을 수료한 양성평등 강사가 지역 내 마을을 직접 찾아가 교육을 진행하여 지역 주민들의 양성평등 인식을 개선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리고 미술작품을 여성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본다’라는 의미를 다시 생각하는 ‘미술로 풀어보는 성인지’ 교육을 자체적으로 진행하기도 했다. 여기에 삶과 죽음을 성평등의 관점에서 살펴보고 토론하는 ‘양성평등과 생명사랑 웰다잉’ 교육과 토론을 통해 참여단원들이 개인의 삶은 물론 사회까지 시각을 넓혀 성평등에 관하여 더 깊이 생각하는 기회도 만들었다. 더불어 서천군 참여단은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이란 책을 주제로 ‘죽는 법을 알면 잘 사는 법도 알게 된다’라는 내용으로 북콘서트와 스터디를 진행하기도 했다.

서천군 참여단 김애경 단장은 “참여단원이 양성평등 강사로 성장해 주민들의 성평등 인식개선을 위해 활발하게 활동하고, 지역 내 단체들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성평등에 관한 교육과 토론을 진행하는 빈도가 잦아졌다”라며 “이러한 작은 변화를 통해 지역사회가 충분히 바뀔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보람된 과정이었다”라고 평가했다.

성평등의 전제는
‘경제적 활동’을 보장하는 것부터

아산시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단장 손유경, 이하 아산시 참여단)은 올해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정책 실태 파악 및 모니터링’을 주제로 활발한 활동을 전개했다.

아산시 참여단은 결혼과 출산으로 단절된 경력을 다시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우리 사회의 지원 현실이 어떤지 인터뷰와 각종 연구자료를 통해 살펴보고, 이를 통해 정책 제안까지 진행하였다.

특히 아산시 참여단의 제안 가운데 눈에 띄는 대목은 아산시 조례에 있는 ‘경력단절여성’이란 단어를 ‘고용중단여성’으로 바꾼 사례이다. ‘경력단절’은 부정적인 인식은 물론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에 대입하기에는 의미가 맞지 않다고 보았기 때문에 아산시 참여단은 ‘임신, 출산, 육아와 돌봄 등의 이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정책 실태 파악
및 모니터링

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 중에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으로 재정의하여 용어와 의미를 명확히 하고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자 ‘고용중단여성’이란 단어를 사용하도록 제안하였다.

그리고 아산시 참여단은 「아산시 여성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서 센터의 업무 조항에 ‘여성의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과정을 지원하고 인재를 육성하는 사업’을 추가하기도 했다. 이 조항은 센터 설치 목적에는 있지만 업무에 빠져 있어 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여성 이용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제안해 관철했다.

이 밖에도 아산시 참여단은 본인이 아닌 가족이나 타인의 경제적인 문제(보증) 등으로 신용불량이나 체납이 발생하여 지원사업 대상에서 빠질 경우 심사를 거쳐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도 했으며, 지인을 통한 구직이 대부분인 현실에서 아산시가 직업상담사를 적극적으로 채용해 구직 여성들이 적성에 맞는 다양한 직업과 연결되도록 돕는 방안도 제시했다. 손유경 단장은 “고용중단여성들을 만나 인터뷰를 진행하는 동안 참여단원들이 현실을 많이 답답해했고, 아직 해야 할 일이 많다고 느꼈다”라며 “소위 성평등 선진국이라고 하는 북유럽 국가들의 성평등 정책은 경제적 활동을 지원하고 보장하는 경제적 뒷받침이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여성장애인 양육자의 인식과
역량 개선 필요

예산군 여성친화도시 군민참여단(단장 이운경, 이하 예산군 참여단)은 ‘여성장애인 성폭력 대응 및 성 인식 개선사업’이란 주제로 여러 역량 강화 교육과 회의, 모니터링, 설문조사, 인터뷰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의 여성장애인 성폭력 문제를 살펴보고 대안을 마련하고자 노력하였다.

예산군 참여단은 지역에서 장애인 성범죄 발생이 적잖게 발생하고 여성장애인이 피해자인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무엇보다 여성장애인의 양육자들이 성범죄가 두려워 대학진학이나 사회생활을 막고 있다는 현실이 매우 안타까웠다.

이에 예산군 참여단은 장애인 성폭력을 이해하고 대응과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과 간담회를 진행하여 양육자와 참여단원, 시민들의 인식을 개선하고자 하였다. 또 장애인 자녀를 둔 양육자들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와 설문

SPECIAL

충청남도
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출범
--
2023년 여성가족연구본부
하이라이트
--
특집 인터뷰

PART 1

2023 충남 성평등 포럼
--
대만연수
--
호주연수

PART 2

2023 충남여성 풀뿌리 자치학교
--
2023 충남여성소모임 인큐베이팅
Start-up
--
충남 여성 리더십 포럼
--
2023 충남 성주류화 제도
발전 포럼

PART 3

전략연구과제
--
기초연구과제
--
기본연구과제



조사를 진행하면서 양육자의 인식을 개선하는 것은 물론 양육자들에게 필
요한 지원 방안을 찾기도 했다.
인터뷰에서 장애인 양육자들은 장애 연령과 유형에 맞춘 장애인 자녀와 양
육자 모두에게 성교육을 주기적으로 진행해야 하며, 전문 교육기관이나 상
담소를 설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경계성 장애인을 위한 전문 교육과 상
담이 이뤄져야 하며, 장애인 양육자들이 연대하고 시민들이 관심을 두는 것
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기도 했다.
이후 예산군 참여단은 인터뷰와 설문조사 등을 바탕으로 장애인 교육과 취
업 등을 위한 플랫폼 마련, 교육과 활동 지원, 장애인 양육자를 위한 프로그
램 개발, 성교육 및 상담 전문가 네트워크 형성 등을 지역사회의 정책과제
로 제시했다.
이윤경 단장은 “참여단 활동에서 가장 놀랐던 것은 성폭력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양육자들이 장애가 있는 자녀를 세상에 내놓지 못한다는 점이었다”
라며 “양육자들이 스스로 대응 역량을 키우고 지역사회가 관심을 두고 함
께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여성장애인 성폭력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
라고 말했다.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활동에 대한
전문가 견해

"작은 것부터,
그리고 꾸준히"



이연희
충남도의회 의원

서산군의회 의원 시절부터 경험한 바로는 여성이 목소리를 내야 할 때 내
지 못하면 여성친화도시는 선언에 그친다는 것이었다. 양성평등에 관한 개
념조차 갖지 않은 공무원들이 여성친화도시와 관련한 사업이나 정책을 추
진하는 것을 보면, 기존 사업이나 예산을 짜깁기 하는 수준을 벗어나지 못
한다. 우리 충남은 다른 지역과 비교해 남성 중심 경향이 더 뚜렷하다. 연령
대가 높은 인구 구성이나 농업 인구가 많은 것이 이유겠지만, 그동안 기울
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이 부족했다고 생각한다. 지역 여성들이
결집하고 응집력을 키울 때 지역사회가 여성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인다.
작은 것부터, 그리고 꾸준히 우리 사회의 인식을 바꿔 나가야 한다.

여성장애인
성폭력 대응 및
성 인식 개선
사업



류유선
대전·세종연구원 책임연구원

"참여단 활동 중단 없이
지원해야"

서천, 아산, 예산 참여단의 활동을 보면서 참여단이 보여준 역량과 능력은
리더의 역량, 지자체의 행정력, 그리고 충남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의 지원과 응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한다.
서천군 참여단의 활동은 구성원들의 지적 성장과 역량 강화의 과정을 보여
준 것 같다. 급격한 인구감소가 진행된 서천군에서 여성친화도시는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고 지역 여성의 삶에 역동성을 부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만
큼 서천군의 참여단 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예산지원이 필요하다.
아산시 참여단은 경력단절여성의 문제를 본질적으로 보지 않고 시민 삶과
직결된 조례 개정과 정책적 제안으로 나아갔는데, 시민 삶의 실질적 변화는
정책연구자나 집행자가 아닌 시민 자신이라는 것을 보여준 좋은 사례라고
평가한다.
예산군 참여단은 설문조사와 인터뷰, 간담회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장애인 정
책 개선안을 제안한 점이 매우 가치 있다고 생각한다. 참여단이 제시한 방
안들은 필수적인 사회서비스로 자리매김해야 하고, 예산군과 지역사회는
참여단의 제안을 2024년 정책과 사업에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여성과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여성친화도시"

세 지역의 참여단 활동은 여성의 성장과 지역의 변화가 여성친화도시 조
성을 통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서천군 참여단 사례는 단순한
교육에 머물지 않고 강사로서 지역사회에서 실제 역량을 발휘하는 활동
으로 발전한 것이 높이 평가할 만하다. 아산시 참여단 사례는 학습, 모니
터링, 인터뷰를 거쳐 정책 제안으로 이어지면서 향후 정책에 반영되고
다른 영역으로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었다. 예산군 참
여단 사례는 설문조사와 인터뷰 등으로 수렴한 의견을 정책과 긴밀하게
연계하여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 참여단의 활동 사례는 당연히 공유하고 확산해야 한다. 따라서 충
남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네트워크 구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이경하
충남성별영향평가센터 센터장

SPECIAL

충청남도
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출범
--
2023년 여성가족연구본부
하이라이트
--
특집 인터뷰

PART 1

2023 충남 성평등 포럼
--
대만연수
--
호주연수

PART 2

2023 충남여성 풀뿌리 자치학교
--
2023 충남여성소모임 인큐베이팅
Start-up
--
충남 여성 리더십 포럼
--
2023 충남 성주류화 제도
발전 포럼

PART 3

전략연구과제
--
기초연구과제
--
기본연구과제

국제교류를 통한 사회서비스 고도화 모색

여성가족연구본부
대만과 교류의 장을 넓히다

Taiwan



충남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여성가족연구본부(본부장 송미영)가 지난 11월 20일부터 3박 4일간의 일정으로 대만 신북시와 명진대학교 등을 방문하고 국제교류를 위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였다.

이번 대만 방문은 양국의 지자체와 정부의 정책 현황 및 방향성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논의하여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여성과 청소년, 복지서비스 분야에서의 협력사업 구축 및 연구 성과의 대외 확산, 양국과 양 기관의 지속적인 사업 추진과 우호적 교류 관계 증진을 위해 추진되었다.



연구본부-신북시, 명진대학교와 교류 협력 약속

송미영 본부장을 비롯한 방문단 일행은 첫날 명진대학교를 방문해 학교 시설을 둘러본 뒤 이난유 산학 및 국제부총장과 간담회를 진행하였다.

간담회에서는 연구 활동 및 청소년 대상 교류 행사 추진 방안을 논의하고, 한국과 대만의 사회적 문제를 중심으로 꾸준한 연구 교류가 진행되도록 상호 협조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 명진대학교를 중심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지속적인 교류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다음날 일행은 한국-대만 업무협약 및 국제세미나에 참석했다. 아침 이른 시간에 진행된 업무협약에서는 충남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이하 서비스원)과 신북시, 서비스원과 명진대학교가 각각 업무협약을 맺고 국제세미나 추진과 향후 교류 사업에 관해 논의했다.

이어서 열린 한국-대만 국제세미나는 이난위 명진대학교 국제부총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다. 첫 주제 발표에 나선 맹준호 서비스원 연구위원은 '한국의 아동돌봄 정책 현황 및 과제'라는 주제로 이야기했고, 유지양 타이페이시 기독교교회연합회 감독, 라이홍성 문화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교수가 토론자로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두 번째 주제 발표는 유청여 신북시 소년복지과장이 '신북시의 아동 및 청소년 정책 개요'를 주제로 이야기하고, 우복남 서비스원 여성가족연구본부 연구팀장, 조운진 서비스원 연구본부 연구위원이 토론자로 의견을 개진했다.



SPECIAL

충청남도
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출범
--
2023년 여성가족연구본부
하이라이트
--
특집 인터뷰

PART 1

2023 충남 성평등 포럼
--
대만연수
--
호주연수

PART 2

2023 충남여성 풀뿌리 자치학교
--
2023 충남여성소모임 인큐베이팅
Start-up
--
충남 여성 리더십 포럼
--
2023 충남 성주류화 제도
발전 포럼

PART 3

전략연구과제
--
기초연구과제
--
기본연구과제



028



대만의 사회서비스를 직접 보고 배우다

● 국제세미나를 마친 일행은 오후에 신북시의 아동과 청소년 관련 시설을 방문해 현장을 살펴보고 설명을 들었다. 일행은 장난감을 이용하고 빌려주는 신북시 장난감 은행과 정부의 사회서비스를 실행하는 신북시 화양청춘관을 방문해 각 시설의 설립과 운영, 성과 등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

셋째 날 일행은 대만 국립고궁박물관을 관람하고 오후에 명전대학교 타오위안 캠퍼스에서 열린 국제문화교육 행사에 공식 내빈으로 참석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장제스 관저와 중정기념당을 관람하고 귀국길에 올랐다.

대만 방문을 마친 송미영 본부장은 “양국의 다양한 현안과 사회문제 등을 주제로 정보교류와 실질적인 현장성을 가진 교류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다.”라며 “이를 위해 본원을 중심으로 신북시, 명전대학교와의 정기적이고 지속해서 교류하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또 송 본부장은 “저출생 및 아동·청소년의 사회적 문제가 한국과 대만이 크게 다르지 않았다”라며 “다양한 연구 사업과 사업 교류, 협력사업 추진 등이 이루어진다면 양 기관의 관련 업무 추진에 큰 시너지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029

SPECIAL

충청남도
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출범
--
2023년 여성가족연구본부
하이라이트
--
특집 인터뷰

PART 1

2023 충남 성평등 포럼
--
대만연수
--
호주연수

PART 2

2023 충남여성 풀뿌리 자치학교
--
2023 충남여성소모임 인큐베이팅
Start-up
--
충남 여성 리더십 포럼
--
2023 충남 성주류화 제도
발전 포럼

PART 3

전략연구과제
--
기초연구과제
--
기본연구과제



전국여성정책네트워크가 호주의 여성 가족 정책 및 활동 선진사례를 견학하기 위해 지난 6월 3일부터 10일까지 6박 8일간 국
외연수를 다녀왔다.

이 연수에는 충남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연구위원을 비롯해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대구광역시행
복진흥사회서비스원,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울산복지진흥원,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충북여성재단 관계자 총 22명이 참가했다.
연수 참가자들은 시드니와 골드코스트, 브리즈번 지역에 있는 여러 기관과 단체를 방문하였다.

전국여성정책네트워크 국외연수

030

#MDAA

다문화 배경 가정 장애인과 가족을 위한 개인 지원 활동



다문화 장애 옹호협회(Multicultural Disability Advocacy Association, MDAA)는 장
애가 있는 뉴사우스웨일즈 시민과 구성원을 지원하는 최고의 단체로, 특히 문화적·
언어적 다양성(culturally and linguistically diverse, CALD), 비영어권 배경의 사람들
(non English Speaking, NESB)을 집중해서 지원한다.

1992년 비영어권 배경의 사람들을 모으는 “Lets Speak Out Together” 포럼을 전신으
로 시작되었으며, 장애가 있는 가족과 보호자, 서비스 제공자, 정부 대표 등이 참석
하여 다문화 배경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 구축의 토대를 마련했다.

협회는 장애인에게 옹호 서비스와 지원을 제공하여 장애인이 그들의 권리를 행사
하고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 및 지원 시스템에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
고, 더불어 장애인과 그들의 가족, 지역사회 구성원을 대상으로 교육과 훈련 프로그
램을 진행하여 장애에 대한 사회의 이해를 높이고 다문화 사회에서의 포용과 인권
을 증진하는 데 이바지하고 있다.



#뉴사우스웨일즈 주정부

여성 역량 강화와 피해자 지원을 통한 안전 보장 시스템

뉴사우스웨일즈(New South Wales)는 호주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주로서 남동부해
안에 있어 해안, 국립공원, 도심까지 다양한 풍경을 만날 수 있는 곳이다. 18세기 말
이민자들이 도착하여 처음 도시를 꾸린 지역으로 호주 이민 역사의 상징적인 지역
이다. 주요 도시는 시드니이며, 금융, 관광, 제조, 농업이 고르게 분포하는 경제 구조
를 갖췄다.

2021년을 기준으로 호주에서 가장 많은 800만 명이 살고 있으며, 이 가운데 여성이
408만 명으로 더 많다.

주 정부는 성평등을 촉진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여성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전념하
고 있으며 이를 통해 차별을 철폐하고 여성에게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는 것을 목표
로 포괄적인 성평등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여성 리더십 강화 및 의사 결정 역할 참
여, 급여 격차 및 직장 내 차별 해결을 통해 모든 개인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을
조성하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개인의 안전을 보장하는 방법의 하나로 ‘빅팀 서포트 서비스’를 운영하는데, 뉴사
우스웨일스에서 일어난 모든 폭력 범죄의 피해자에게 상담, 금전적 지원, 보조금 지
급, 신체적·정신적 의료지원 등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 서비스다. 단
순 폭행 피해자뿐만 아니라 현대 노예 피해자로 표현되는 속칭 가스라이팅 피해자
도 피해자 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PART 1

031

SPECIAL

충청남도
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출범
--
2023년 여성가족연구본부
하이라이트
--
특집 인터뷰

PART 1

2023 충남 성평등 포럼
--
대만연수
--
호주연수

PART 2

2023 충남여성 풀뿌리 자치학교
--
2023 충남여성소모임 인큐베이팅
Start-up
--
충남 여성 리더십 포럼
--
2023 충남 성주류화 제도
발전 포럼

PART 3

전략연구과제
--
기초연구과제
--
기본연구과제



#노던센터

강력한 네트워크로 다져진 지원 협력 체계

1982년 설립한 노던센터(The Northern Centre)는 정부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기관(자선 단체)으로 개인의 역량 강화와 지역사회 변형을 위해 모든 연령대의 개인과 가족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노던센터는 '모두가 속할 수 있는 변형하는 지역사회'를 목표로 존중, 청렴, 혁신, 협력, 관용을 핵심 가치로 협력을 통한 지지로 강한 유대감을 가진 가족, 변형하는 지역사회의 성장을 돕는 것을 사명으로 활동하고 있다.

노던센터는 가족 구성원이 상담, 프로그램 참여 등을 통해 양육에 관한 지식과 노하우를 쌓도록 돕고, 2022년부터는 가정폭력 지원 서비스(domestic violence service)를 통해 모든 가족이 폭력 없는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보와 네트워크, 전문가 자문을 포함해 통합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자체 사업 외에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협력 관계가 있는데, 법률, 상담, 질병, 의료, 청소년보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 내 자원과 네트워크를 갖추며 역량을 키워왔다.



#블랙타운 시

취약계층의 권리 증진을 위해 앞장서는 지방정부



블랙타운시는 뉴사우스웨일스주 그레이터 웨스턴 시드니 지역에 있는 교외 지역이다. 총 5개로 구분된 구역에 총인구 42만여 명 가운데 20만여 명의 여성이 거주하고 있으며, 188개의 출생지를 가진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어 세계적으로 비교해도 국적 다양성이 두드러지는 다문화 지역이다. '블랙 타운'이라는 이름은 이 지역이 검은색의 토양을 가지고 있어 원주민들이 부르던 지명의 뜻이 그대로 번역되어 지역명으로 굳어졌다고 한다.

시는 2022년 발표된 호주 중앙 연방 정부의 '여성과 아동에 대한 폭력 종식을 위한 국가 계획'에 따라 성차별 폭력을 해결하고 예방하기 위한 종합적인 프레임워크를 구성했다. 이에 따라 양성평등을 촉진하고 지역사회 내에서 여성의 권리와 복지를 지원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 지방정부와 협의회는 차별을 없애 공정하고 포용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 성평등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동등한 대표성, 기회에 대한 접근, 젠더 기반 폭력 근절과 같은 문제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으며, 현재 부시장이 시장으로 선출되면 블랙타운 시 최초의 여성 시장 취임이라는 역사적인 전환을 앞두고 있다.

블랙타운 시는 다양한 경제·산업 분야 협력 방안과 더불어 장애인·여성·어린이·청소년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안전과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만들기 위해 호주 내·외부의 도시들과 우호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가까운 뉴질랜드부터 필리핀 등 여러 국가의 도시들과 교류 협력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대구광역시 수성구와 1994년부터 자매도시 관계를 맺고 있다.

SPECIAL

충청남도
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출범
--
2023년 여성가족연구본부
하이라이트
--
특집 인터뷰

PART 1

2023 충남 성평등 포럼
--
대만연수
--
호주연수

PART 2

2023 충남여성 풀뿌리 자치학교
--
2023 충남여성소모임 인큐베이팅
Start-up
--
충남 여성 리더십 포럼
--
2023 충남 성주류화 제도
발전 포럼

PART 3

전략연구과제
--
기초연구과제
--
기본연구과제



#퀸즐랜드 여성역사협회

하우스 박물관에서 보존하고 발전시킨 여성의 역사

1950년 설립된 퀸즐랜드 여성역사협회(QWHA)는 선도적인 역사 학회 중 하나이며 퀸즐랜드의 개척 역사에 대해 대중들에게 교육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단체로 호주, 특히 퀸즐랜드 여성의 역사와 업적에 대해 중점적으로 알리고 있다.

1967년 웨 힐스의 문화재로 지정된 미에구나 하우스(Miegunyah House)를 인수하여 박물관으로 운영하고 있다. 미에구나 하우스를 인수하기 위한 보증금 13,000달러는 시민 성금으로 마련했다.

협회와 미에구나 하우스 박물관은 자원봉사자들의 노력을 통해 운영되고 있는데 평균 자원봉사자 수는 40명에 이른다. 특별한 점은 박물관 운영을 통해 상당한 수익을 내고 있다는 점인데, 정부의 지원 외에도 수익모델이 존재하여 재무적 안정성을 가지고 있다. 전체 운영자금 중 일부는 정부의 특정 프로젝트를 통해 보조금을 받지만, 대부분의 수입은 회원들의 회비, 기부금, 입장료, 투어 및 다과 제공 등으로 충당하여 자립도를 유지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15,000점가량의 유물과 도서를 보유하고 있으며 대부분은 기부로 획득했다. 여성의 기념비적 의상, 역사적 중요성이 있는 가구에 컬렉션을 보유하고 있지만, 외에도 미술품, 사진 등도 전시하고 있다.

#게코

자원봉사자 주도의 민관합치 구축

게코(Gecko)로 알려진 게코환경협의회법인(Gecko Environment Council Association Incorporated)은 호주 퀸즐랜드에 기반을 둔 비영리 단체이다. 특히 골드코스트와 헌터랜드 지역의 자연환경 보호 및 보존에 전념하고 있다.

1989년에 설립되었으며 지속 가능한 지구를 위해 환경 보건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환경 보호에 대한 지역사회 참여를 촉진하고자 적극적으로 활동해 왔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역사회, 정부 기관 및 기타 환경 단체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회원, 자원봉사자, 협력 단체의 지원을 받아 운영하고 있고, 다양한 이해 관계자와 협력하여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보존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노력하고 있다. 게코의 활동은 크게 생물 다양성 보존, 기후 변화와 지속가능성, 교육, 커뮤니티 활동으로 이루어진다.

게코는 창립 초기부터 많은 협력 활동을 해왔다. 환경보호 캠페인과 더불어 가장 널리 알려진 프로그램은 'GeckoEd'이다. 학교와 각 지자체의 어린이들에게 방학 기간 중 환경 놀이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그간 수천 명의 어린이에게 지식을 전수했다.

이 외에도 Clean Up Australia Day, Gold Coast Green Week(Green Day Out을 기반으로 함) 등을 운영해 사회적 영향력을 확산하고 있으며, 우수한 환경 보호 사례에 대해 연례 환경상을 수여하는 등 선순환을 유도하고 있다.



SPECIAL

충청남도
여성이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출범
--
2023년 여성가족연구본부
하이라이트
--
특집 인터뷰

PART 1

2023 충남 성평등 포럼
--
대안연수
--
호주연수

PART 2

2023 충남여성 풀뿌리 자치학교
--
2023 충남여성소모임 인큐베이팅
Start-up
--
충남 여성 리더십 포럼
--
2023 충남 성주류화 제도
발전 포럼

PART 3

전략연구과제
--
기초연구과제
--
기본연구과제



전국여성정책네트워크 국외연수

참가 후기

이번 연수에 충남은 가장 많은 4명이 참가했습니다. 그래서 충남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겠다고 생각했는데 많이들 서로 도와주신 덕에 공부를 많이 했고 이것저것 새로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연수 때마다 느끼지만, 현지에서 보고 배우는 것만큼 국내에서 우리끼리 소통하는 창구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충남이 열심히 할 테니 한국에 돌아가서도 이번 연수를 계기로 만난 많은 분이 지속적인 소통 노력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송미영
충남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여성가족연구본부 본부장

전국여성정책네트워크 국외연수

참가 후기

내년 회장직을 역임하게 될 지역으로서 내년 연수가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이번 연수를 통해 자세히 알 수 있었습니다. 막상 한국에서는 방문기관 연수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막상 연수 과정에서는 방문기관 연수도 중요하지만, 현지의 문화를 체험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연수는 참가자들에게 더 만족도를 주고 연수 전체로는 우리 한국의 문화와 연수 지역 문화의 차이를 배경부터 이해해 제도의 차이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배울 수 있는 알찬 시간으로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민연경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 연구위원

전국여성정책네트워크 국외연수

참가 후기

지역적인 정책을 만들어 가면서 전국적으로 공통된 정책을 같이 고민하는 것도 이번 연수를 통해 배우게 된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대구에서 여성정책 관련자들 워크숍 같은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준비가 되면 꼭 초청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반드시 참석해 주셔서 이번 기회에 만들어진 대화의 창구를 계속 이어 나가길 희망합니다.

정순천
대구광역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원장

전국여성정책네트워크 국외연수

참가 후기

제가 여러 해외연수를 나와 봤지만, 이번처럼 공부를 많이 하고 대화도 많이 했던 연수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지난 3년간 이러한 해외연수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는데, 내년에도 이런 수준 있는 연수를 통해 해외사례를 배우고 여성정책을 다루는 각 지역의 기관들끼리 서로 소통하는 좋은 자리가 만들어지길 기대합니다.

이현주
충북여성재단 팀장

전국여성정책네트워크 국외연수

참가 후기

이번 연수에서 호주의 사례를 조금 더 깊이 접근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한국과 호주는 제도와 문화의 차이가 있어 우리 현실에 적용하는 것은 힘들지 모르지만, 호주의 피해자 지원 시스템 같은 것은 한국에서 응용해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사회도 점점 다문화 사회가 되어 가는데 그런 점에서는 한국이 호주에서 배워야 할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주
충남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여성가족연구본부 수석연구위원

전국여성정책네트워크 국외연수

참가 후기

저는 이번 연수를 통해서 세계 어느 나라든 여성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엄마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 항상 존재한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게코를 방문했을 때, 자원봉사자에게 제가 왜 이런 일에 자원봉사로 참여하느냐고 물었더니 '나는 엄마니까요'라는 대답에서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의 여성들이 느끼는 감정이 매우 비슷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엄마이기 때문에 현재 세대만이 아닌 다음 세대를 위한 일에 더 열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정정옥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전국여성정책네트워크 국외연수

참가 후기

이번 연수는 호주의 사례를 배운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었지만, 국내 여성정책을 함께 다루는 분들이 더 많은 대화를 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국외연수가 비단 그 나라의 제도와 문화를 이해하고 배울 것을 배워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성정책에 대한 연수단끼리의 소통도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번에 만나게 된 모든 분과 앞으로 자주 연락하고 서로 협력할 것은 협력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박미희
울산복지진흥원 본부장

참가 후기

이번 연수는 저에게는 아주 좋은 기회였습니다. 호주에 대해 잘 모르던 것을 알게 되었지만, 우리나라 곳곳에서 같은 주제와 고민으로 연구하는 분들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었다는 것이 더 기분 좋은 일이었습니다. 하는 일이 조금씩 다르고 분야도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여성, 가족, 아동, 돌봄에 관해서 가장 전문가인 우리가 서로의 소통을 통해 대한민국 여성 분야에서 가장 좋은 정책을 만들고 또 현실에 적용할 힘이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 만난 분들과 지속적인 교류가 필요합니다. 앞으로 그런 기회를 자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연정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전국여성정책네트워크 국외연수

참가 후기

이곳 호주는 원주민 여성, 이주여성의 문제가 우리나라보다 더 크다는 현실을 보았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도 이러한 호주의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번 경험이 앞으로의 연구 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최근 연구 주제로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 참가자 여러분께 다양한 의견을 여쭙볼 생각입니다. 이번에 함께한 분들이 호주 연수를 통해 얻은 다양한 정보를 공유해 주시면 연구 주제를 정하고 연구를 진행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임혜경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여성정책연구팀장

SPECIAL

충청남도
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출범

2023년 여성가족연구본부
하이라이트

특집 인터뷰

PART 1

2023 충남 성평등 포럼

대만연수

호주연수

PART 2

2023 충남여성 풀뿌리 자치학교

2023 충남여성소모임 인큐베이팅
Start-up

충남 여성 리더십 포럼

2023 충남 성주류화 제도
발전 포럼

PART 3

전략연구과제

기초연구과제

기본연구과제



PART 2

040

2023 충남여성 풀뿌리 자치학교

민주시민 역량 키우고,
세상을 보는 시각을 넓히다

044

2023 충남여성소모임 인큐베이팅 Start-up

성평등 확산과
여성의 삶에 관한 자각

048

충남 여성 리더십 포럼

양성평등 리더십은 '공정한
대한민국'으로 가는 지름길

052

2023 충남 성주류화 제도 발전 포럼

상호협력이 필요한 성 주류화,
여성친화도시에 관한
이해부터 높여야



SPECIAL

충청남도
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출범
--
2023년 여성가족연구본부
하이라이트
--
특집 인터뷰

PART 1

2023 충남 성평등 포럼
--
대만연수
--
호주연수

PART 2

2023 충남여성 풀뿌리 자치학교
--
2023 충남여성소모임 인큐베이팅
Start-up
--
충남 여성 리더십 포럼
--
2023 충남 성주류화 제도
발전 포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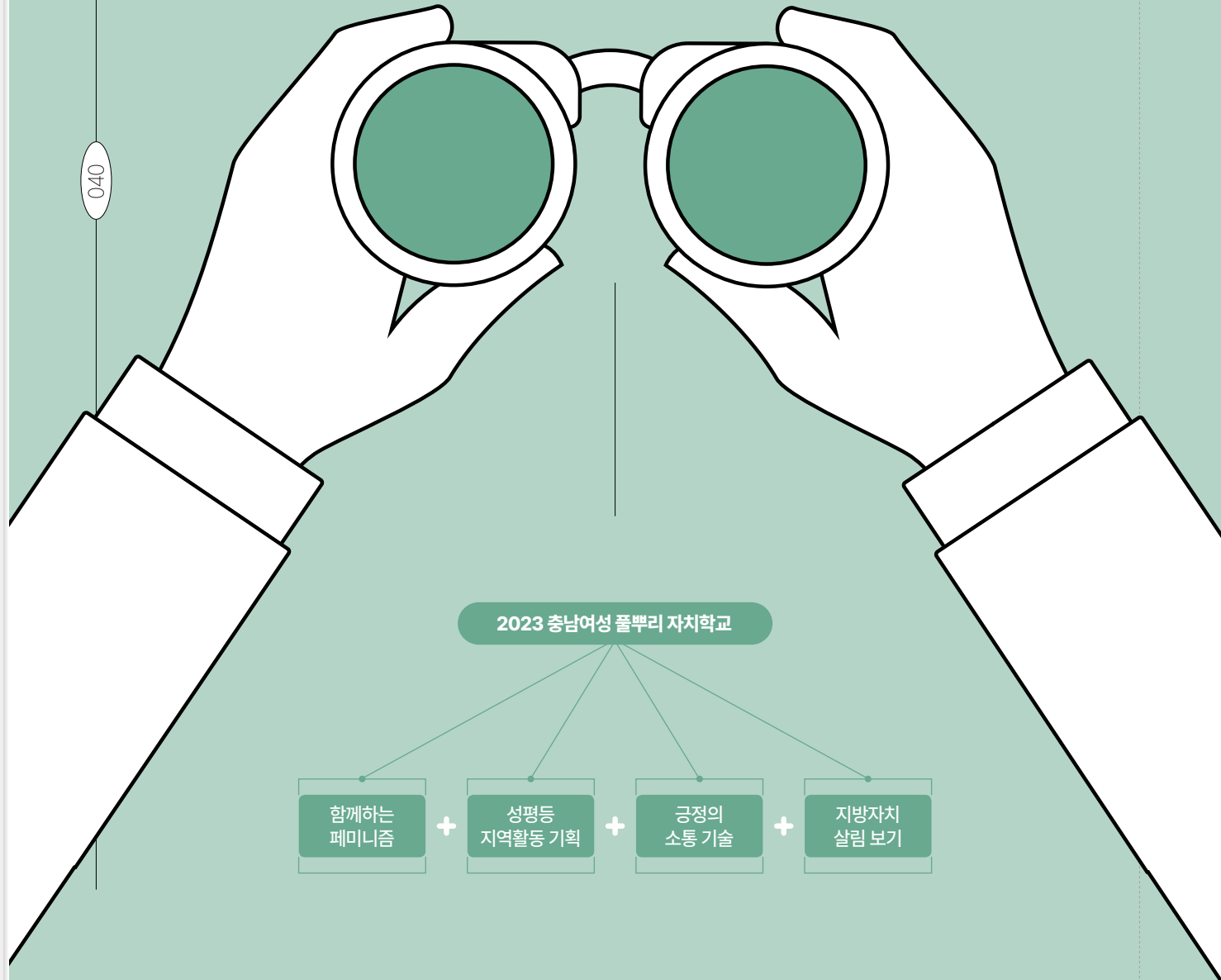
PART 3

전략연구과제
--
기초연구과제
--
기본연구과제



민주시민 역량 키우고, 세상을 보는 시각을

넓히다



040

041

2015년부터 도내 여성의 민주시민 역량을 키워온 '충남여성 풀뿌리 자치학교(이하 자치학교)'가 지난 12월 1일과 2일 이틀간의 교육을 마지막으로 마무리했다. 충남여성 풀뿌리 자치학교는 성인지 감수성 훈련을 시작으로 페미니즘의 역사, 여성노동, 여성과 민주주의, 사회적 모성, 지방자치 예산, 민주주의와 시민참여 등 다양한 주제에 관해 분야별 전문가들의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강의와 실습으로 이루어졌다.

천안시에 있는 젠더너머 교육실에서 진행한 올해 자치학교는 '내가 만드는 페미니즘', '성평등 지역활동 기획', '긍정의 소통 기술', '지방자치 살림 보기' 네 가지 주제로 강의가 진행되었으며, 강의마다 활발한 토론과 실습이 함께 이루어졌다.

첫 번째 강의는 박선의 충남성평등교육 전문강사의 '함께하는 페미니즘'이었다. 강의에서는 국내외의 페미니즘의 역사를 살펴보고 페미니즘의 진정한 의미와 방향성에 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다.

두 번째 강의는 이유진 전 문화기획달 대표의 '성평등 지역활동 기획'이란 주제로 진행되었다. 강의는 귀농·귀촌 여성들이 글쓰기를 통해 목소리를 내고, 이것을 모아 발간한 잡지 '지글스' 사례를 소개했다. 이어서 여성들의 지지와 연대, 농촌 페미니즘 캠페인, 예술과 활동으로 승화된 여성의 욕망과 삶 등 다양한 사례를 소개하며 성평등 지역활동을 어떻게 기획하고 함께할지를 함께 고민했다.

세 번째 강의는 황금명륜 젠더교육플랫폼효재 원장의 '긍정의 소통 기술'이었다. 강의는 차별과 혐오의 말이 난무하는 현대 사회에서 리더가 갖추어야 할 자질로 '젠더 리더십'을 지목하고, 긍정적인 말과 태도로 소통할 때 좋은 사람들이 연대하고 건설적인 결과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네 번째 강의는 이상석 예산감시전국네트워크 대표의 '지방자치 살림 보기' 강의로, 기본적인 예산과 지방재정의 개념과 구조를 이해하고 직접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모니터링 하는 실습으로 진행되었다.



SPECIAL

충청남도
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출범
--
2023년 여성가족연구본부
하이라이트
--
특집 인터뷰

PART 1

2023 충남 성평등 포럼
--
대만연수
--
호주연수

PART 2

2023 충남여성 풀뿌리 자치학교
--
2023 충남여성소모임 인큐베이팅
Start-up
--
충남 여성 리더십 포럼
--
2023 충남 성주류화 제도
발전 포럼

PART 3

전략연구과제
--
기초연구과제
--
기본연구과제



2023 충남여성 풀뿌리 자치학교
수강생 **임옥선, 윤혜민** 씨

2023 충남여성 풀뿌리 자치학교에 참가한 임옥선, 윤혜민 씨는 공주에서 각자 시민단체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열혈 여성이다. 두 사람은 어린이, 청소년, 여성 등 사회적 약자의 인권 보호와 사회적 인식 개선에 관심이 있어 나름대로 세상을 향해 목소리를 내고 있었다. 내 주변부터 의미 있는 작은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는 두 사람의 눈빛에는 차가운 겨울바람도 훈훈하게 데우는 뜨거운 열정이 엿보였다.



042

풀뿌리 자치학교에는 어떻게 참여하게 되셨나요?

임옥선 풀뿌리 자치학교 참가 신청을 받는다는 뉴스레터를 보고 참가하게 됐어요. 공주에서 ‘어린이책 시민연대’라는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이곳에서 활동하며 어린이 인권, 학생 인권에 관심을 두게 됐고, 이 관심이 사회적 약자에 관한 관심으로 확대되면서 ‘여성’의 문제를 공부하고 싶었습니다.

윤혜민 저는 ‘공주 책 읽는 여성 행동’이라는 단체에서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충남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여성가족연구본부의 여성 소모임 인큐베이팅 사업에 참가했다가 풀뿌리 자치학교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Q1

소도시일수록 페미니즘을 주제로 공부할 기회가 없을 것 같습니다. 공주에서는 어땠는지 궁금해요

Q2

임옥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지역에서 페미니즘을 접하고 공부할 기회는 전혀 없었습니다. 처음 페미니즘을 공부하기로 마음먹었을 때는 개인적으로 서울을 비롯해 여러 지역의 페미니즘 교육을 찾아다녀야 했습니다. 그렇게 페미니즘을 공부할수록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넓어지고 스스로 성숙해지는 느낌도 받았습니다. 마침 옛 충남여성가족연구원(현재 여성가족연구본부)이 진행하는 여러 교육사업을 만났고, 열심히 참석하면서 공부했습니다.

윤혜민 ‘공주 책 읽는 여성 행동’에서 우리끼리 공부하고 이야기하는 것 말고는 다른 기회가 없었어요. 그러다 풀뿌리 자치학교에 참가해 페미니즘을 제대로 접하고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이 교육을 통해 성인지 감수성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고, 우리 일상에서 당연시했던 것들이 얼마나 부당하고 잘못된 것인지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불편함은 행동으로 이어졌습니다. 내 주변부터 성 인식 개선을 위해 목소리를 냈고, 나아가 ‘누드인절미 축제’ 대신 ‘사백년인절미축제’로 축제 명칭을 바꾸는 성과도 냈습니다. 지금은 축제 위원들이 성인지 교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나부터, 내 주변부터 조금씩 목소리를 내는 것만으로도 우리 사회를 크게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043

조직이 통폐합되면서 풀뿌리 자치학교 같은 교육사업이 종료되는데, 아쉬움이 클 것 같아요.

Q3

임옥선 이런 교육은 더 많은 여성, 아니 더 많은 시민이 함께 들어야 하는데 올해를 마지막으로 끝난다니 아쉬움이 너무 커요. 저는 이번 교육이 마지막이라고 해서 연차를 내고 왔습니다. 충남 여성들이 모이는 구심점이 사라지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윤혜민 충남여성 풀뿌리 자치학교는 제목 그대로 민주시민으로 역량을 키우는 교육입니다. 민주시민은 지역사회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면서 해결할 방안을 찾고, 참여를 통해 변화를 모색합니다. 이 과정에서 연대와 협력이 중요하고요. 자치학교가 중요한 연대의 장이었는데, 사라진다고 하니 안타깝워요. 하루빨리 다시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SPECIAL

충청남도
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출범
--
2023년 여성가족연구본부
하이라이트
--
특집 인터뷰

PART 1

2023 충남 성평등 포럼
--
대만연수
--
호주연수

PART 2

2023 충남여성 풀뿌리 자치학교
--
2023 충남여성소모임 인큐베이팅
Start-up
--
충남 여성 리더십 포럼
--
2023 충남 성주류화 제도
발전 포럼

PART 3

전략연구과제
--
기초연구과제
--
기본연구과제



성평등 확산과 여성의 삶에 관한 자각

2023

충남여성소모임 인큐베이팅

Start-up

충남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여성가족연구본부는 충청남도에서
활동하는 풀뿌리여성소모임을 지원하기
위해 2014년부터 공모사업을 진행해
왔다. 4월 10일부터 24일까지 공모
기간에 신청한 사업들을 심사한 결과
올해도 6개 소모임이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었으며, 5월 9일 협약식과 함께
지원사업이 시작됐다.

선정된 사업들은 안심벨 모니터링,
여성주의 글쓰기, 이주여성 차별
실태 조사, 다국적 문화 이해와
연대, 이주여성 통번역 활동가 양성,
여성주의 문화 활동 등 6개이다. 선정된
각 소모임에는 사업비 3백만 원과
연구본부의 컨설팅이 진행되었으며,
6월부터 10월에 걸쳐 각자 계획된
사업을 수행하였다.

044



50세 사춘기 글쓰기로 나를 찾다

'50세 사춘기' 팀은 정기적인 독서 모임과
함께 함께 글 쓰고 토론하면서 자신을
되돌아보고 적성을 찾아가며 알게 모르게
담아왔던 각자의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었다. 이후 모임 참가자들은 음식
나눔과 여행 등을 거치며 서로 연대하고
응원하면서 자립심을 키워낼 수 있었다.
'50세 사춘기'는 올해 활동하면서 쌓은
글을 모아 에세이집 '50세 사춘기'를
발간하기도 했다.



다례휴림(茶禮休林) 차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다

우리나라는 다문화사회로 접어들었지만
타국의 문화를 이해하고 공유하는 경험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다례휴림'은
동아시아에서 모두 익숙한 '차(茶)'를
나누며 서로 소통하고 친밀감을 쌓으며
문화를 공유하고자 하였다. 모임에는

일본인 회원 4명을 비롯해 모두 12명이
회원으로 활동했으며, 이들은 금산향교
명륜당에서 6월부터 10월까지 10회에
걸친 모임을 통해 차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공부하고, 한국과 일본, 중국의 차
마시는 법을 익혔다.

SPECIAL

충청남도
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출범
--
2023년 여성가족연구본부
하이라이트
--
특집 인터뷰

PART 1

2023 충남 성평등 포럼
--
대만연수
--
호주연수

PART 2

2023 충남여성 풀뿌리 자치학교
--
2023 충남여성소모임 인큐베이팅
Start-up
--
충남 여성 리더십 포럼
--
2023 충남 성주류화 제도
발전 포럼

PART 3

전략연구과제
--
기초연구과제
--
기본연구과제



또 하나의 붓물(또봇)
여성으로서 나를 긍정하다

'또 하나의 붓물(이하 또봇)'은 여성주의 문화 지원 기획 그룹으로, 페미니즘을 함께 공부하고 관련 문화 콘텐츠를 공유하며 연대하는 모임이다. '또봇'은 독서와 토론,

여성의 관점에서 글 쓰기, 차원이 다른 성교육, 페미니즘 스테디, 다른 지역 단체와 연대를 위한 행사 참여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다.

여우비
"우리 동네 안심벨 어디있슈?"



여성소모임 '여우비' 팀은 천안 두정동과 성정동 일대 안심벨(비상벨) 모니터링을 진행했다. 이 팀은 6월과 7월 두정동과 성정동 지역 안심벨 전체를 직접 조사하는 한편, 조사한

결과를 지도에 모두 표시하여 지역 여성들에게 공유하기도 했다. 또 천안서북경찰서 시민경찰위원회와 함께 두정동과 성정동 먹자골목을 돌며 안심벨 모니터링 활동과 성범죄 예방 홍보활동을 전개하기도 했다.

충남女幸
이주여성이 함께 행복한 길 찾기

'충남女幸' 팀은 지역 이주여성들이 노동, 사회, 문화, 정치 등 각 분야에서 어떤 차별을 받았는지 인터뷰와 간담회 등을 통해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주여성 차별 실태 심층 세미나와 보고서 발간을 진행했다. 보고서에서 '충남女幸' 팀은

이주여성이 한국 사회에서 차별 없이 살아가도록 각 분야 정보를 모국어로 제공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사회 전반의 인권 감수성이 강화되도록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 강화의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행복한 미래
이주여성 활동가의 전문성과 역량 강화

'행복한 미래' 팀은 결혼이주여성이 전문적인 통·번역 전문가로서 지역사회와 이주민을 연결하는 활동가로서 역량을 발휘하도록 돕는 다양한 활동을 벌였다. 이 팀은 선후배 통번역 활동가들이 함께 등산과 트레킹하는 시간을 마련해 서로 고민과 경험을 소통하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할 기회를 제공했다. 또 이주여성들이 상담자로서의 역량 강화를 위해 관련 교육을 제공하였으며, 다른 지역 이주여성 활동가들과 만나 이야기 나누는 간담회 자리도 마련해 서로 응원하고 연대하도록 도왔다.



SPECIAL

충청남도
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출범
--
2023년 여성가족연구본부
하이라이트
--
특집 인터뷰

PART 1

2023 충남 성평등 포럼
--
대만연수
--
호주연수

PART 2

2023 충남여성 풀뿌리 자치학교
--
2023 충남여성소모임 인큐베이팅
Start-up
--
충남 여성 리더십 포럼
--
2023 충남 성주류화 제도
발전 포럼

PART 3

전략연구과제
--
기초연구과제
--
기본연구과제



최근 우리 사회에서
필요한 시대정신으로
'공정한 대한민국'을 꿈꾼다.
그리고 이 시대정신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리더십으로
'양성평등'을 거론한다.
'성(性)'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않고
자기 능력에 따라
동등한 기회와 권리를
누리는 것을 의미하는 '양성평등'.
양성평등은
'공정한 대한민국' 시대정신과
떨어질 수 없는
하나의 아이콘이 됐다.
이 양성평등을 바탕으로 한
리더십은 '충남 여성 리더십
포럼'에서 진지하게
논의되었다.

양성평등 리더십은 '공정한 대한민국'으로 가는

지름길
지름길
지름길
지름길



048



PART 2

049

충남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이 주최하고 충청남도가 주관하여 9월 23일
과 11월 27일 부여군과 아산시에서 각각 열린 포럼에는 조경훈 서비스원 원장과
김범수 충남 여성가족정책관을 비롯해 남부권 여성단체 회장과 임원 등이 참석
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포럼 주제 발표는 이영은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이사이 '여성단체의 역사와 양성
평등 이슈', 성윤아 충남여성단체협의회회장의 '충청남도여성단체협의회 성과와 과
제'가 있었다.
송미영 여성가족연구본부 본부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 지정토론에서는 박미옥
도의원이 △차세대 활동가 육성 △협력적 거버넌스 주체로서 여성단체의 위상
△여성단체 내 소모임 활동 활성화 등을, 임우연 충남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
원 선임연구위원이 △단기성이 아닌 지속사업 기획 필요성 △차세대 및 풀뿌리
여성단체들과의 상시적인 소통 채널 구축 등을 제안했다.
이어서 허명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이 '양성평등 사회와 여성 리더십'이란 주
제로 특강이 진행되고 이날 포럼이 마무리되었다.

CHUNGNAM WOMAN LEADERSHIP FORUM

SPECIAL

충청남도
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출범
--
2023년 여성가족연구본부
하이라이트
--
특집 인터뷰

PART 1

2023 충남 성평등 포럼
--
대만연수
--
호주연수

PART 2

2023 충남여성 풀뿌리 자치학교
--
2023 충남여성소모임 인큐베이팅
Start-up
--
충남 여성 리더십 포럼
--
2023 충남 성주류화 제도
발전 포럼

PART 3

전략연구과제
--
기초연구과제
--
기본연구과제



이영은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이사



‘여성단체의 역사와 양성평등 이슈’

이영은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이사는 협의회가 진행한 다양한 활동을 소개했다. 이 과정에서 여협과 충청남도가 지난 6월 2일 충남도청 상황실에서 체결한 ‘여성정책 협력강화 업무협약(MOU)’을 설명하기도 했다. 여협과 충청남도는 MOU를 통해 여성정책 활성화 및 협력 강화를 위하여 ‘7대 협력과제’를 발굴·이행하기로 했다. 7대 협력과제는 ▲유관순상 위상 강화 및 인식확산(공동주최) ▲탄소중립경제 특별도지지 및 홍보 ▲여성단체 국제교류 지원 ▲충남 문화·관광 홍보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충남 농수축산물 이용 촉진 ▲재난재해 시 자원봉사 지원 등이다.

성윤아
충남여성단체협의회 회장



‘충남여성단체협의회 성과와 과제’

성윤아 충남여성단체협의회 회장은 현재 충남여성단체의 일반 현황을 소개한 후 ‘여성단체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공유했다. 성 회장은 ▲조직의 설립 목적 및 정체성 확립 ▲재정적인 안정성 확보 ▲여성단체 지도자 리더십 강화 ▲여성단체 차세대 활동가 육성 등의 필요성을 이야기했다. 이어서 성 회장은 양성평등 실현, 여성의 사회참여, 지위 향상 등을 위한 사업 확장으로 양성평등 사회 구현이라는 여성단체의 기본적 이념과 목표가 잘 반영되도록 점검해 단체별 정체성이 확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명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



‘양성평등 사회와 여성 리더십’

허명 회장은 양성평등과 융화된 여성 리더십이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핵심임을 피력했다. 해당 리더십은 정직·공정·자존심·신뢰 등 4개의 자질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어 이 리더십의 모범사례로 ▲앙겔라 메르켈 전 독일 총리 ▲로라 예거 미군 최초 여성 육군 보병사단장 ▲이배용 대한민국 초대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등을 언급했다. 이들은 정직·공정·자존심·신뢰를 바탕으로 한 리더십을 발휘해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은 공통점이 있다고 허명 회장은 설명했다.



SPECIAL

충청남도
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출범
--
2023년 여성가족연구본부
하이라이트
--
특집 인터뷰

PART 1

2023 충남 성평등 포럼
--
대만연수
--
호주연수

PART 2

2023 충남여성 풀뿌리 자치학교
--
2023 충남여성소모임 인큐베이팅
Start-up
--
충남 여성 리더십 포럼
--
2023 충남 성주류화 제도
발전 포럼

PART 3

전략연구과제
--
기초연구과제
--
기본연구과제

상호협력이 필요한 성 주류화, 여성친화도시에 관한

이해부터 높여야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이 10월 6일 홍성가족어울림센터 나래홀에서 '2023년 충남 성주류화 제도 발전 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은 지역 정책의 성주류화 추진 방안 모색을 위해 매년 개최하고 있으며, 올해는 '성주류화 전략 실현을 위한 여성친화도시 정책 연계 방안'을 주제로 충남 성별영향평가 컨설턴트, 지자체 담당 공무원,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052



GENDER MAIN- STREAMING



053

포럼에는 이경하 충남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충남성별영향평가센터장이 '충남 여성친화도시 추진 현황 및 활성화 방안', 안태운 서울여대재 관장이 '국내외 여성친화 도시 사례와 시사점', 최성은 대전세종연구원 책임연구원이 '성주류화 전략 실현을 위한 여성친화도시 정책 연계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김영주 충남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수석연구위원이 좌장을 맡아 김혜경 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최연숙 당진시의회 의원, 이윤경 디지털 성범죄 연구소 소장, 김경희 교육만세협동조합 상임이사가 참여하여 '충남의 여성친화도시 조성 활성화와 연계한 성주류화 전략 실현 방안'에 대해 토론했다.



SPECIAL

충청남도
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출범
--
2023년 여성가족연구본부
하이라이트
--
특집 인터뷰

PART 1

2023 충남 성평등 포럼
--
대만연수
--
호주연수

PART 2

2023 충남여성 풀뿌리 자치학교
--
2023 충남여성소모임 인큐베이팅
Start-up
--
충남 여성 리더십 포럼
--
2023 충남 성주류화 제도
발전 포럼

PART 3

전략연구과제
--
기초연구과제
--
기본연구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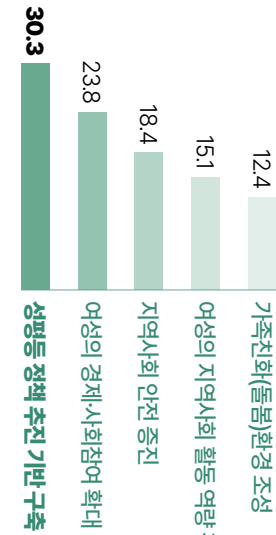


054



055

여성친화도시
이해와 관심도
제고 위한 광역 단위
지원 필요



이날 포럼에서 이경하 충남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성별영향평가센터장이 발표한 '여성친화도시 조성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은 충청남도 여성친화도시 사업 추진 현황 분석과 관계자 설문조사 및 핵심 집단 심층 인터뷰를 통해 나온 결과였다.

지난 5월 4일부터 5월 18일까지 충남 10개 여성친화도시 조성지역의 관련 부서 공무원·시(군)민참여단·관련 협의체와 전문가 201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로 진행한 이번 조사는 여성친화도시 사업 추진으로 인해 지역정책과 환경변화의 효과성에 대해 '효과가 있다'라는 응답이 67.7%에 달했으며, 사업 효과가 큰 영역으로는 '성평등 정책 추진 기반 구축'이 30.3%로 가장 높고, ▲ '여성의 경제·사회 참여 확대' 23.8% ▲ '지역사회 안전 증진' 18.4% ▲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 역량 강화' 15.1% ▲ '가족친화(돌봄)환경 조성' 12.4% 순으로 나타났다.

여성친화도시 사업을 추진하는 데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 또는 기관에 관한 질문과 여성친화도시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필요 사항을 묻는 질문에 모두 '기초자치단체장'의 적극적인 의지가 1순위로 나타나 여성친화도시 조성에서 자치단체장의 의지가 매우 중요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여성과 지역주민의 자율적인 참여로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는 시민참여단은 자신들의 활동에 대한 만족도가 100점 평균 환산 결과 57.7%로 보통 이상의 수준이었으며, 불만족의 사유로는 '담당부서 및 사업부서 공무원의 사업에 대한 열의 부족'을 1순위로 꼽았다. 또한 시민참여단의 주요 역할로는 응답자의 10명 중 4명 이상이 '의제 발굴부터 사업 추진·사업 평가의 전 과정에서의 행정과 공동 협력하는 역할'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여성친화도시 사업을 추진하는 공무원들은 '여성친화도시 사업에 대한 이해 부족(25.0%)'을 가장 큰 애로점으로 꼽았으며, 주무부서 공무원은 '행정 내 공감대 형성과 부서 간 협업'이, 사업 추진부서 공무원은 '대표사업 발굴과 여성친화도시 사업에 대한 이해 부족'이 애로점인 것으로 응답해 집단 간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연구를 수행한 이경하 연구위원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은 여성과 지역주민의 참여·행정 내 부서 간 협업을 통해 지역 정책을 안전과 편리성·건강한 삶이 보장될 수 있도록 성평등 관점으로 개선하는 데 매우 크게 이바지할 수 있다”**라면서 “시군 별로 추진되는 여성친화도시 사업의 성과 공유와 확산을 통해 시군별 조성 수준의 격차 완화와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이해와 관심도 제고를 위한 충남 광역 단위에서의 다양한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SPECIAL

충청남도
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출범
--
2023년 여성가족연구본부
하이라이트
--
특집 인터뷰

PART 1

2023 충남 성평등 포럼
--
대만연수
--
호주연수

PART 2

2023 충남여성 풀뿌리 자치학교
--
2023 충남여성소모임 인큐베이팅
Start-up
--
충남 여성 리더십 포럼
--
2023 충남 성주류화 제도
발전 포럼

PART 3

전략연구과제
--
기초연구과제
--
기본연구과제

전략연구과제

058

충남 학교 밖 청소년 생활실태 및
보호·지원 방안 연구

기초연구과제

063

충남 여성 경제활동
실태조사

기본연구과제

067

충남 폭력 피해자 보호·지원시설
운영 안내서 개발 연구

070

충남 다문화가족 청년 자녀
사회진입 현실과 지원 방안

074

충남 청년여성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방안

081

충남 자치경찰
인사운영 방안 연구

085

충청남도 여성친화도시 사업 이행
현황 분석 및 활성화 방안

091

충청남도 사회적 고립 은둔 청년
실태 및 지원 방안

096

충청남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방안 연구

101

충청남도 케어팜 연계 사회서비스
수요조사 연구

106

충청남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관 협력 강화 방안 연구

110

충청남도 사회보장의 지역 간
격차분석

114

충청남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지원사업 분석 연구

PART 3



SPECIAL

충청남도
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출범
--
2023년 여성가족연구본부
하이라이트
--
특집 인터뷰

PART 1

2023 충남 성평등 포럼
--
대만연수
--
호주연수

PART 2

2023 충남여성 풀뿌리 자치학교
--
2023 충남여성소모임 인큐베이팅
Start-up
--
충남 여성 리더십 포럼
--
2023 충남 성주류화 제도
발전 포럼

PART 3

전략연구과제
--
기초연구과제
--
기본연구과제



충남 학교 밖 청소년 생활실태 및 보호·지원 방안 연구

연구자: 오민아 연구위원

학교 밖 청소년은 정확한 규모를 파악할 통계가 없어 국가교육통계센터의 '학업 중단 현황' 자료를 통해 유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22)의 추정치를 보면 학령기 국내 학교 밖 청소년은 2021년 기준 약 14만 5천 명이며 본 연구의 추정치는 충청남도 내 학령기 학교 밖 청소년이 8,323명인 것으로 파악된다.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정책지원을 더욱 강화하려면 정부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결단 역시 중요하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충남도 내 15개 시·군에 거주하는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수행하여 정책지원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 이에 더하여 지자체의 정책지원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0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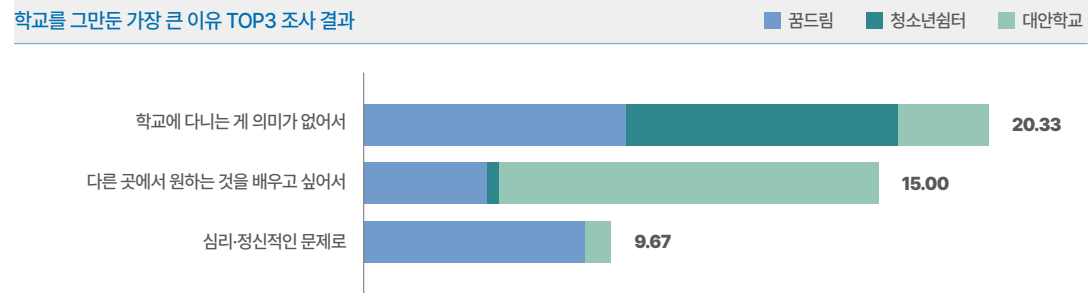
충남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 중단과 이후의 삶

충남 학교 밖 청소년이 학교를 그만두는 가장 빈번한 이유로 '학교에 다니는 게 의미가 없어서'와 '심리·정신적인 문제로'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청소년쉼터 이용 청소년은 '학교에 다니는 게 의미가 없어서'라고 응답하였다. 대안학교 청소년은 '다른 곳에서 원하는 것을 배우고 싶어서'를 가장 높은 비율로 응답하여 꿈드림 및 청소년쉼터 이용 청소년과 다른 특성을 나타냈다.

학업 중단 이후 은둔 기간을 거친 응답자가 정부와 지자체의 서비스 영역으로 유입된 주요한 계기는 '가족(부모님, 형제 등) 또는 친지의 권유'가 가장 비율이 높았다. 학교 밖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공적 서비스 체계를 누구나 접할 수 있도록 평소 광범위한 안내와 홍보가 절실한 것으로 보인다.

충남의 학교 밖 청소년의 유형 분류 결과 꿈드림 및 대안학교 이용 청소년은 '학업형'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청소년쉼터 청소년은 '무업형'이 가장 높았다. 소속 기관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이 특성이 매우 다르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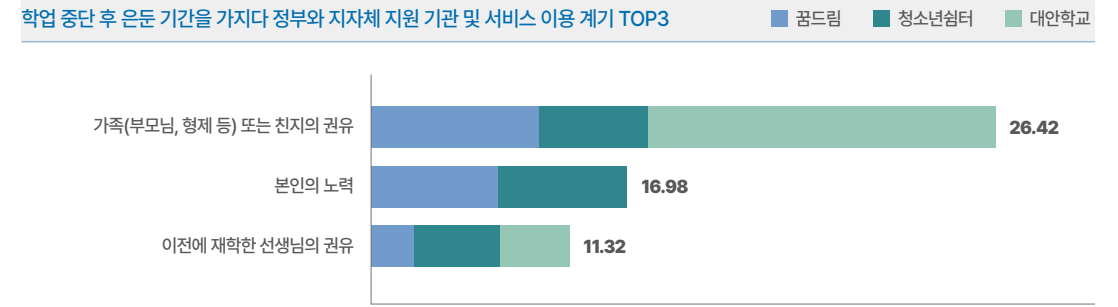
학교를 그만둔 가장 큰 이유 TOP3 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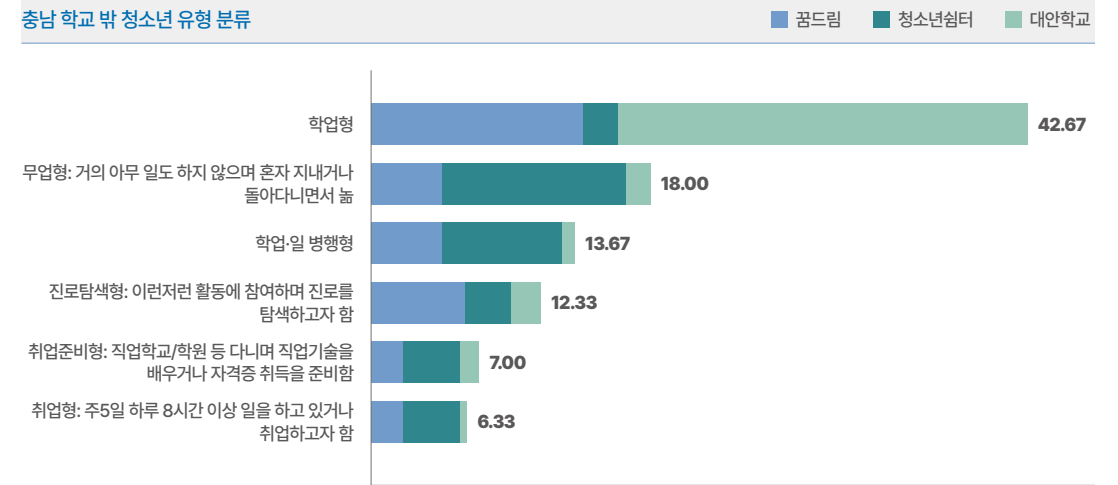
PART 3

059

학업 중단 후 은둔 기간을 가지다 정부와 지자체 지원 기관 및 서비스 이용 계기 TOP3



충남 학교 밖 청소년 유형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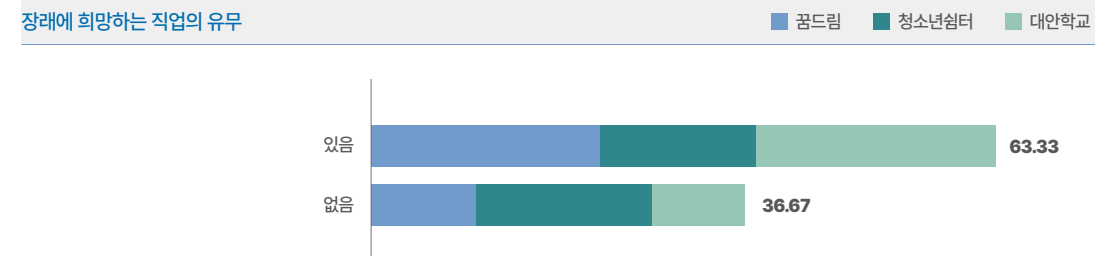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 탐색 수준은?

충남의 학교 밖 청소년 63.33%는 장래에 희망하는 직업이 있다고 응답했고, 이들 가운데 희망 직업에 대한 업무 내용을 '잘 알고 있음'으로 대답한 비율은 43.68%였다. 이 수치는 전국 재학생과 비교해 각 직업에 대한 구체적인 탐색 수준이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래에 희망하는 직업이 없는 충남 학교 밖 청소년 가운데 청소년쉼터 이용 청소년은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모른다는 것에 가장 많이 응답했고, 꿈드림과 대안학교 이용 청소년은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잘 모른다고 응답했다.

장래에 희망하는 직업의 유무



SPECIAL

충청남도
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출범
--
2023년 여성가족연구본부
하이라이트
--
특집 인터뷰

PART 1

2023 충남 성평등 포럼
--
대만연수
--
호주연수

PART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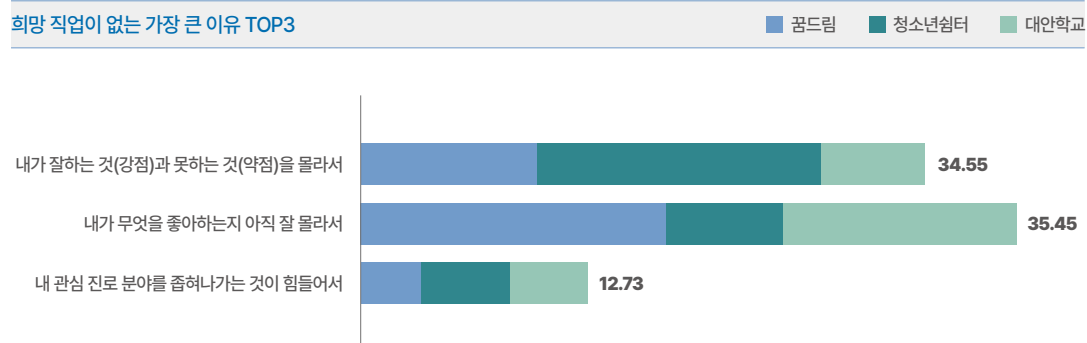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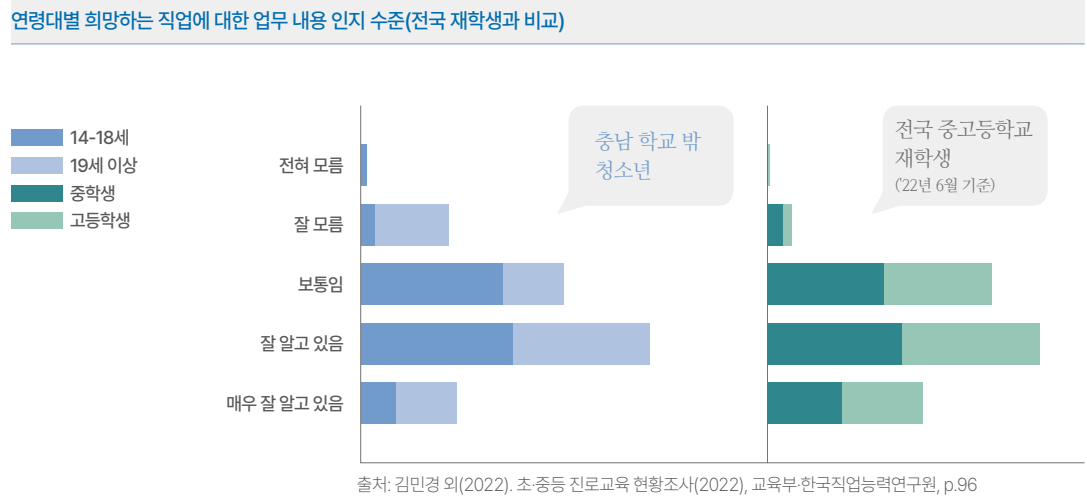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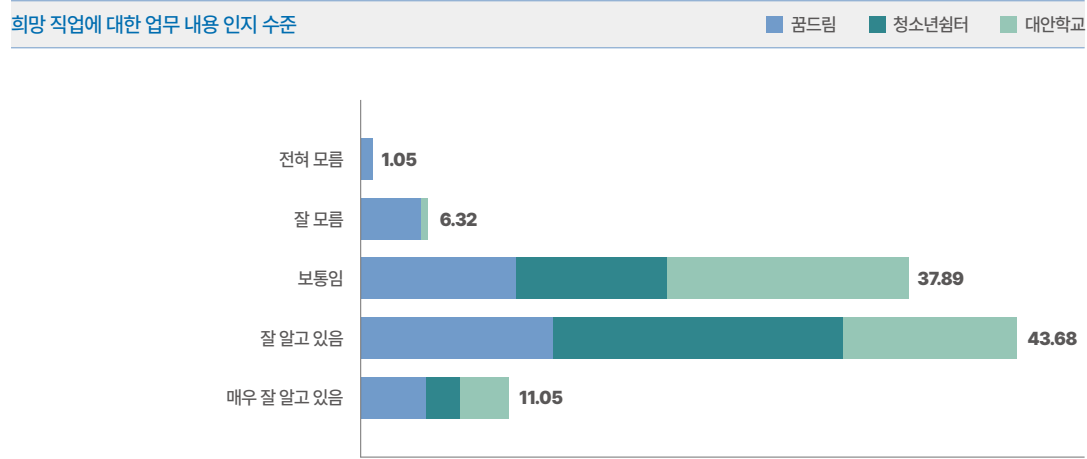
2023 충남여성 풀뿌리 자치학교
--
2023 충남여성소모임 인큐베이팅
Start-up
--
충남 여성 리더십 포럼
--
2023 충남 성주류화 제도
발전 포럼

PART 3

전략연구과제
--
기초연구과제
--
기본연구과제



0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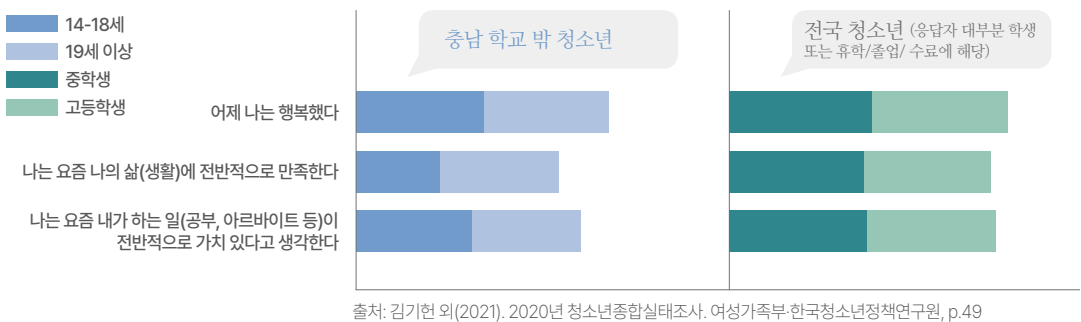
PART 3

061

학교 밖 청소년의 심리·정서·생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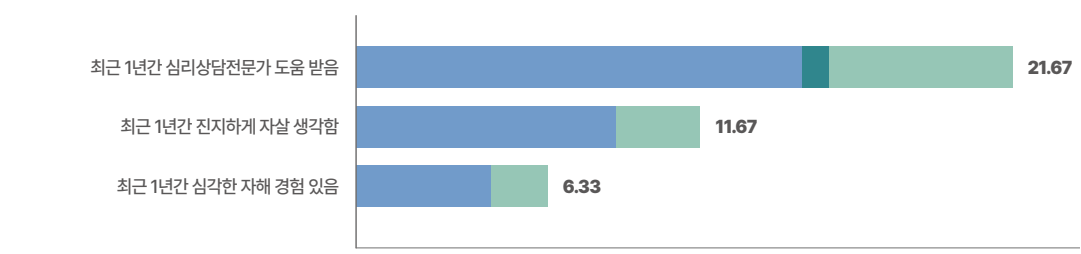
충남 학교 밖 청소년은 전국 청소년과 비교해 주관적 안녕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속 기관에 따른 응답자의 정신건강 수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꿈드림 이용 청소년은 '최근 1년간 심리상담전문가 도움 받음'에 38.17%로 가장 많이 응답했지만, 자살이나 자해를 생각하고 시도한 비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 충분한 상담과 심리치료 서비스가 시급함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충남 학교 밖 청소년은 전국 청소년과 비교해 삼시 세끼를 항상 먹는 비율이 점심과 저녁의 경우 모두 낮았는데, 중·고등학교 재학생 못지않게 충분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도록 현행 급식 지원을 확대할 필요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영역별로 가장 필요한 도움이 무엇이라는 질문에는 전체 영역을 포함하여 경제지원 내 '용돈 지원'을 가장 많이 응답하였고, 그 외에 꿈드림 이용 청소년은 복지지원 내 '급식 지원'을, 청소년쉼터 이용 청소년은 학습지원 내 '검정고시 준비 지원'을, 대안학교 이용 청소년은 진로/직업 및 취업 지원 내 '직업/적성 등 직업에 관한 상담'을 가장 높은 비율로 응답했다.

주관적 안녕감(전국 재학생과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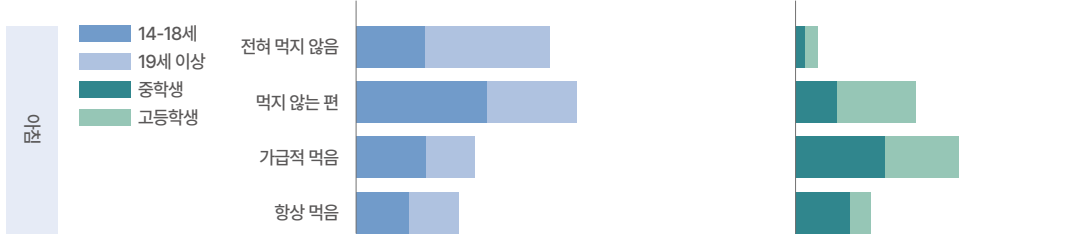


출처: 김기현 외(2021). 2020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여성가족부·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p.49

정신건강



식습관(전국 청소년과 비교)



SPECIAL

충청남도
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출범
--
2023년 여성가족연구본부
하이라이트
--
특집 인터뷰

PART 1

2023 충남 성평등 포럼
--
대만연수
--
호주연수

PART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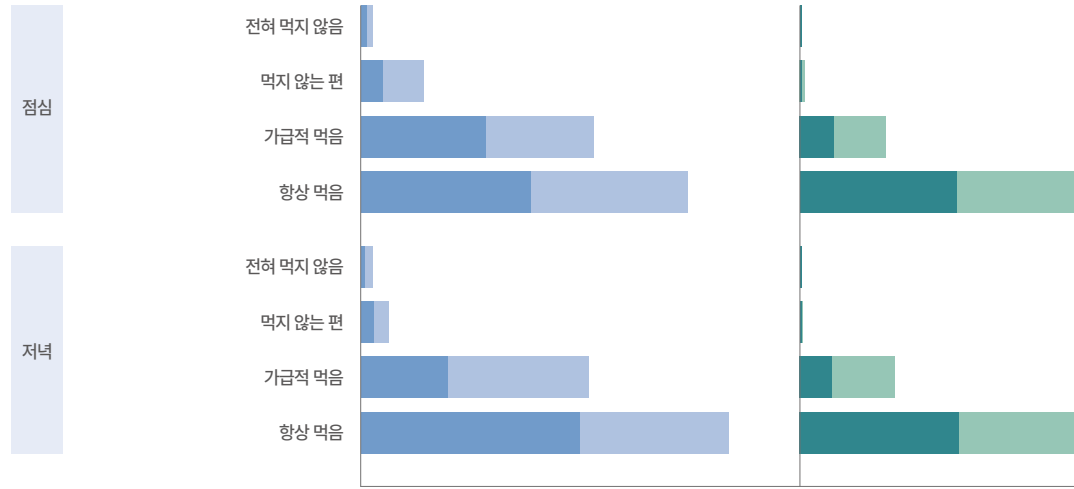
2023 충남여성 풀뿌리 자치학교
--
2023 충남여성소모임 인큐베이팅
Start-up
--
충남 여성 리더십 포럼
--
2023 충남 성주류화 제도
발전 포럼

PART 3

전략연구과제
--
기초연구과제
--
기본연구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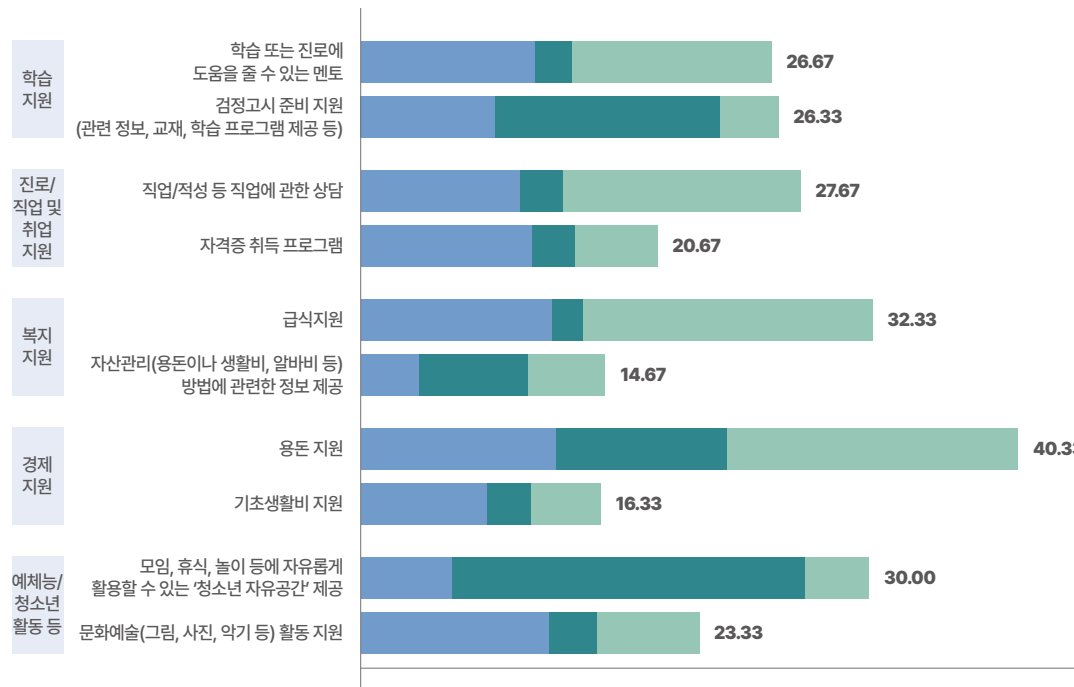


062



출처: 김기현 외(2021). 2020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여성가족부-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p.49

영역별 가장 필요한 도움 TOP2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한 주요 정책 제언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현장 실무자 처우 개선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거버넌스 구성
- 충청남도 교육청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기관 홍보 및 안내 강화
-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비에 근거한 지자체 교육협력사업 확대

충남 여성 경제활동 실태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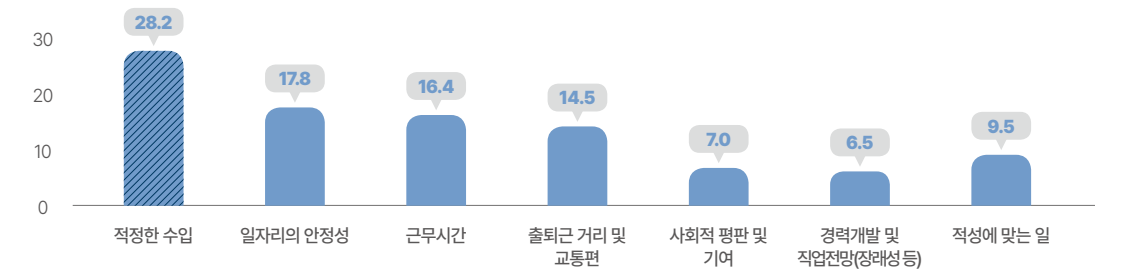
연구자: 안수영 선임연구위원

2022년 상반기 충남 여성 고용률(54.1%)은 남성 고용률(73.7%)보다 19.6%p 낮아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성별 차이를 보이고 일자리의 질을 상징하는 임금 수준, 종사상지위도 상대적으로 열위에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충남 지역 여성의 경제활동 실태를 조사·분석하여 여성 일자리 정책 추진을 위한 지역형 데이터를 구축하고 정책적 시사점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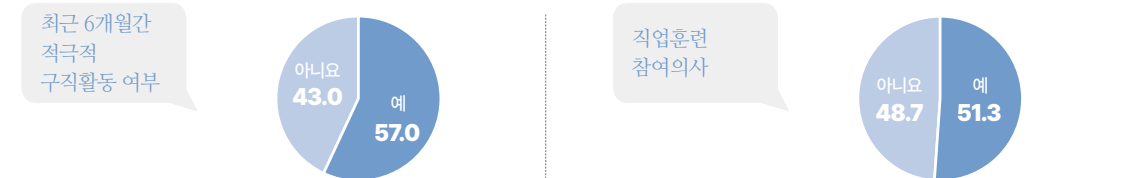
경제활동 의향 약 88%

미취업 조사 응답자의 87.6%가 경제활동(취·창업) 의향이 있었다. 경제활동 조건으로 적절한 수입(28.2%)을 가장 중시하였고 일자리 안정성(17.8%)과 근무시간(16.4%) 조건은 비등하였다. 미취업 조사 응답자의 57.0%는 최근 6개월간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였고 응답자의 과반(51.3%)이 직업훈련 참여 의향이 있었다. 구직활동의 주된 어려움에 관해서는 일자리 지원 서비스 미흡(23.0%), 경력단절에 따른 업무능력 저하와 자신감 부족(21.6%), 지역 안에 괜찮은 일자리 부족(20.6%)의 순으로 응답했다.

경제활동을 할 때 중요하게 여기는 조건 (단위: %)



구직활동 여부 및 직업훈련 참여 의사 (단위: %)



PART 3

063

SPECIAL

충청남도
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출범
--
2023년 여성가족연구본부
하이라이트
--
특집 인터뷰

PART 1

2023 충남 성평등 포럼
--
대만연수
--
호주연수

PART 2

2023 충남여성 풀뿌리 자치학교
--
2023 충남여성소모임 인큐베이팅
Start-up
--
충남 여성 리더십 포럼
--
2023 충남 성주류화 제도
발전 포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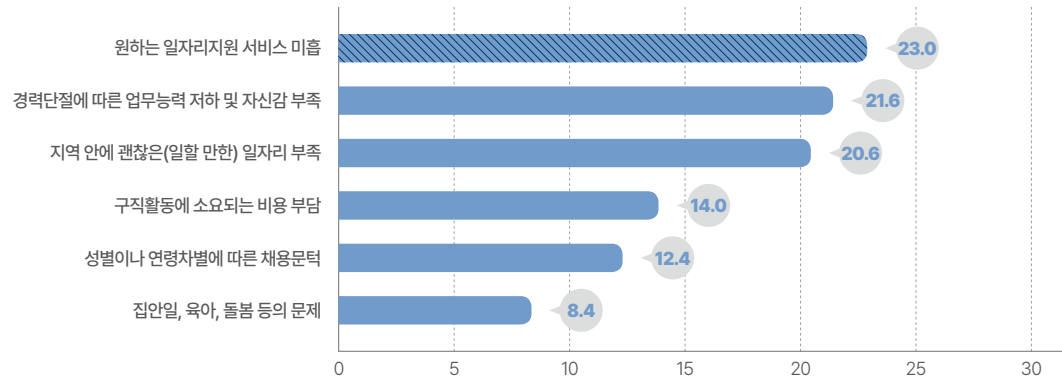
PART 3

전략연구과제
--
기초연구과제
--
기본연구과제



0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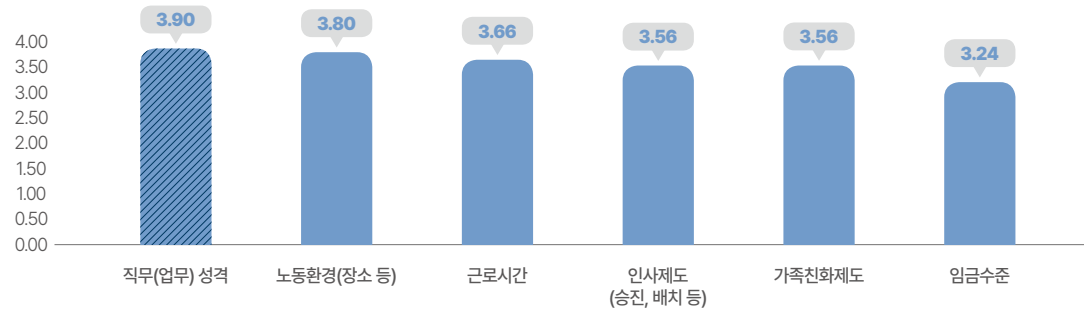
구직활동에서 겪는 주된 어려움 (단위: %)



현재 일자리
만족도 74점

응답자의 현재 일자리 근속기간은 평균 51.6개월(4년 3개월)로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전국 기준)」 2021년 여성 종사자 근속기간(5.4년)보다 다소 짧고 고용 지위는 상용직 66.8%, 전일제 86.0%, 주당 40시간 이상 근로 45.1%, 전일제 임금근로자 주당 평균 근로 시간 43.4시간으로 나타났다. 현재 일자리의 전반적인 만족도는 74.4점(100점 기준)이고 노동환경 및 근로조건 문항별 만족도는 모두 3점대(5점 기준)였다.

현재 일자리 환경 및 조건 만족도 (기준: 5점 /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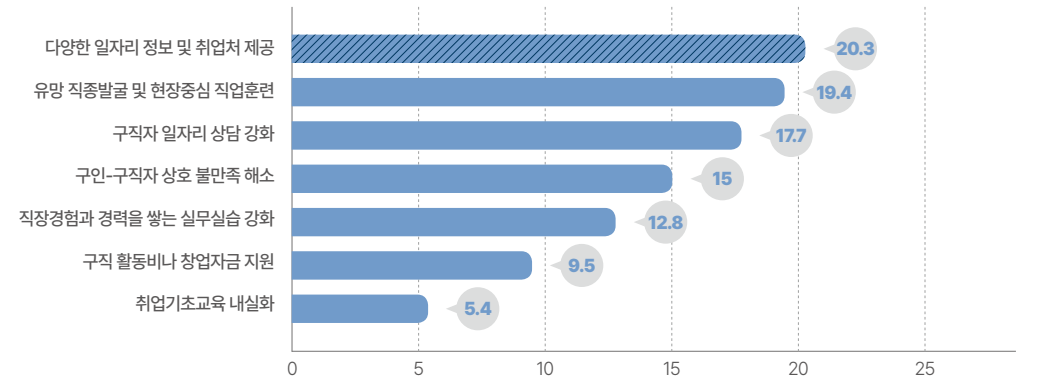
실질적인
일자리 서비스
요구

여성 일자리 서비스 개선에 관해서는 다양한 일자리 정보 및 취업처 제공(20.3%), 유망직종 발굴 및 현장 중심 직업훈련(19.4%)을 요구하고 있었다. 여성 고용유지 방안으로는 장시간 근로 개선과 유연근무제 활성화(21.2%), 가족 관련 휴가·휴직이 권장되는 기업문화(21.1%)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국정과제인 「성별근로공시제도」의 노동시장(고용, 임금 등) 성별격차 완화 기댓값은 평균 7.15점으로 공시제도의 영향력을 어느 정도 긍정하는 반응이었다. 앞으로 코로나19 대유행 같은 노동시장 위기에 대비한 고용 대책은 신산업 일자리로의 이전지 지원 방안(26.6%), 근무환경 변화에 조응하는 변화 대응형 돌봄대책(20.3%) 마련을 꼽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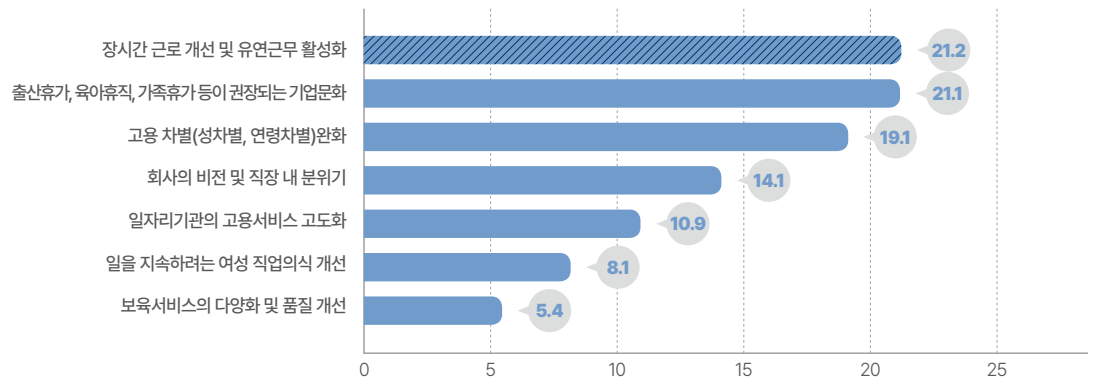
PART 3

065

여성 일자리 서비스 개선 방향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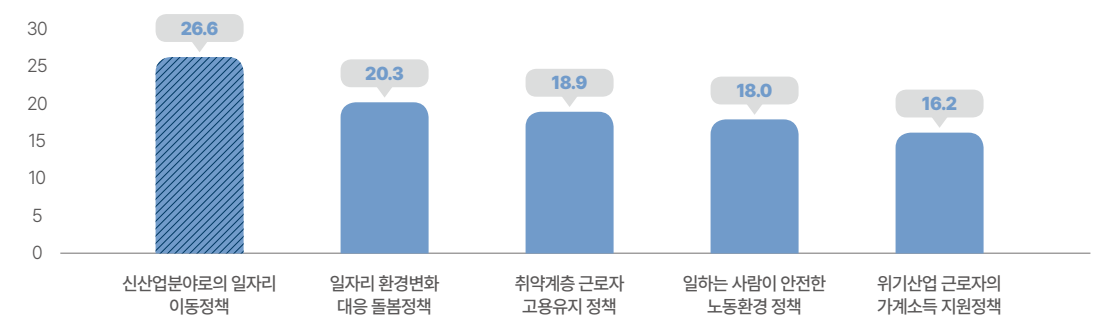
여성 고용유지 정책 방안 (단위: %)



성별근로공시제 실효성

단위: 점	N	평균	표준편차
①없음~⑩많은 영향	1,056	7.15	0.963

코로나19 같은 향후 고용충격 대비 정책 (단위: %)



SPECIAL

충청남도
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출범
--
2023년 여성가족연구본부
하이라이트
--
특집 인터뷰

PART 1

2023 충남 성평등 포럼
--
대만연수
--
호주연수

PART 2

2023 충남여성 풀뿌리 자치학교
--
2023 충남여성소모임 인큐베이팅
Start-up
--
충남 여성 리더십 포럼
--
2023 충남 성주류화 제도
발전 포럼

PART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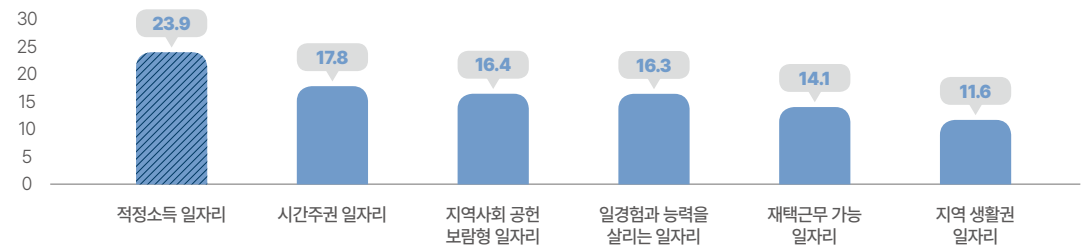
전략연구과제
--
기초연구과제
--
기본연구과제

환경변화에
맞춘 인재로
성장할 기회
제공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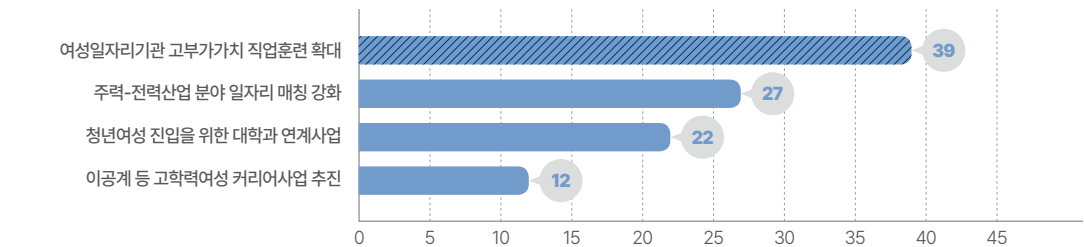
‘충남형 괜찮은 여성 일자리’는 ① 최저임금을 넘어서는 적정수준의 소득이 있는 일자리(23.9%), ② 통상 근무 시간보다 짧은 시간제 일자리나 일정한 시간 주권(근로시간의 유연성)을 갖는 일자리(17.3%)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여성들은 디지털, 에너지 등 경제 전환에 따른 신산업·신기술 등장이 충남의 미래 일자리에 가져올 결과를 비교적 밝게 전망하였으며, 근무 환경의 선택권 강화(4.20점), 일자리 질 개선(4.19점), 신산업·신기술 분야 여성 일자리 확대(4.13점), 고용의 다양성 증가(4.03점)가 필요하고 여성의 지역 주력·전략산업 진입은 여성 일자리 기관의 고부가가치 훈련 과정 확대(39.0%)가 가장 유력한 대책이라고 응답하였다.

충남형 괜찮은 여성 일자리 정의 (기준: 반응퍼센트(다중응답), N=2,112 / 단위: %)



충남 주력·전략산업 여성 일자리 진입방안 (단위: %)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한 주요
정책 제언

2022년 6월 「여성경제활동법」 시행에 맞춰 기존 도와 시군 경력단절 여성 조례를 전면 개정해야 한다. 그리고 노동시장 성별 격차 해소를 위해 정책 전담 부서를 두고, 기업의 일·생활 균형 생태계를 조성, 확산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에 미래 유망 일자리 진출 기회를 확대하고 일자리 기관의 고용 서비스를 고도화하는 한편, 충남형 괜찮은 일자리 확대와 경력 단절 예방 전략을 강화해야 한다.



개정 핵심내용과 특징

- 경력단절사유에 근로조건 추가: 노동시장 구조적 문제
- 정책대상: 경력단절여성 > 전체여성으로 확대
- 재직여성의 경력단절예방 강화: 노동시장 이탈 선제적 대응

충남 폭력 피해자 보호·지원시설 운영 안내서 개발 연구

연구자: 김영주 수석연구위원

우리 사회에서 성별 기반 폭력 피해가 근절되지 않고 폭력의 유형과 피해사태가 점차 다양해지는 등 폭력 피해자 보호·지원시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그러나 폭력 피해자 보호·지원시설은 관련 법령과 여성가족부의 지침에 따라 지원 업무를 수행하면서 현장에서 제공하는 업무상의 각종 절차와 처리 방법들을 세부적으로 포괄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충남 지역의 폭력 피해자 보호·지원시설의 운영 및 관리, 피해지원 서비스와 관련한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 안내와 참고가 될 수 있는 지원 절차와 대응 방법 등에 대한 사항을 발굴·개발하고자 하였다.

분야별 폭력
피해자 보호
시설 운영

충남의 폭력 피해자 보호·지원시설 현황을 살펴보면, 성폭력 피해지원 분야에서는 상담소, 보호시설, 해바라기센터가 설치되어 있으며, 보호시설은 장애인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이 있다. 가정폭력 피해지원 분야에서는 상담소, 보호시설, 여성긴급전화1366센터, 긴급피난처가 있으며, 보호시설은 가정폭력 당사자 생활시설인 일반보호시설과 동반 자녀가 입소 가능한 가족보호시설이 있다. 성매매 피해지원 분야에서는 상담소와 보호시설이 있는데, 보호시설은 일반 보호시설과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그룹홈)이 운영되고 있다. 이주여성 폭력 피해지원 분야에서는 상담소, 보호시설이 있으며, 보호시설은 이주여성 쉼터와 그룹홈이 운영 중이다.

충남 폭력 피해자 보호·지원시설 유형별 시설 현황

구분	유형	시설수	비고
전체	-	49	
가정폭력	긴급전화1366	1	
	상담소	6	
성폭력	보호시설	4	* 일반보호시설 2개소 * 가족보호시설 2개소
	해바라기센터	1	
성·가정폭력통합상담소	상담소	12	* 장애인성폭력상담소 2개소
	보호시설	1	* 장애인보호시설
성매매	상담소	8	
	보호시설	1	* 일반지원시설 1개소 *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1개소
이주여성 폭력피해지원시설	상담소	2	
	보호시설	1	* 보호시설(쉼터) 1개소 * 그룹홈 1개소
긴급피난처	-	10	* 긴급전화1366 긴급피난처 1개소 * 시군 긴급피난처 9개소(도지정)



SPECIAL

충청남도
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출범
--
2023년 여성가족연구본부
하이라이트
--
특집 인터뷰

PART 1

2023 충남 성평등 포럼
--
대안연수
--
호주연수

PART 2

2023 충남여성 풀뿌리 자치학교
--
2023 충남여성소모임 인큐베이팅
Start-up
--
충남 여성 리더십 포럼
--
2023 충남 성주류화 제도
발전 포럼

PART 3

전략연구과제
--
기초연구과제
--
기본연구과제



충남 폭력 피해자 보호·지원시설 유형별 시설 및 종사자 수 현황

전체		광역센터		상담소		보호시설		긴급피난처
시설	종사자	시설	종사자	시설	종사자	시설	종사자	시설
49	221	2	33	28	136	9	52	10

* 광역센터 : 여성긴급전화1366충남센터, 충남해바라기센터

** 자료 : 충청남도의회 업무보고 자료(2023.2)

**간담회를 통한
안내서 구성
의견 청취**

시설 종사자 의견수렴을 위해서 총 4회에 걸쳐 도내 젠더폭력 피해지원 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진행하였다. 상담소 및 보호·지원시설장 대상 간담회 1회를 진행하였으며, 선임급 실무자를 대상으로 가정폭력 상담소, 성매매·성폭력 상담소, 보호시설로 분야를 나누어 3회에 걸쳐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에서는 이 연구의 목적과 수행 절차에 대하여 참석자들과 공유하고, 피해지원 업무 과정에서 세부적인 방침이나 안내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제안받고 논의하였다.

간담회 논의 결과

상담 과정에서 안내가 필요한 사항	① 상담 내용의 외부 공개 범위에 대한 방침 필요
	② 전화상담 시 상담자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등 보호 방안
	③ 전화상담 시 녹취 안내 및 녹취 방법
	④ 중복 상담자, 다른 목적의 상담 의뢰자 대응
	⑤ (피해)상담사실확인서 발급 조건이나 기준 필요
	⑥ 상담기록 등 자료 보관 기한
의료지원 과정에서 안내가 필요한 사항	① 타 상담소와 연계하여 의료비 지원 시 연계 서류, 서류 처리방식 안내
	② 의료비 지급 절차 및 방법
	③ 데이트 폭력 피해 의료지원의 범위
법률지원 과정에서 안내가 필요한 사항	① 고소장, 탄원서 작성 시 시설에서 개입, 지원 가능 여부 및 범위
	② 대한법률구조공단 외 다른 법적 조력을 받을 방법
타 기관 연계 과정에서 안내가 필요한 사항	① 행정복지센터, 경찰, 법원, 학교 등에서 반드시 폭력피해자와 관련하여 공유하고 알아야 할 사항 제시
	② 상담소-보호시설 간 사례관리를 위한 협력, 공유 필요
	③ 경찰, 학교 등 공공기관과 연계 시 자료 송·수신 방법
입소자 관리에서 안내가 필요한 사항	① 퇴소 거부자 등 퇴소 처리 방침
	② 예외적인 상황과 사례에 대해서는 긴급피난처 임시 보호기간의 연장 필요
종사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① 상담소 내부구조 배치, 상담 시 상담원 위치 등 안내 필요
	② 민원인의 과도한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 그 범위에 대한 기준 설정
	③ 종사자 신분 노출의 위험

안내서 구성

안내서는 지원업무 분야와 시설운영 분야 2개 분야로 구성하고, 지원업무 분야는 총 8개 영역과 참고자료, 시설운영 분야는 총 3개 영역과 참고자료로 구성하였다.

지 원 업 무	폭력 피해자 지원체계	성별기반 폭력의 개념과 유형	폭력 피해자 지원체계				
	상담	상담원의 태도와 윤리	상담소 및 보호·지원 시설의 업무	상담과정 (상담소)	상담과정 (보호·지원시설)	피해자 특성별 상담	사례관리
	법적지원	법적지원 절차	수사·재판 단계에서의 지원				
	의료지원	의료지원 체계	기타 의료지원 연계				
	주거지원	보호·지원시설의 주거지원	시설 외 주거지원				
	기타 자립지원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	치료·회복 프로그램				
	디지털성폭력	삭제지원	디지털성범죄				
	피해 삭제지원	추진체계	특화상담소의 삭제지원				
	피해자보호 지원	피해자 정보보호	피해자 보호지원 제도				
	참고자료	관련 법령	관련 서식				
시 설 운 영	재무·회계 관리	예산	결산	회계	물품	후원금	
	시설 안전관리	시설물 안전관리	안전점검	안전관리계획	재난유형별 안전관리		
	종사자 인권 및 안전	안전한 환경구성	종사자 대상 폭력피해 유형 및 대응	예방 및 사후관리	기타 종사자 인권		
	참고자료	관련 법령	관련 서식				

안내서 활용

안내서는 제시한 내용과 정보를 바탕으로 폭력 피해자 보호·지원시설에서 수행하는 지원 업무 과정상의 불확실성이나 혼선을 줄일 수 있는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더불어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 등이 매년 제공하는 사업과 시설 운영과 관리를 위한 지침의 보조 자료로 활용할 수도 있다. 더불어 시설 종사자들이 분야별, 대상별로 분절된 방식에 매몰되지 않고 더욱 통합적인 관점에서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다른 기관·시설과의 네트워크를 확장하면서 연계성을 높이는 데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SPECIAL

충청남도
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출범
--
2023년 여성가족연구본부
하이라이트
--
특집 인터뷰

PART 1

2023 충남 성평등 포럼
--
대만연수
--
호주연수

PART 2

2023 충남여성 풀뿌리 자치학교
--
2023 충남여성소모임 인큐베이팅
Start-up
--
충남 여성 리더십 포럼
--
2023 충남 성주류화 제도
발전 포럼

PART 3

전략연구과제
--
기초연구과제
--
기본연구과제



충남 다문화가족 청년 자녀 사회진입 현실과 지원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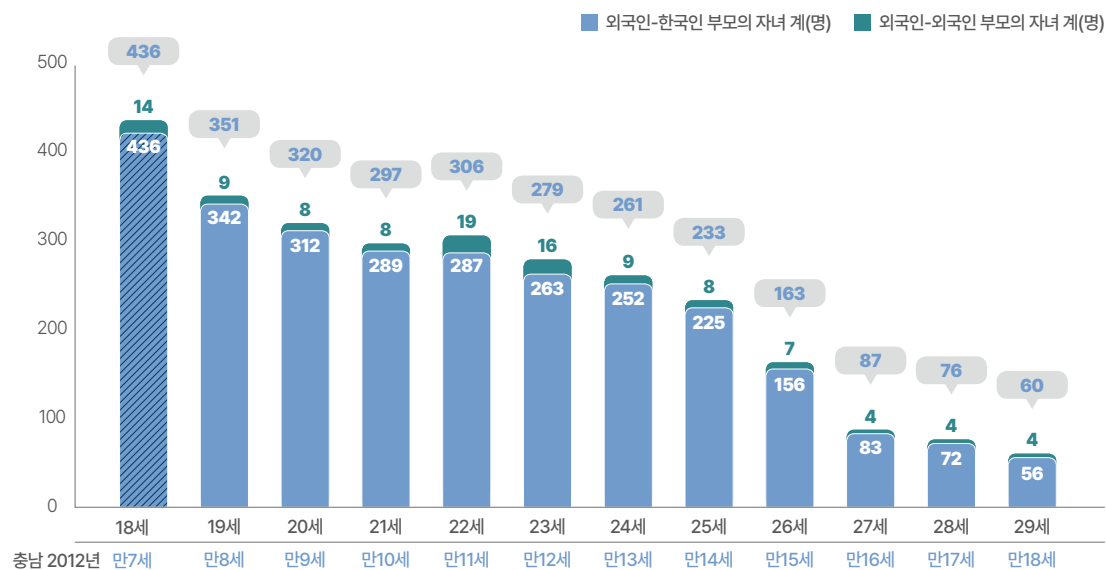
연구자: 우복남 선임연구위원

우리 사회 청년 전반이 노동시장 진입 자체, 사회적 배제, 고립과 우울 등 어려운 현실을 마주하고 있다. 특히 정책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다문화가족 청년의 사회진입에는 많은 장애물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충남 다문화가족 청년 자녀들이 사회진입 시점에서 겪는 현실을 파악하고 이들을 지원하는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충남
다문화가족
청년 자녀
3천 명

현재 행정안전부 '외국인 주민' 현황은 만18세 자녀까지만 제공하므로 이후에 해당하는 후기 청소년/청년 자녀 수를 정확히 알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여기서는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제공 「2012년도 외국인주민 현황(2012. 1. 1. 기준)」 엑셀자료(1세 연령별로 제공)를 토대로 2023년 1월 기준 만 18~29세로 추정되는 충남 국제결혼가정 자녀(출생 한국인 및 중도입국 외국인 자녀) 현황을 파악했다.

2023년 1월 기준 충남 다문화가족 만 18~29세 청년 수 추정(2012년 자료 기반)



자료 : <https://www.mois.go.kr/srch.jsp>, '2012.11. 00:00시 기준 2012년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현황 통계

충남
다문화가족
청년 사회진입

충남 다문화가족 청년 사회진입 실태를 파악하고자 진행한 청년 당사자와 부모 24명, 관계자 11명을 인터뷰하였다.

1) 주체적 진로 결정

다문화가족 청년들은 가정 여건(이주 배경 부모의 정보 부족, 사회/문화 자본 부족 등)을 이해하고 있었다. 때로 외로울 정도로 혼자서 해내는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하였으나 고교 입학, 대학/학과 결정, 직업 선택과 취업 자격증 준비 등 자립 과업을 주도적으로 수행하였다.

2) 성장 지역의 한계 극복

다문화가족 청년들이 청소년기/학령기를 보내는 동안 성장 지역이 소도시/농어촌 경우, 상대적으로 불리한 여건이었지만(희망 교과목 부재, 전문가/전문학원 부재, 전문 진로상담 미비 등), 지역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였다.(검색, 인터넷강의 수강, 타지역 전문학원 수강, 진로 변경 등)

3) 다양한 동기에 의한 진로 선택

부모 생각(부모 '기 살려 주려는' 효심), 사회적 가치(사회 기여), 취미와 적성, 이증언어 강점을 활용한 직업 혹은 이중문화/국제적 감각을 활용한 직업 선택 등 진로 선택 요인은 다양하였다.

4) 예체능 진로

학령기 예체능을 접하고 예체능 분야 직업을 선택한 경우, 본인의 노력뿐 아니라 부모의 경제적 뒷받침이 요구된다. 평범한 가정, 특히 다자녀 가정에서 전문 예체능 진로 선택은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된다.

5)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대학 유예/포기

일부 다문화가족 청년은 대학(고등교육)을 원했지만, 가정의 형편상 고교 졸업 후 취업하여 대학 학비를 저축하고 있었다. 또 학비 부담에 비해 불투명한 대학 교육의 효과(취업연계)로 인해 편입을 준비하거나 중퇴하기도 하였다.

6) 아르바이트로 유지하는 학업/취업 준비

다문화가족 부모 대부분 장학 혜택에 대해 알지 못했으나 자녀 스스로 국가장학금제도를 찾아 학비를 지원받았다. 그러나 주거비(기숙사비/월세 등), 생활비, 취업 준비(학원/자격증 취득)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대부분 아르바이트를 병행해야 했으며, 무리한 아르바이트로 수면시간이 부족하고 피로로 쓰러진 사례도 있었다.

7) 홀로 준비하는 취업

진로 결정과 취업 준비 과정에서 분야 전문가의 상담은 취업에 큰 영향을 준다. 그렇지만 인적자본이 취약한 다문화가족 청년은 홀로 취업을 준비하며 방황하고 막막해하였다. 또 이중 언어문화라는 강점을 활용하고자 해도(국제무역, 글로벌기업 취업 등) 경로를 알지 못하여 답답해 하였다.

8) 취업과 노동

취업한 일터의 노동 여건은 사람마다 달랐다. 중도입국 청년의 경우 직장에 만족하기도 하였으나 차별적 시선, 임금체불 등 부정적 경험도 하였음. 국내 출생 청년은 '직장에' 묶여 있음, '직원을' 돈으로 샀다고 생각, '심한 다그침', '지나치게 짝퍽', '너무 긴 노동 시간' 등 노동의 고단함을 토로하였다.

SPECIAL

충청남도
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출범
--
2023년 여성가족연구본부
하이라이트
--
특집 인터뷰

PART 1

2023 충남 성평등 포럼
--
대만연수
--
호주연수

PART 2

2023 충남여성 풀뿌리 자치학교
--
2023 충남여성소모임 인큐베이팅
Start-up
--
충남 여성 리더십 포럼
--
2023 충남 성주류화 제도
발전 포럼

PART 3

전략연구과제
--
기초연구과제
--
기본연구과제



9) 중소기업 일-학습 병행제

특성화고(특성화반) 졸업 후 취업한 중소기업 근무 여건은 사례별 달랐으나 고교 앞선 직장/일터에 대한 부정적 경험이 드러났다. 특히 일-학습 병행(주중 직장 근무, 주말 대학 공부)제도를 활용하는 경우, 무료 대학 졸업 조건에 힘들어도 이직하지 못하고 열심히 살고 있었지만, 비전이 안 보이는 직장, 직원을 함부로 대하는 직장 분위기로 인해 진로를 고민하기도 하였다.

10) 선명/미묘한 차별

다문화가족 청년들은 어린 시절 경험한 차별과 편견(진한 피부색 놀림, 강요된 나머지 공부, 외국인 구사 고정관념, 수군거림 등)에 대해서는 답답하였지만, 외국인 차별/혐오, 외국인 배제/무시를 인식하고 있었다. 중국 배경 귀화 청년의 경우 '중국' 혐오를 겪었으며, 지역 초중고 졸업 중도입국 외국인 청년은 청년 지원 배제 및 관련 문의 과정에서 겪은 무시와 불친절을 아프게 기억하였다.

11) 특히 취약한 가족과 중도입국 청년

장애 청년을 둔 가정, 국내 출생 한국인 아동 자녀와 외국 출생 외국인 중도입국 청년 자녀를 둔 가정, 이혼/사별 등으로 인해 해체된 가정 등 복잡한 상황에 놓인 가정들이 있었다. 특히 중도입국 청년 가정은 가족관계, 경제적 어려움, 돌봄/경제활동 병행, 체류자격, 가족이산 등 어려움이 많아 특별한 관심이 필요하다.

12) 정책 참여

초기 국제결혼가정 다문화가족 청년은 이제 사회에 진입하기 시작하는 시점으로 아직 지역에서 정책이 참여하는 사례가 적었다. 그렇지만 인터뷰 과정에서 학생회/국제교류/봉사활동 등 사회참여에 관심이 있는 리더형 청년들이 있었으며, 향후 지역 청년정책/다문화가족정책 등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13) 지역 정주

충남 지역 성장 청년 대다수와 마찬가지로 다문화가족 청년 역시 상당수 타지에서 공부하고, 취업(준비)하고 있었다. 소도시 지역은 학교나 직업 선택의 폭이 좁고, 괜찮은 일자리가 적고, 문화/여가/교통 등 정주 여건이 부족하다고 인식하였다. 그러나 좋은 일자리가 생긴다면 원가족 거주 지역 내지 인근 지역 거주도 가능하다고 응답하였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한
주요 정책
제언

1) (문화 조성) 도민의 다문화 수용성 확대

- 차별로 인한 위축과 직장 차별 예방 등 다문화 수용성 증진 사업 활성화

2) (진로 지원) 진로/진학 지원 활성화

- (다국어) 상담 및 정보제공 등 진로/진학 지원 확대
- 분야별 진로 멘토 pool 구성 및 진로상담 연계
- 지역 대학 연계 진로 체험 확대
- 상담 및 정서적 지지체계 강화
- (다국어) 상담 및 정보제공 등 진로/진학 지원 확대
- 분야별 진로 멘토 pool 구성 및 진로상담 연계
- 지역 대학 연계 진로 체험 확대
- 상담 및 정서적 지지체계 강화

3) (학력 및 성장 격차 해소) 대학 학비 지원 및 평생교육 지원

- 저소득 가정 청년의 고등교육 유예/포기 감소를 위해 학비 문제 해결 지원
- 평생교육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고교졸업 이후 성장격차 축소
- 교육부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에 맞추어 다문화가족 청년 연계사업 추진

4) (노동시장 진입) 일자리 정보제공 및 취업 연계

- 지역 일자리 발굴 및 정보제공
- 언어문화 강점 활용 국제교류/국제무역 참여 활성화

5) (노동시장 안착) 노동 인권 보호

- 지역 산업계 노동 존중 문화 확산 및 청년 노동 인권 보호
- 중소기업 근무 외국 국적(외국인) 중도입국 청년 제도적 지원 확대

6) (지역 및 가족의 지지 강화) 지역 및 부모의 지지체계 강화

- 가족센터 청년 1인 가구 지원사업 홍보
- 다문화가족 청년 자녀의 부모 대상 사업 확대(가족지지 강화)

7) (참여) 정책 참여 및 접근성 강화

- 다문화가족지원 협의회, 청년협의회 등의 구성시 다문화가족 청년 참여 기회 제공
- 특히 지역 학교 졸업, 취업한 중도입국 외국인 청년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
- 충남도의 청년정책 홈페이지 '다이나믹 충남 청년' 홍보를 통해 접근성 강화

8) (지역 정주) 지역 정주 여건

- 소도시/농어촌 거주 청(소)년 정주 여건 개선
- 주거 지원 및 청년정착금 지원 제도 등 지역 정착 도모

9) (자료 축적) 다양한 이주배경(다문화가족 포함) 청년 기초자료 축적

- 다문화가족 청(소)년 자녀 관련 연구자료 축적으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 확보
- 특히 사회진입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중도입국 청년 관련 자료 축적

10) 유관 부처/기관 유기적 연계 강화 및 중도입국 청년 지원 전문화

- 유관 부처/부서, 기관 간 지원체계 구축 및 지역자원 연계 확대
- 다문화가족/이주배경 청(소)년 자녀 지원체계 전문화 방안 검토

SPECIAL

충청남도
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출범
--
2023년 여성가족연구본부
하이라이트
--
특집 인터뷰

PART 1

2023 충남 성평등 포럼
--
대만연수
--
호주연수

PART 2

2023 충남여성 풀뿌리 자치학교
--
2023 충남여성소모임 인큐베이팅
Start-up
--
충남 여성 리더십 포럼
--
2023 충남 성주류화 제도
발전 포럼

PART 3

전략연구과제
--
기초연구과제
--
기본연구과제



충남 청년여성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방안

연구자: 태희원 선임연구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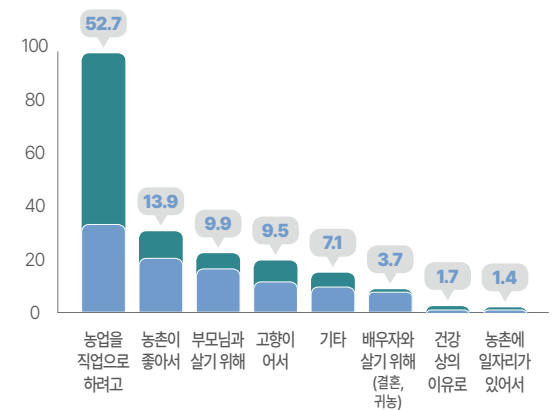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해 청년인구의 농업·농촌 정착·육성이 주요 정책과제로 부각되었다. 농업·농촌의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여성과 남성이 함께 정착하고 농업인으로 성장하는 여건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정책 설계에서 청년농업인의 성별을 고려한 현황 파악을 통해 맞춤형 정책 설계가 필요한 이유이다.

청년 농가인구의 성별 불균형이 심화되는 가운데, 농업을 선택하는 청년여성 증가하는 최근의 현상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충남 청년농업인의 성별에 따른 영농정착 실태와 정책 수요의 차이를 파악하고, 청년여성농업인의 영농정착 상황에 맞는 정책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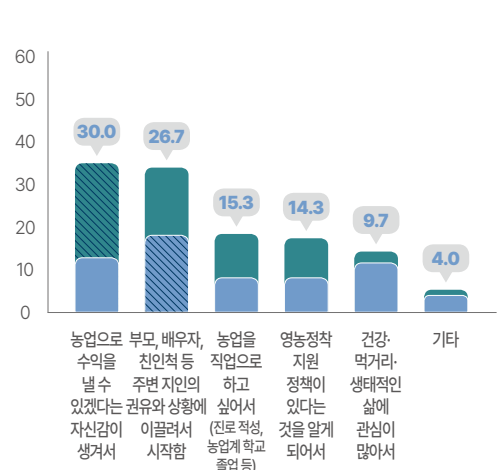
농업에 종사한 계기 성별 차이 존재

농촌에 살게 된 주된 계기는 여성과 남성 모두 '농업을 직업으로 하려고'(여성 32.7%, 남성 63.7%)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여성은 남성과 비교해 '농촌이 좋아서', '부모님과 살기 위해', '고향이어서', '배우자와 살기 위해(결혼, 귀농)' 등의 항목이 비교적 고르게 분포하였다. 농업 시작 계기는 여성은 '부모, 배우자, 친인척 등 주변 지인의 권유와 상황에 이끌려서 시작함'으로 응답(28.7%)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 남성은 '농업으로 수익을 낼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생겨서'(34.5%)를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건강·먹거리·생태적인 삶에 관심이 많아서'(18.5%)라는 응답은 남성보다 여성이 더 많이 응답하였다.

농촌살이 시작 계기



농촌 시작 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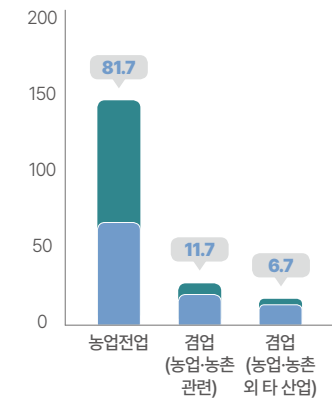
영농유형, 재배작목, 경영형태, 종사기간도 뚜렷한 차이

영농유형은 대부분 '농업전업'(81.7%), 여성은 남성과 비교해 '겸업(농업·농촌 관련)' 비율이 높았다. 여성의 주 재배 작목은 '채소·발작물'(20.4%), '시설채소'(20.4%) 비율이 가장 높고, 남성은 '논벼'(29.2%), '시설채소'(22.9%), '축산'(14.1%) 순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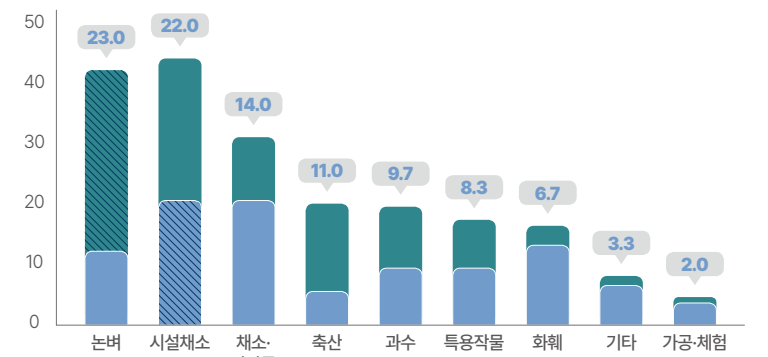
농업 경영형태는 여성과 남성 모두 '단독경영' 비율(42.7%)이 가장 높고 다음이 '부모 농사를 같이 지음'(27.7%)이었다. 남성은 '부모기반 승계 받음' 비율이 여성보다 세 배 정도 높고, 여성은 '배우자와 공동경영'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농업 종사 기간은 여성이 '0~2년'의 시작단계가 43.5%로 남성보다 두 배 이상 높고 이후 비율은 감소하였으며, 남성은 '3~4년 이하'(33.9%), '5~9년 이하'(33.3%) 비율이 높았다.

영농 유형



재배 작목



농업 경영형태

구분	사례수	단독경영	부모 농사를 같이 지음 (가족종사자)	부모기반 승계 받음	배우자와 공동경영	기타	
전체	(300)	42.7	27.7	16	10	3.7	
성별	여성	(108)	42.6	28.7	7.4	13.9	7.4
	남성	(192)	42.7	27.1	20.8	7.8	1.6

농업 종사기간

구분	사례수	0~2년 이하	3~4년 이하	5~9년 이하	10년 이상	
전체	(300)	29.7	33	28	9.3	
성별	여성	(108)	43.5	31.5	18.5	6.5
	남성	(192)	21.9	33.9	33.3	10.9

SPECIAL

충청남도
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출범
--
2023년 여성가족연구본부
하이라이트
--
특집 인터뷰

PART 1

2023 충남 성평등 포럼
--
대만연수
--
호주연수

PART 2

2023 충남여성 풀뿌리 자치학교
--
2023 충남여성소모임 인큐베이팅
Start-up
--
충남 여성 리더십 포럼
--
2023 충남 성주류화 제도
발전 포럼

PART 3

전략연구과제
--
기초연구과제
--
기본연구과제



영농정책의
어려움은
'경제적' 문제

청년농업인의 영농정책 과정의 주된 어려움은 '영농자금·부채부담'(29.3%), '정착금(생활자금)'(24.7%), '농지'(18.0%) 순으로 나타났고 성별 차이가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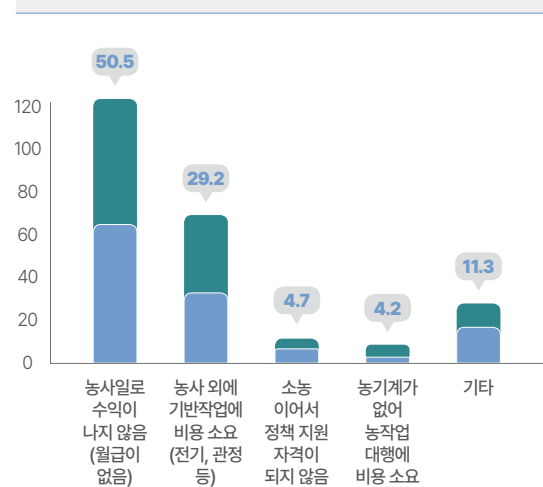
정착금이나 영농자금·부채부담 어려움(n=212)의 이유는 '농사일로 수익이 나지 않음(월급이 없음)'(50.5%), '농사 외에 기반작업에 비용 소요(전기, 관정 등)'(29.2%)을 많이 꼽았다.

농지 관련 어려움의 이유(n=96)는 '농지은행에 신청했지만 농지가 나오지 않음'(29.2%) 응답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농지 소개를 부탁할 사람이 없음'과 '농지와 주거지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음'(각 16.7%) 등의 순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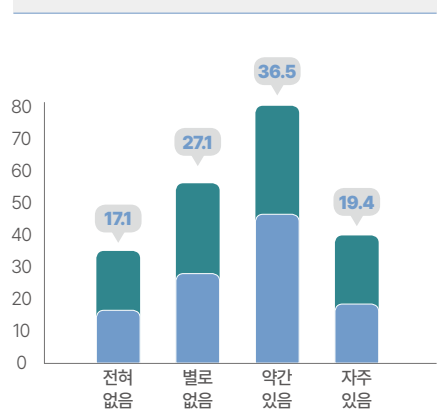
부모와 농사를 같이 짓는 경우(n=170) 영농활동 결정·수행방식·수익배분 등에서 부모와 같거나 고민이 있다는 응답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기도 했다. 부모와 같등이 있다는 응답자(n=95)들은 주된 이유로 '농사에 대한 보상(임금)을 적절하게 주지 않음'(27.4%)을 가장 많이 꼽았고, 이어 '개인 생활을 존중하지 않고 간섭이 심함'(26.3%), '나를 농업인으로 인정하지 않음'(11.6%)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부모 또는 배우자와 합리적인 농업경영을 하도록 '가족경영협약(가족 구성원들이 농업경영의 목표와 계획을 세운 뒤, 근로조건, 성과분배, 경영승계 등 결정사항을 문서로 작성하여 실천하는 것) 교육'이 필요한지 물어본 결과, 공동경영자가 '부모'인 경우 필요하다는 응답은 55.7%, '배우자'인 경우 필요하다는 응답은 55.0%로 같이 하는 가족의 유형과 관계없이 응답자들의 절반 이상 '필요하다'라고 응답하였다.

영농정책의 경제적 어려움



부모와의 갈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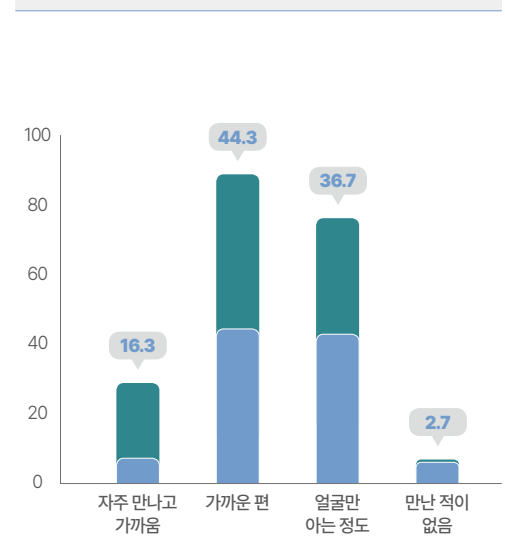
지역사회와
교류에서
명백한 성별
차이

지역 주민·농업인, 지역 청년농업인과의 관계·교류활동 정도는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여성은 관계·교류에 어려움을 겪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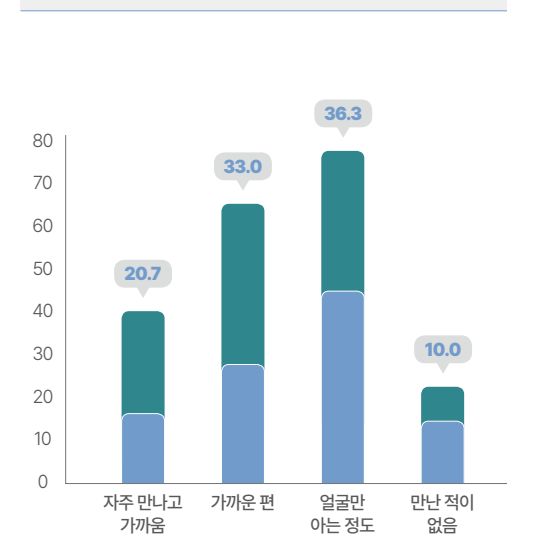
'지역 주민 또는 농업인' 관계에 대해 '자주 만나고 가까움'이라는 응답은 남성(21.4%)이 여성(7.4%)보다 세 배 가까이 많았다. 지역 주민과 모임·교류에서 어려운 점은 '나이 차이가 많아서 편하지 않음'이 37.0%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마을문화가 보수적임'(11.7%), '정보를 알지 못함'(7.7%) 등이 뒤를 이었다.

'지역 청년농업인' 관계에서도 남성 응답자들의 교류가 더 활발한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여성 응답자들의 '얼굴만 아는 정도'가 43.5%였던 것과 달리 남성 응답자들은 '가까운 편'이 36.5%로 가장 많았다. 지역 청년농업인과 모임·교류활동에서 어려운 점은 '거리가 멀고 시간이 없음'(22.7%), '지역에 사는 청년들을 잘 모름'(16.0%), '정보를 알지 못함'(8.7%) 등의 순이었다.

지역 주민·농업인



지역 청년농업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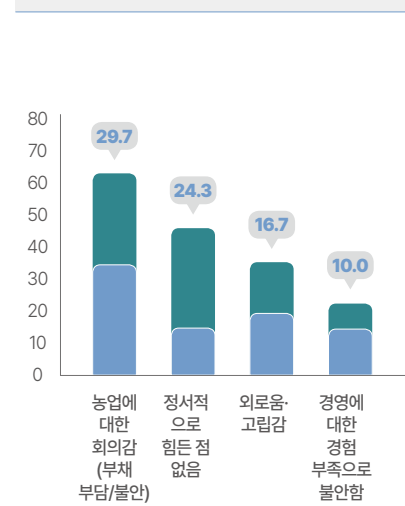


정서적 '힘듦'
역시 성별
차이 뚜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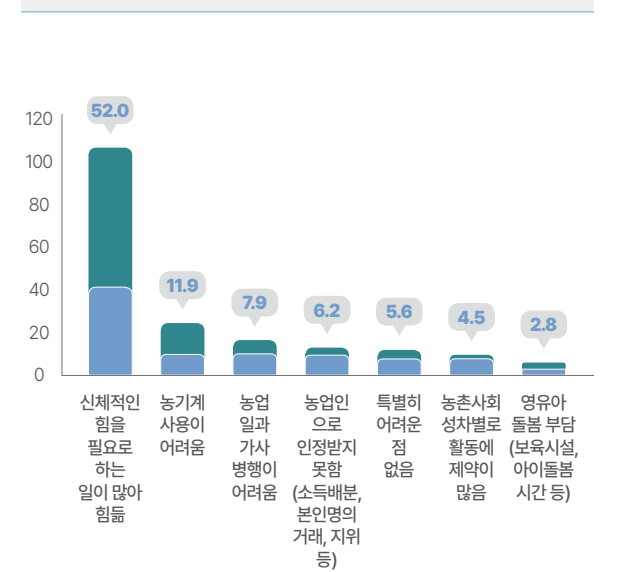
농업에 종사하면서 정서적으로 힘들음을 경험하는 정도는 성별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다. 남성 응답자는 '정서적으로 힘든 점 없음'(30.2%)을 가장 많이 꼽았고, 여성 응답자는 '농업에 대한 회의감(부채 부담/불안)'(33.3%)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특히 '경영에 대한 경험 부족으로 불안함'을 느끼는 비율은 여성이 남성보다 두 배 가까이 높게 나타났다.

청년여성농업인이 남성보다 '신체적인 힘을 필요로 하는 일이 많아 힘들'(52.0%), '농기계 사용이 어려움'(11.9%), '농업 일과 가사 병행이 어려움'(7.9%) 등 사유로 영농활동에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크다고 응답하였다.

정서적 힘들 정도



영농활동의 어려움



SPECIAL

충청남도
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출범
--
2023년 여성가족연구본부
하이라이트
--
특집 인터뷰

PART 1

2023 충남 성평등 포럼
--
대만연수
--
호주연수

PART 2

2023 충남여성 풀뿌리 자치학교
--
2023 충남여성소모임 인큐베이팅
Start-up
--
충남 여성 리더십 포럼
--
2023 충남 성주류화 제도
발전 포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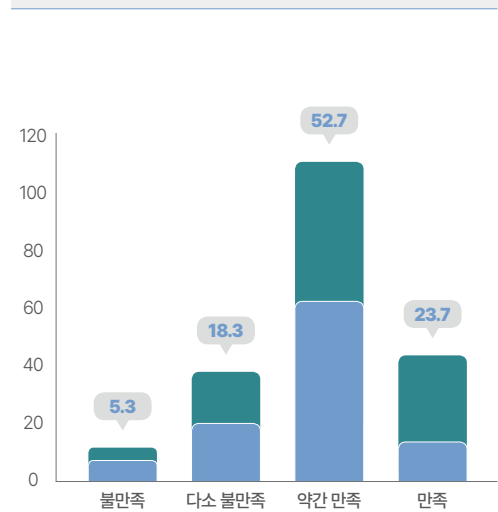
PART 3

전략연구과제
--
기초연구과제
--
기본연구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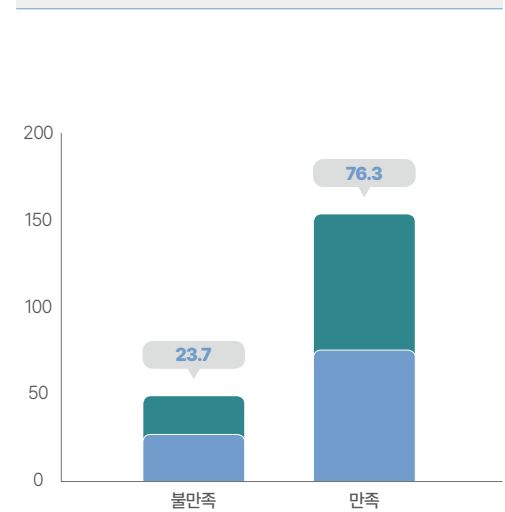
여성의
영농정착
만족도
상대적으로
낮아

영농정착 상황의 만족도는 64.89점이며, 성별로는 남성이 67.53점, 여성이 60.19점으로 여성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연령별로는 30대 청년여성농업인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농사를 포기하고 싶은 순간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가장 컸는데, '안정적인 생활비 벌이가 되지 않을 때'(36.7%), '계속 부채가 쌓여갈 때'(21.7%) 응답 비율이 높았다. 향후 농사를 계속 지을 의향은 응답자 대부분이 '의향이 있다'(93.7%)라고 응답하였다. 농사를 계속 지을 의향이 있는 이유로는 '농업농촌은 비전이 있다고 생각한다'가 41.3%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어렵지만 끈질기게 버텨내면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24.9%) 순이었다.

현재 영농정착 상황에 대한 만족도



종합 결과



농사를 포기하고 싶을 때

구분	사례수	안정적인 생활비 벌이가 되지 않을 때	계속 부채가 쌓여갈 때	포기를 생각한 적 없음	건강에 이상신호가 올 때	농사 일과 가사·양육 병행이 어려울 때	실패 시 재기가 어려울 때	허가 규제에 일이 막힐 때	지역사회에 정착하기 쉽지 않을 때	기타
전체	(300)	36.7	21.7	18.7	5.3	5	4.3	4	2.7	1.7
성별	여성	(108)	35.2	18.5	17.6	7.4	9.3	4.6	1.9	2.8
	남성	(192)	37.5	23.4	19.3	4.2	2.6	4.2	5.2	2.6

농사를 계속 지을 의향

구분	사례수	예	아니오
전체	(300)	93.7	6.3
성별	여성	(108)	94.4
	남성	(192)	9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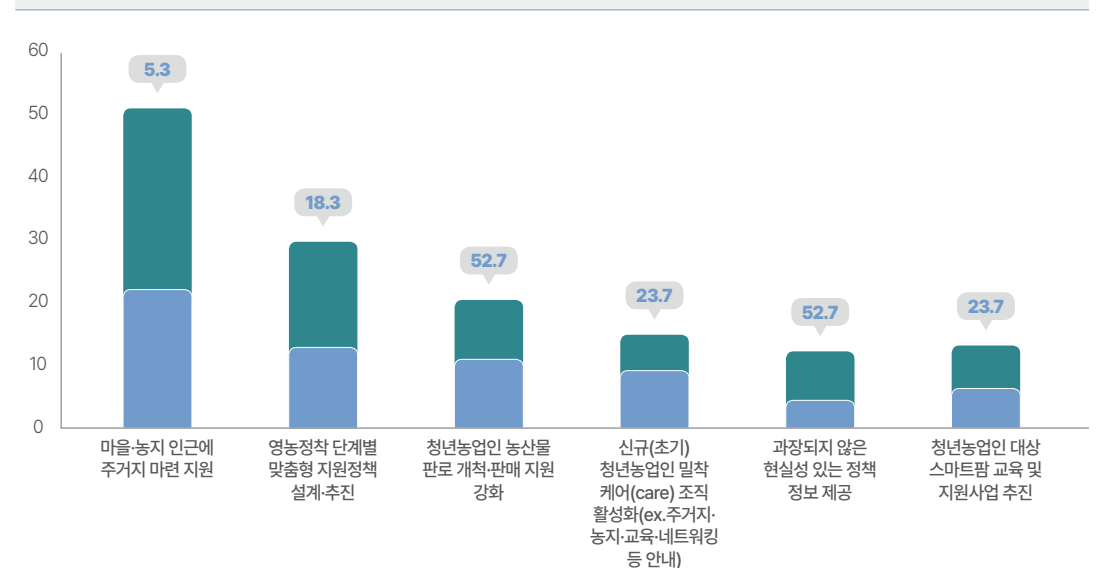
농사를 계속할 이유

구분	사례수	농업농촌은 비전이 있다고 생각한다	어렵지만 끈질기게 버텨내면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빚을 갚아야겠다는 생각이 크다	먹거리를 책임지는 농업인이라는 자부심이 있다	농업은 종합적인 일이고(세무, 디자인, 마케팅) 등 모든 걸 해냈다는 성취감이 크다	노후를 대비할 수 있는 직업이라고 생각한다	가정 환경적 요인으로 농업을 계속할 수밖에 없다	기타
전체	(281)	41.3	24.9	11	6.8	5	4.6	3.9	2.5
성별	여성	(102)	41.2	18.6	12.7	9.8	5.9	4.9	2.9
	남성	(179)	41.3	28.5	10.1	5	4.5	4.5	1.7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정책 수요

청년농업인은 여성, 남성 공통적으로 '마을·농지 인근에 주거지 마련 지원'(26.3%), '영농정착 단계별 맞춤형 지원정책 설계·추진'(15.3%), '청년농업인 농산물 판로 개척·판매 지원 강화'(10.0%) 정책 수요가 높게 나타났다. 특히 청년여성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특화 정책에 대한 수요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노동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농작업 도구(편이장비) 보급'(36.5%)과 '여성친화형·소형 농기계 교육·임대'(24.7%)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농업경영 교육과 관련해서는 '여성농업인을 위한 전문 교육 확대'가 40.0%으로 가장 많이 꼽혔고 '쉽고 현장감 있는 교육 내용'(37.6%), '온라인 교육 실시'(31.8%) 등이 뒤를 이었다. 청년여성농업인이 농촌사회에서 활동력을 넓히기 위해서는 '여성들의 네트워크(인맥) 형성'(32.9%), '농업 정보나 기회 제공 확대'(28.2%), '농업 기술, 마케팅 기술 교육 참여 확대'(23.5%) 등의 순으로 요구도가 높았다. 충청남도 여성농업인 지원 정책 인지도는 50% 미만이었다. 정책의 필요 정도는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을 제외하고 모든 정책의 필요성에 공감도가 높았으며, '출산 및 양육' 관련 정책·제도는 결혼 여부와 관계 없이 모두 필요하다고 꼽았다.

영농정착 지원 정책 수요



SPECIAL

충청남도
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출범
--
2023년 여성가족연구본부
하이라이트
--
특집 인터뷰

PART 1

2023 충남 성평등 포럼
--
대만연수
--
호주연수

PART 2

2023 충남여성 풀뿌리 자치학교
--
2023 충남여성소모임 인큐베이팅
Start-up
--
충남 여성 리더십 포럼
--
2023 충남 성주류화 제도
발전 포럼

PART 3

전략연구과제
--
기초연구과제
--
기본연구과제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한
주요 정책
제언

1) 기본 방향

- 정책 대상으로서의 청년여성농업인 점점 확대
- 청년여성농업인 영농정착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정책 확대
- 청년농업인 일·가정 양립 지원 강화

2) 분야별 정책 과제

분야	정책과제
정책 기반 조성	• 청년여성농업인 조직화 및 네트워크 구축
	• 청년여성농업인을 위한 선배 여성농업인 멘토 지정·운영
	• 정책과 교육·영농정보 제공 활성화
청년여성농업인 영농특성·수요 맞춤형 지원 강화	• 여성농업인 전문역량 강화 교육·사업 콘텐츠 개발·참여 확대
	• 청년여성농업인을 활용한 농촌 사회적경제 서비스 공급 기반 조성
	• 청년여성농업인을 로컬푸드·지역 먹거리 사업의 핵심주체로 육성
	• 농업노동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 지원 강화
청년여성농업인 농업·농촌 정주여건 개선	• 양성평등한 농업·농촌 문화 확산
	• 청년여성농업인 안심주택 지원
	• 농장 인근 친환경 화장실 설치 확대
	• 가족경영협약 교육 확대
청년농업인 일·가정 양립 지원 강화	• 충남형 농촌 아이돌봄공동체 운영 및 돌봄수당 신설
	• 농촌 지역 방문 아이돌보미 교통비 등 추가 지원
	• 농가도우미(출산도우미) 제도 개선
청년농업인 경제적 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 다양화	• 겸업 농업인을 위한 농촌 일자리 발굴·연계
	• 다양한 농업·농촌 인턴십/사회서비스 개발 및 지원 확대

080

충남 자치경찰 인사운영 방안 연구

-일·생활 균형 및 양성평등 근무 환경 조성을 중심으로

연구자: 안세아 연구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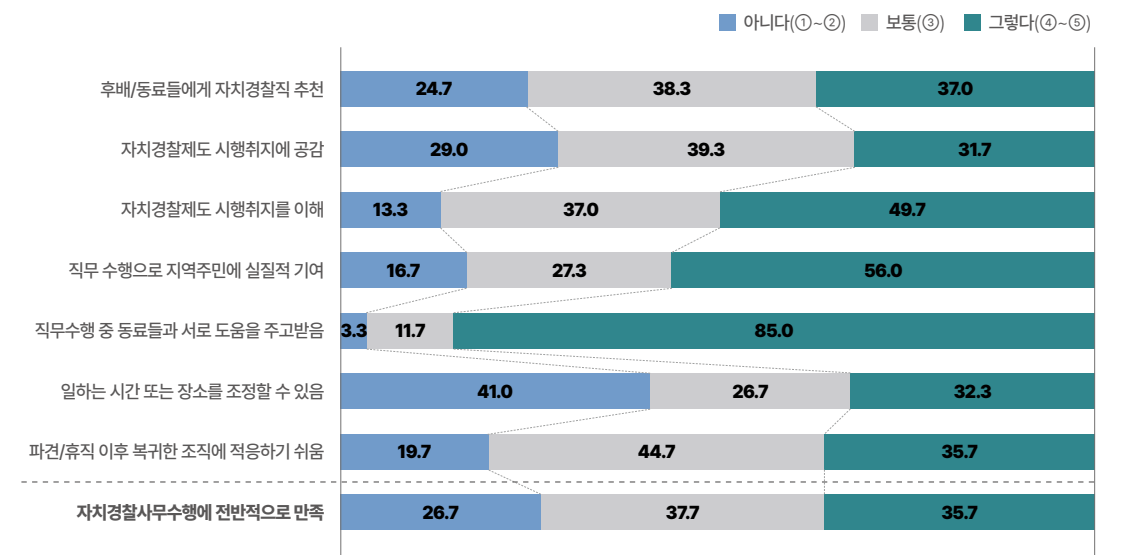
충청남도 내 자치경찰 공무원 대상 직무만족도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합리적인 충남 자치경찰 인사 운영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도내 자치경찰 직무만족도 조사는 지난 2023년 4월부터 6월까지 약 5주간 도내 자치경찰공무원 대상 직무만족도, 양성평등한 근무환경, 일·생활균형 만족도, 복지제도 및 역량강화 만족도 등의 유형별 내용으로 세부항목별 조사 내용을 구성하고 영역별 조사 문항에 대해 1:1대면 조사를 진행했다.

연령 낮을수록
직무 만족도
높아

도내 자치경찰 직무만족도 주요 조사 결과, 연령이 낮을수록 자치경찰사무 수행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 20대(45.8%) > 30대(37%) > 40대(34.4%) > 50대 이상(28.9%) 순으로 확인되었다. 충남 자치경찰제도의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는 ‘자치경찰 인센티브 강화(42.3%)’ > ‘자치경찰의 업무분장 명확화(39.7%)’ 등으로 나타났다. 자치경찰제 시행 후 복지혜택 향상에 동의 정도는 40.7%로 나타났고, 연령대별 긍정 응답률은 40대(45.9%) > 50대 이상(43.4%) > 30대(38%) > 20대(35.4%)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자치경찰사무 담당 직원 복지혜택 만족도는 26.3%로 나타났다.

081

직무만족도 (단위: %)



SPECIAL

충청남도
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출범
--
2023년 여성가족연구본부
하이라이트
--
특집 인터뷰

PART 1

2023 충남 성평등 포럼
--
대만연수
--
호주연수

PART 2

2023 충남여성 풀뿌리 자치학교
--
2023 충남여성소모임 인큐베이팅
Start-up
--
충남 여성 리더십 포럼
--
2023 충남 성주류화 제도
발전 포럼

PART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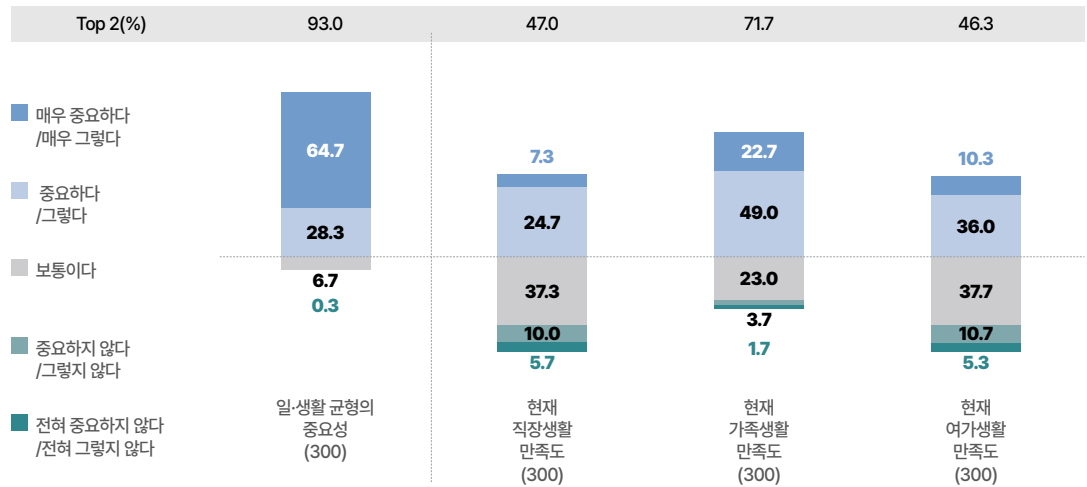
전략연구과제
--
기초연구과제
--
기본연구과제



**일과 생활의
균형 중요하게
생각**

응답자의 대부분이 일과 생활 간 균형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현재 직장, 가족, 여가 생활 중 가족생활의 만족도가 71.7%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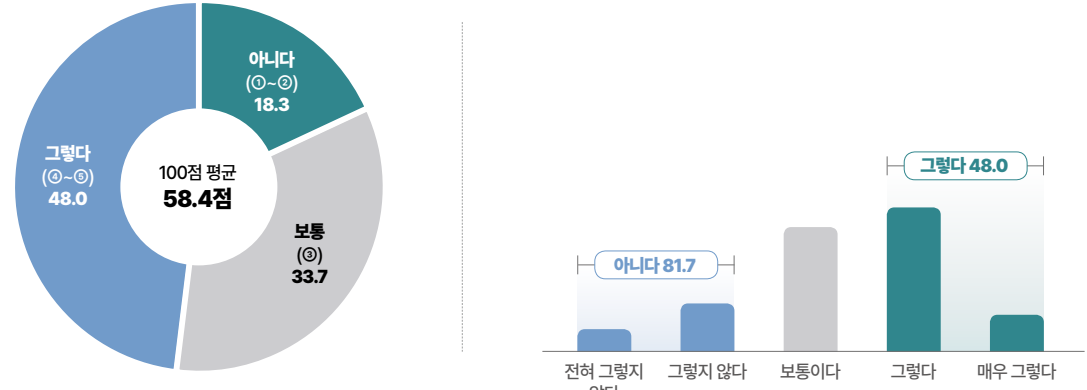
일·생활 균형의 중요성 및 만족도 (단위: %)



**응답자 절반,
"양성평등
이루어졌다"**

전반적 양성평등 수준에 대해 동의하는 응답은 48.0%로 나타났고, 여성 대비 남성, 50대 이상 응답자의 경우 소속 직장이 전반적으로 '양성이 평등하다'라고 인식한다고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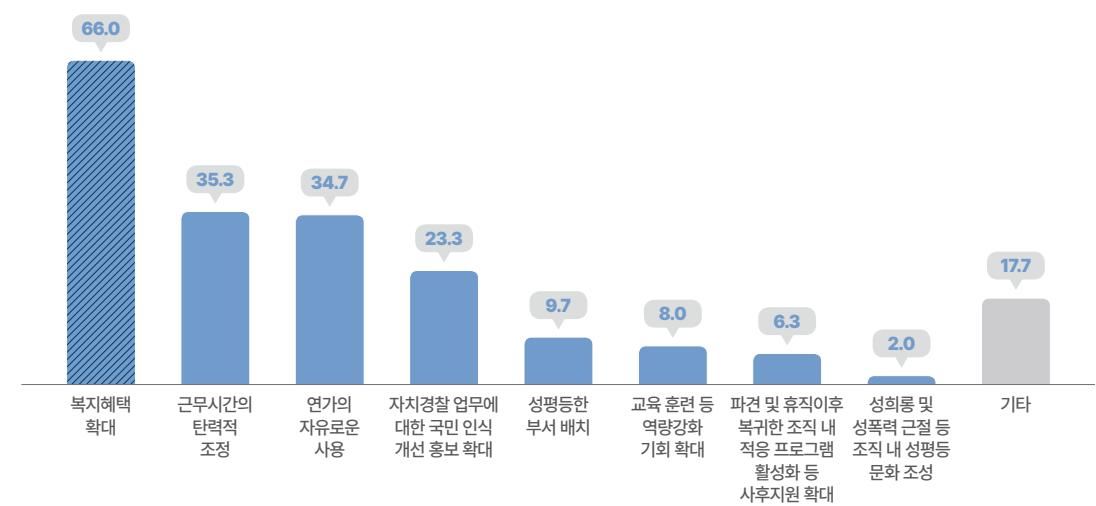
전반적 양성평등 수준



**가장 원하는
것은 '복지
확대'**

절반 이상의 응답자가 효과적인 자치경찰 사무 수행을 위한 개선 필요 사항으로 '복지 혜택 확대'(66.0%)를 꼽았으며, 다음으로 '근무시간의 탄력적 조정'(35.3%), '연가의 자유로운 사용'(34.7%), '자치경찰 업무에 대한 국민 인식 개선 홍보 확대'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효과적인 자치경찰사무 수행 위한 개선 필요 사항 (단위: %)



**복지프로그램
실제 참여
저조**

충남자치경찰위원회 주관 복지프로그램 운영 인지 여부에 있어서는 74%가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전체 응답자의 74%가 위원회가 복지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을 알고 있으나, 실제 참여한 경험자는 19.4%로 나타났다. 참여한 프로그램으로는 찾아가는 힐링캠프(44.2%) > 숲 힐링캠프(34.9%) > 마음치유 힐링캠프(20.9%) 순이며, 미참여 사유로는 업무공백 부담(37.4%) > 피로감(30.7%) > 프로그램을 신청한다고 말하기 어려운 조직 분위기(24.6%) 등으로 나타났다.

근무 환경과 관련해서는 조직 내 유연 근무제도는 절반의 응답자가 '시차출퇴근제(50.5%)'와 '시간선택제(46.3%)'를 활용할 수 있다고 답하였고, 양성평등 및 일·생활 균형을 위해 우선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 남성은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 및 유연근로제 확산(38.7%)'을, 여성은 '여성경찰에 대한 사회적 편견 해소 및 성평등한 부서 배치(35.4%)'라고 응답했다.

사무공간 내 성별 차이에 따른 불편으로는 시설 전반의 노후화 및 '휴식·환복·숙직 시 성별 분리 공간의 부족' 문제가 대부분이었으며, 육아휴직 사용률은 여성(91.7%)보다 남성(37%)이 낮은 실정으로, 미사용 사유로는 '인력 공백 부담'과 '조직 내 인식·분위기'로 나타났다.

SPECIAL

충청남도 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출범 -- 2023년 여성가족연구본부 하이라이트 -- 특집 인터뷰

PART 1

2023 충남 성평등 포럼 -- 대안연수 -- 호주연수

PART 2

2023 충남여성 풀뿌리 자치학교 -- 2023 충남여성소모임 인큐베이팅 Start-up -- 충남 여성 리더십 포럼 -- 2023 충남 성주류화 제도 발전 포럼

PART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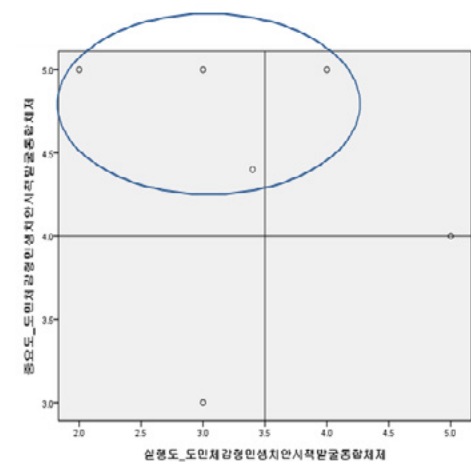
전략연구과제 -- 기초연구과제 -- 기본연구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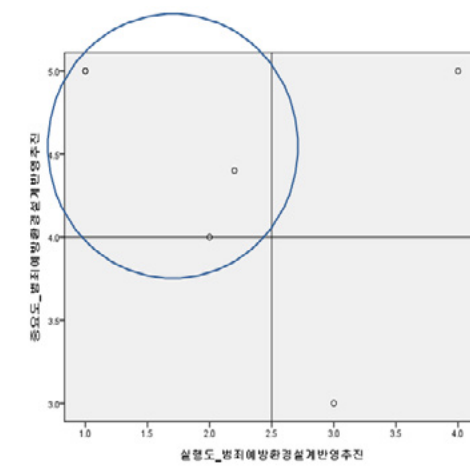
전문가 및 실무자 델파이조사 IPA 분석 결과

자치경찰 이원화에 대한 선제적인 정책시사점을 도출하고자 관련 전문가와 실무자를 대상으로 델파이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IPA 분석을 통하여 충남형 자치경찰제에 시사하는 바를 모색하였다. 정책개선 필요성이 높은 '집중' 영역에 해당하는 세부 영역은 '도민 체감하는 지역별 맞춤형 치안 서비스를 수요자 중심으로 통합한 치안시책을 지휘·감독하는 체제로 전환(집중)', '전문가 정책자문을 거쳐 수립된 도민치안 요구 시책화(집중·유지)', '기관 간 연계 협업체계 강화로 민생 치안시책 실행성 확보(집중·유지)', '범죄예방환경설계 반영 추진(집중)', '시·군 CCTV 설치 및 운영 관리 체계 전수 조사, 실태 분석(집중·유지)', '주취응급의료센터 확대 및 역할 강화(집중·유지)', '아동학대 사전예방 및 아동범죄 엄정 대응(집중·유지)', '어린이·노인 교통사고 예방 홍보동영상 제작 및 합동캠페인 실시(집중·유지)', '자치경찰제 안착을 뒷받침하는 감사활동 및 청렴·인권 조직문화 조성(집중·유지)'으로 확인되었다.

도민 체감형 민생치안 시책 발굴 중요도-실행도



범죄예방환경설계 반영 추진 중요도-실행도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한 주요 정책 제언

- 복지혜택 확대와 점차 감소하는 지역경찰 인력 확충 필요
• 일선 관서와 치안센터를 중심으로 범죄예방 또는 피해자지원 등에 전담할 수 있는 전문적인 자치경찰관 인력 구성·운영
• 조직 운영 및 임용권에 있어 제한적 측면에 대한 개선 필요
• 자치경찰제에 대한 인식 및 수용성 제고 필요
• 현행 지구대와 파출소에 근무하는 지역경찰관에게 국가와 자치 사무를 구분하여 업무 혼란 해소
• 사전예방적인 사건처리 체계 활성화
• 지역사회 시민참여단과의 24시간 원스톱센터를 구축하여 초동 대응의 신속성과 효율성 확보
• 시도 협력 형태 운영 체계를 통해 지역 특성 맞춤형 치안활동 및 균질한 지역 치안 서비스 제공

충청남도 여성친화도시 사업 이행 현황 분석 및 활성화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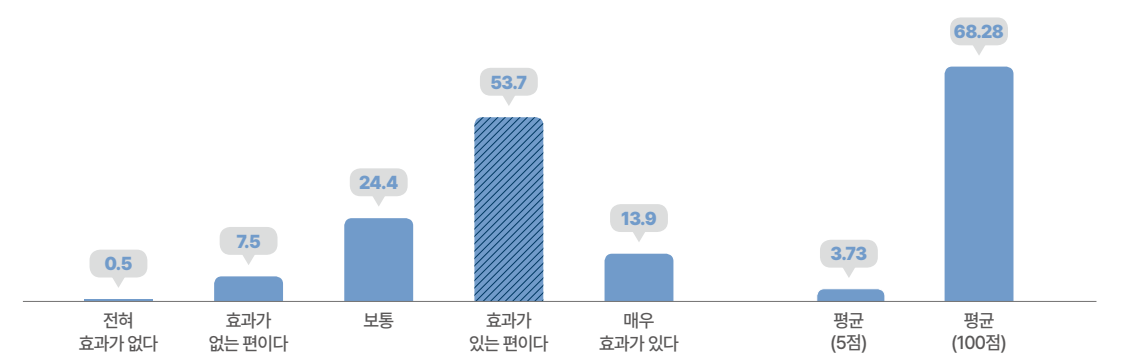
연구자: 이경하 연구위원

이 연구는 충청남도 여성친화도시 사업 추진 지역의 전반적인 이행 현황 및 성과와 한계를 파악함으로써 여성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한 충남지역의 통합적인 자료 구축과 향후 지속가능성 담보 및 활성화를 위한 광역과 기초단체의 정책과제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 목적에 따라 여성친화도시 조성 여건 및 이행 실태 전반에 대한 분석과 여성친화도시 조성 관계자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함. 설문조사는 여성친화도시 지정 시군의 지정 후 변화와 추진과정, 사업추진의 애로점, 성과 및 정책요구를 파악하여 여성친화도시 조성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진행하였다.

여성친화도시 사업 추진 "효과 있다"

여성친화도시 사업 추진으로 인한 지역정책과 환경변화의 효과성에 대해, '효과가 있다'는 응답이 67.7%로 나타나, '효과가 없다'는 응답보다 매우 높게 나타났다. 효과가 있다고 응답한 대상에게 여성친화도시 사업 효과가 큰 영역을 물어본 결과, '성평등 정책 추진 기반 구축'이 30.3%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여성의 경제·사회참여 확대'(23.8%), '지역사회 안전 증진'(18.4%),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 역량 강화'(15.1%), '가족친화(돌봄) 환경 조성(12.4%) 등의 순이었다. 시 단위에서는 여성의 경제·사회참여 확대 영역이 효과가 가장 높으며 성평등 정책 추진기반, 지역사회 안전 증진,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역량강화, 가족친화 환경조성의 순으로 나타난 반면, 군 단위에서는 성평등정책 추진기반 구축 영역의 효과가 가장 높으며,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역량강화, 가족친화 환경조성, 여성의 경제·사회참여 확대와 지역사회 안전 증진의 순으로 나타나 차이가 있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 추진의 효과성 (단위: 명, %, 점)



SPECIAL

충청남도
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출범
--
2023년 여성가족연구본부
하이라이트
--
특집 인터뷰

PART 1

2023 충남 성평등 포럼
--
대만연수
--
호주연수

PART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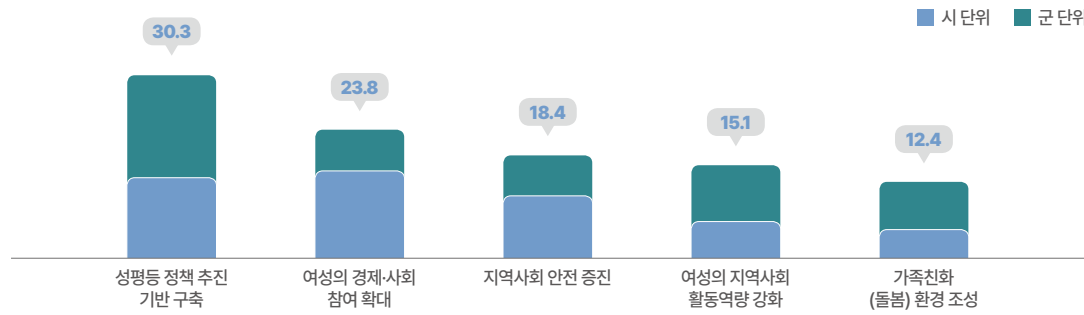
2023 충남여성 풀뿌리 자치학교
--
2023 충남여성소모임 인큐베이팅
Start-up
--
충남 여성 리더십 포럼
--
2023 충남 성주류화 제도
발전 포럼

PART 3

전략연구과제
--
기초연구과제
--
기본연구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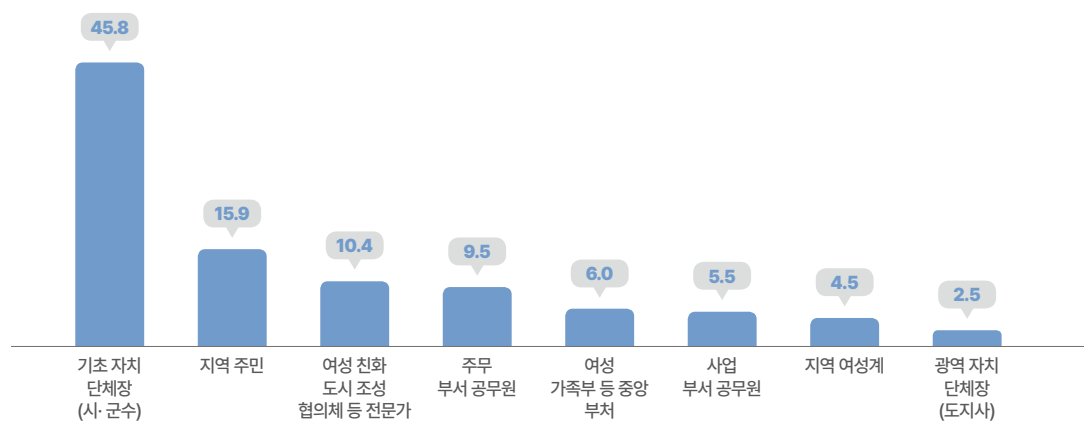
여성친화도시 사업 효과가 큰 영역(1순위) (단위: 명, %)



여성친화도시 사업의 중심점은 기초자치단체장

여성친화도시 사업을 추진하는 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 또는 기관(1순위 기준)에 대해서는 '기초자치단체장(시·군수)'(45.8%)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지역주민'(15.9%), '여성친화도시조성협의회 등 전문가'(10.4%), '주무부서 공무원'(9.5%), '여성가족부 등 중앙부처'(6.0%), '사업부서 공무원'(5.5%), '지역 여성계'(4.5%), '광역자치단체장(도지사)'(2.5%) 등을 꼽았다.

여성친화도시 사업 추진의 영향력(1순위)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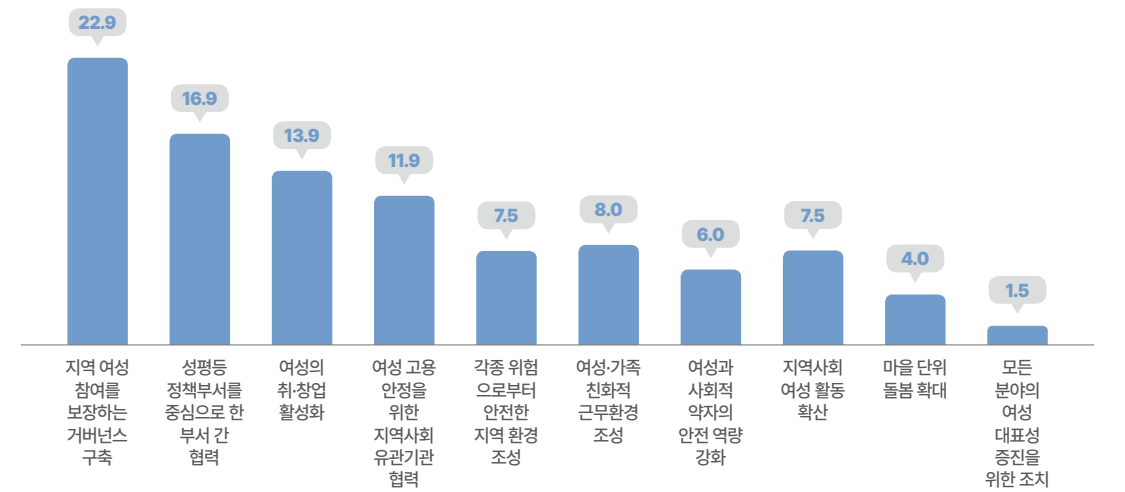


여성친화도시의 전제조건은 여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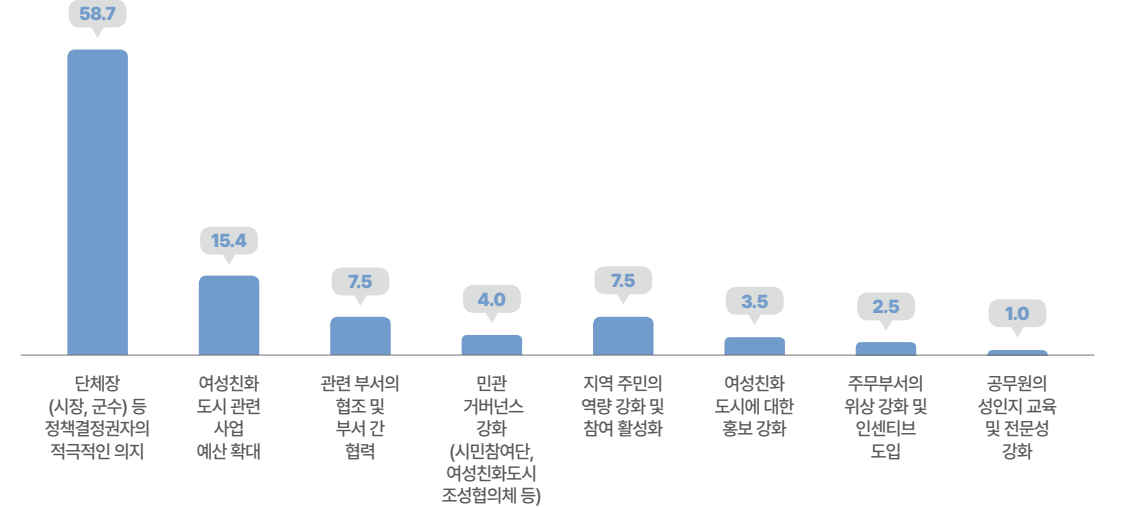
여성친화도시 조성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사업(1순위 기준)에 대해서는 '지역 여성 참여를 보장하는 거버넌스 구축'이 22.9%로 가장 높았고, 이어 '성평등정책부서를 중심으로 한 부서 간 협력'(16.9%), '여성의 취·창업 활성화'(13.9%), '여성 고용 안정을 위한 지역사회 유관기관 협력'(11.9%), '여성·가족 친화적 근무환경 조성'(8.0%), '각종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지역 환경 조성'과 '지역사회 여성 활동 확산'(각 7.5%), '여성과 사회적 약자의 안전 역량 강화'(6.0%), '마을 단위 돌봄 확대'(4.0%), '모든 분야의 여성 대표성 증진을 위한 조치'(1.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여성친화도시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사항(1순위 기준)으로는 단체장(시장, 군수) 등 정책결정권자의 적극적인 의지가 58.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여성친화도시 관련 사업 예산 확대'(15.4%), '관련 부서의 협조 및 부서 간 협력' 및 '지역 주민의 역량 강화 및 참여 활성화'(각 7.5%), '민관 거버넌스 강화(시민참여단, 여성친화도시 조성협의회체 등)'(4.0%),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홍보 강화'(3.5%), '주무부서의 위상 강화 및 인센티브 도입'(2.5%), '공무원의 성인지 교육 및 전문성 강화'(1.0%) 등으로 응답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사업(1순위) (단위: 명, %)



여성친화도시 사업 효과적 추진 방안(1순위) (단위: 명, %)



SPECIAL

충청남도
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출범
--
2023년 여성가족연구본부
하이라이트
--
특집 인터뷰

PART 1

2023 충남 성평등 포럼
--
대만연수
--
호주연수

PART 2

2023 충남여성 풀뿌리 자치학교
--
2023 충남여성소모임 인큐베이팅
Start-up
--
충남 여성 리더십 포럼
--
2023 충남 성주류화 제도
발전 포럼

PART 3

전략연구과제
--
기초연구과제
--
기본연구과제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공무원들의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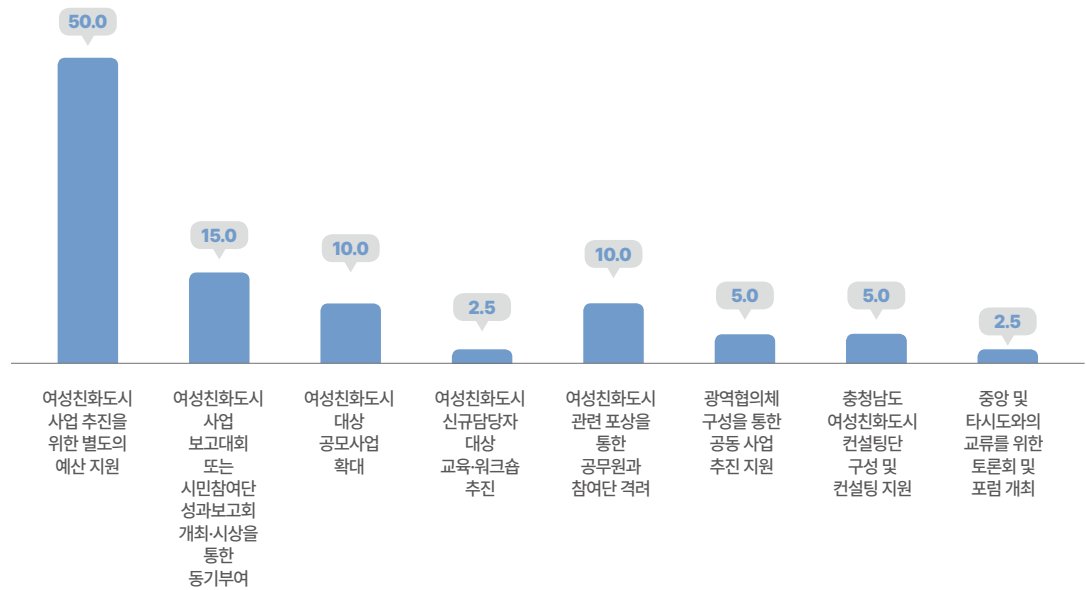
충남도 단위에서 가장 필요한 지원(1순위 기준)에 대해 응답자 절반은 '여성친화도시 사업 추진을 위한 별도의 예산 지원'(50.0%)을 응답했으며, 이어 '여성친화도시 사업 보고대회 또는 시민참여단 성과보고회 개최·시상을 통한 동기 부여'(15.0%), '여성친화도시 대상 공모사업 확대' 및 '여성친화도시 관련 포상을 통한 공무원과 참여단 격려'(각 10.0%), '광역협의체 구성을 통한 공동 사업 추진 지원' 및 '충청남도 여성친화도시 컨설팅단 구성 및 컨설팅 지원'(각 5.0%), '여성친화도시 신규담당자 대상 교육·워크숍 추진' 및 '중앙 및 타 시도와의 교류를 위한 토론회 및 포럼 개최'(각 2.5%) 등의 순이었다.

여성친화도시 사업 추진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점으로는 '여성친화도시 사업에 대한 이해 부족'(25.0%)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어 '행정 내 공감대 형성'(20.0%), '운영을 위한 부서 간 협업' 및 '지역 맞춤형 대표사업 발굴'(17.5%), '시(군)민참여단 운영'(10.0%), '협의체 구성 및 운영'(5.0%), '타 부서 사업의 성인지적 전환' 및 '기타'(각 2.5%)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무부서 공무원의 경우는 '행정 내 공감대 형성과 부서 간 협업'에 대한 애로가 컸던 반면, 사업 추진부서 공무원은 '대표사업 발굴과 여성친화도시 사업에 대한 이해 부족'이 높아 집단 간 차이를 보였다.

부서 협업 경험이 있는 응답자 대상으로 협업 시 가장 어려운 점에 대한 응답으로는 '여성친화도시 사업 추진 부서의 낮은 위상'(35.7%)을 꼽았으며, 다음으로 '역할 및 자원 분담, 책임소재 설정의 어려움'(28.6%), '공동목표 설정의 어려움' 및 '성과측정 부정합성 등 성과평가 문제(각 14.3%), '정보공유 및 의사소통 부족'(7.1%) 등의 순이었다.

광역지자체 단위에서 가장 지원이 필요한 것(1순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여성친화도시 사업 추진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점 (단위: 명, %)								
		여성친화도시 사업에 대한 이해 부족	행정 내 공감대 형성	운영을 위한 부서 간 협업	지역 맞춤형 대표사업 발굴	시(군)민 참여단 운영	협의체 구성 및 운영	타 부서 사업의 성인지적 전환	기타	
전체 (SQ1 ㉠ 응답자)	40	25	20	17.5	17.5	10	5	2.5	2.5	
소속	주무부서 공무원	28	21.4	25	25	3.6	10.7	7.1	3.6	3.6
	사업 추진 부서 공무원	12	33.3	8.3	0	50	8.3	0	0	0

구분	사례수	여성친화도시 사업 협업 시, 가장 어려운 점 (단위: 명, %)				
		여성친화도시 사업 추진 부서의 낮은 위상	역할 및 자원 분담, 책임소재 설정의 어려움	공동목표 설정의 어려움	성과측정 부정합성 등 성과평가 문제	정보공유 및 의사소통 부족
전체(문21 ㉠ 응답자)	28	35.7	28.6	14.3	14.3	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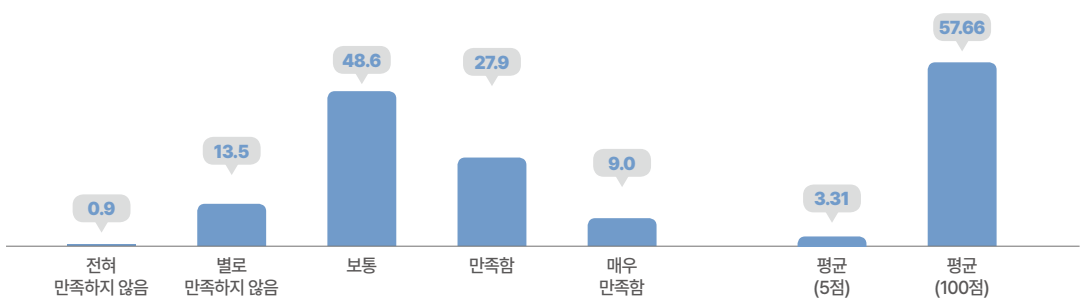
시민참여단 활동 만족도 '보통'

시(군)민참여단 활동의 만족 정도에 대해 '보통'(48.6%)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100점 평균으로 환산 결과, 57.7점으로 보통보다 약간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만족한다'는 응답은 36.9%로, '불만족한다' 응답에 비해서는 높게 나타났다.

시(군)민참여단 활동에 '불만족'한다는 응답자(n=40)들은 그 이유로 '담당부서 및 사업부서 공무원의 사업에 대한 열의가 약해서'(43.8%)가 가장 높았고, '활동을 통한 결과에 대한 피드백이나 변화가 미약해서'(18.8%), '지역주민들이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이해가 없어서' 및 '활동에 대한 보수 지원이 없어서', '활동에 대한 보람이 느껴지지 않아서'(각 12.5%) 등을 꼽았다.

여성친화도시 사업추진에서 시(군)민참여단 활동을 활성화하기 필요한 것(1순위 기준)으로는 '참여단 대상 성인지관점 및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이해 교육'(27.0%)에 대한 수요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지역사회 공간 및 정책 모니터링에 대한 매뉴얼 제공'(24.3%), '참여단 온라인 모임 등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13.5%), '각종 의사결정 과정의 참여 기반 확대'(11.7%), '참여단 활동에 대한 경비 지원'(10.8%), '참여단 오프라인 활동 거점 공간 마련' 및 '담당 공무원과의 정기적인 교류 확대'(각 6.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시(군)민참여단 활동 만족도 (단위: 명, %, 점)



SPECIAL

충청남도
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출범
--
2023년 여성가족연구본부
하이라이트
--
특집 인터뷰

PART 1

2023 충남 성평등 포럼
--
대만연수
--
호주연수

PART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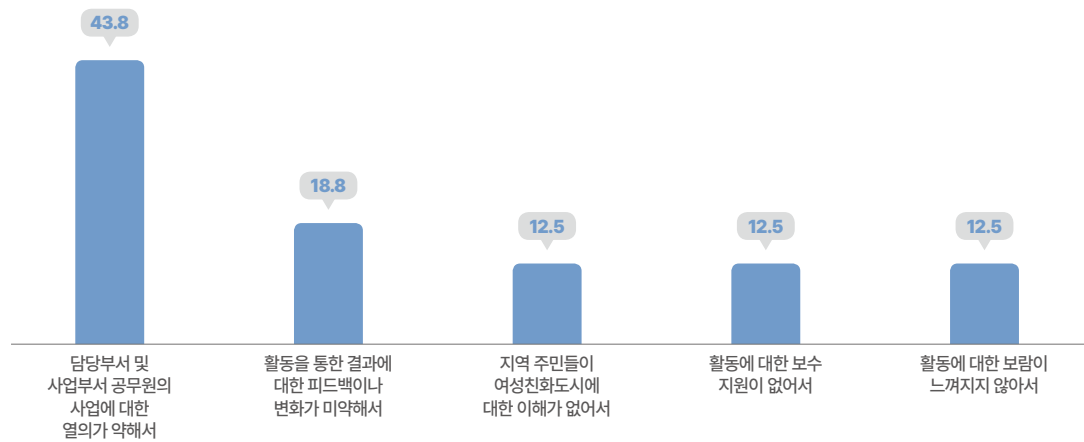
2023 충남여성 풀뿌리 자치학교
--
2023 충남여성소모임 인큐베이팅
Start-up
--
충남 여성 리더십 포럼
--
2023 충남 성주류화 제도
발전 포럼

PART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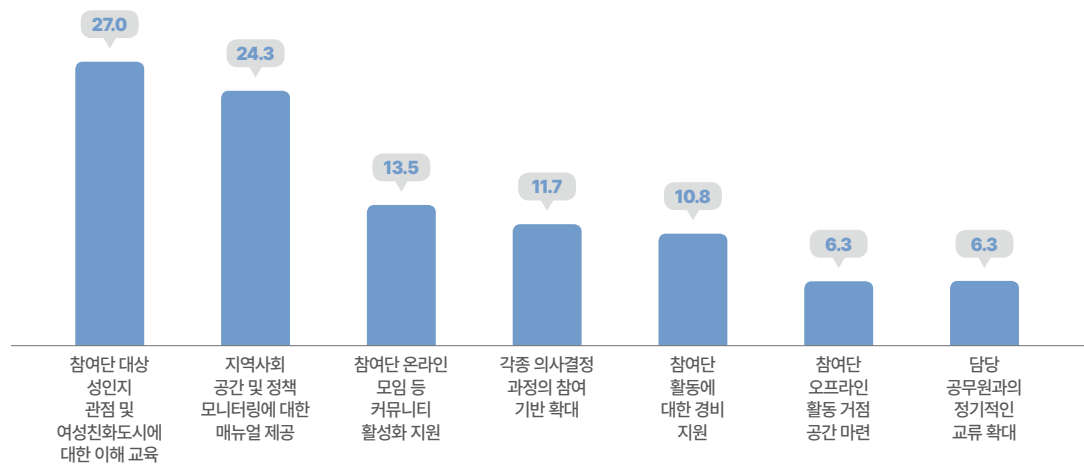
전략연구과제
--
기초연구과제
--
기본연구과제



시(군)민참여단 활동의 불만족 이유 (단위: 명, %)



시(군)민참여단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것(1순위) (단위: 명, %)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한 주요 정책 제언

[충청남도]

- 충청남도 여성친화도시 조성 조례 제정
- 충청남도 여성친화도시 조성 실무협의체 운영
- 기초자치단체 지원 사업 확대

[시군]

- 부서협력 체계 구축
- 지역의 특성 및 자원을 연계한 대표사업 발굴
- 여론 수렴 및 홍보 강화
- 여성의 참여와 역량 강화

충청남도 사회적 고립 은둔 청년 실태 및 지원 방안

연구자: 오정아 연구위원

청년의 사회적 고립은 사회적 관계부재 이상의 복합적인 상황이 얽혀있다는 것이 학계의 일반적인 견해이다. 고립으로 인해 정서 및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개개인이 처한 어려움으로 사회적 고립에 처하는 사례도 있다. 지난 2년간 충청남도 내 청년 1인 가구 비율이 117% 증가 추이를 보였고, 1인 가구는 다인 가구와 비교할 때 소득 수준, 주거환경, 사회적 관계망 등이 취약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 연구는 충청남도 사회적 고립과 은둔의 실태와 특성을 살펴보고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제안하고자 진행되었다. 이를 위해 충청남도과 다른 지역의 사회적 고립 은둔 청년지원 정책을 살펴보고, 충남도 사회적 고립 은둔 청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수행하며 학계 및 현장 전문가와 지역 청년네트워크 등의 의견을 종합하여 정책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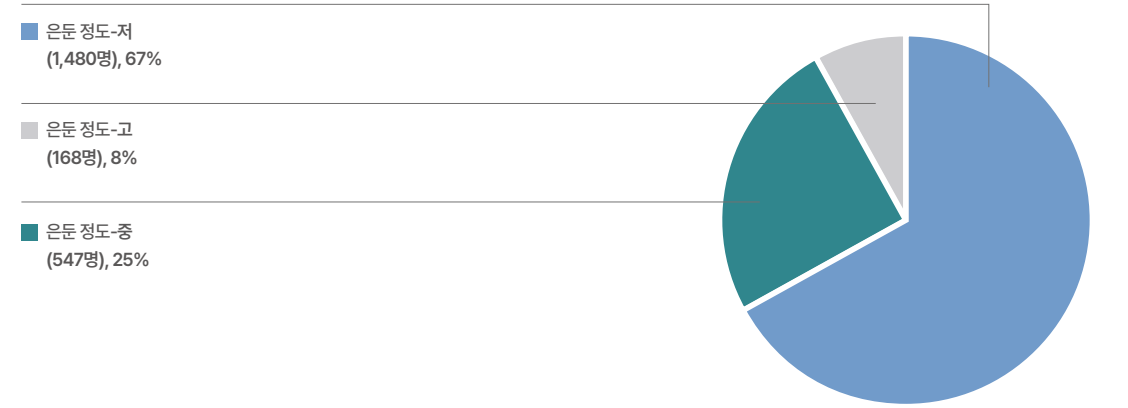
은둔 정도 고 집단 7.6%

온라인 설문조사 응답자 총 2,200명 가운데 은둔 정도-저 집단은 67.3%, 은둔 정도-중 집단은 24.9%, 은둔 정도-고 집단은 7.6%를 차지했다.

생활권별로 은둔 정도 세 집단 비율을 비교한 결과, 은둔 정도-저 집단 비율은 북부권(69.1%), 내륙권(67.5%), 서해안권(63.4%), 금강권(57.2%) 순으로 높았으며, 은둔 정도-중 집단은 금강권이 30.1%로 가장 높고 나머지 세 생활권은 큰 차이가 없었다.

은둔 정도-고 집단은 금강권(12.7%), 서해안권(11.3%)이 높고, 북부권(6.8%)과 내륙권(7.1%)은 낮게 나왔다.

평소 외출 빈도에 따른 은둔 정도 세 집단 구분 결과 (단위: 명, %)



SPECIAL

- 충청남도 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출범
- 2023년 여성가족연구본부 하이라이트
- 특집 인터뷰

PART 1

- 2023 충남 성평등 포럼
- 대만연수
- 호주연수

PART 2

- 2023 충남여성 풀뿌리 자치학교
- 2023 충남여성소모임 인큐베이팅 Start-up
- 충남 여성 리더십 포럼
- 2023 충남 성주류화 제도 발전 포럼

PART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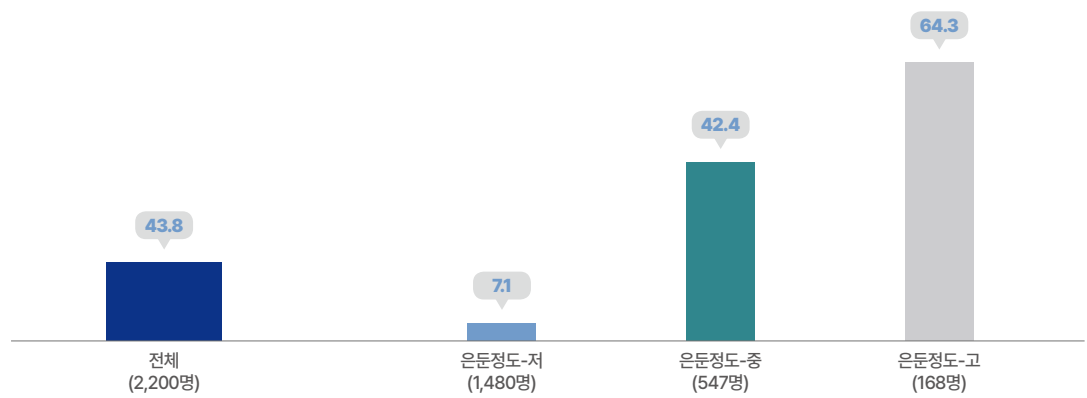
- 전략연구과제
- 기초연구과제
- 기본연구과제



“나는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다” ... 20%

스스로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물어보고, ‘예 또는 아니오’로 응답한 결과, 전체 2,200명 중에서 예라고 응답한 경우는 20.4%였다. 성별로는 큰 차이는 아니지만 남성이 22.0%로 여성 19.5%보다 높았다. 연령대별로는 예라는 응답이 19~25세 26.9%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 26~30세 23.9%, 31~39세 15.0%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스스로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만을 대상으로 사회적 고립(은둔) 생활이 자발적인 선택이었는지 묻은 질문에는 76.4%가 그렇다고 대답했다. 연령대, 일상생활 상태(규칙적/비규칙적)에 따라서는 자발적 선택에 차이가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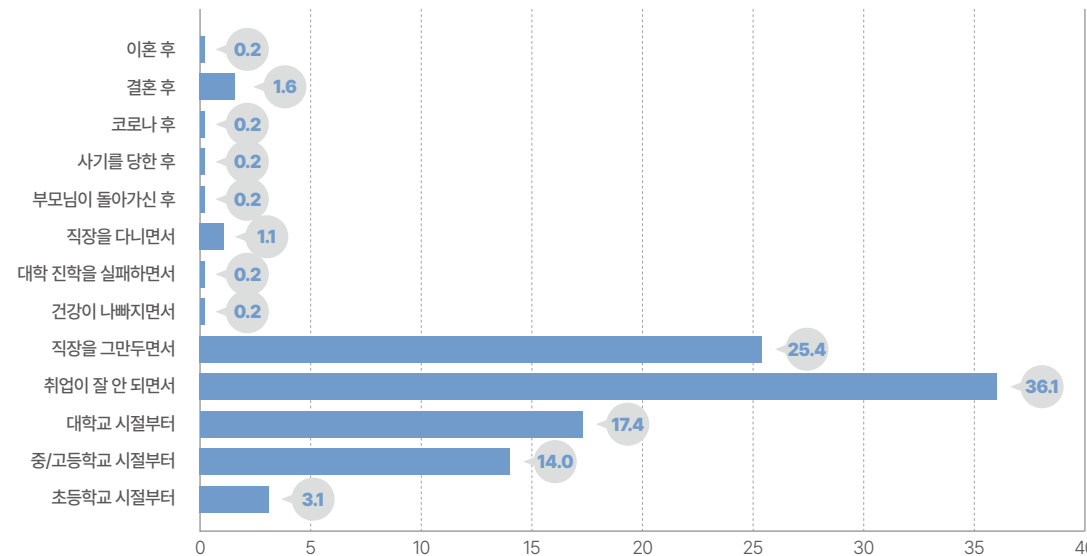
스스로가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단위: %)



취업과 직장에서 이탈하며 사회적 고립

스스로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응답자 449명만을 대상으로 사회적으로 고립된 시기가 대략 언제부터였다고 생각하는지를 추가로 물어본 결과, ‘취업이 잘 안되면서’라는 응답이 36.1%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직장을 그만두면서 25.4%, 대학교 시절부터 17.4%, 중·고등학교 시절부터 14.0% 순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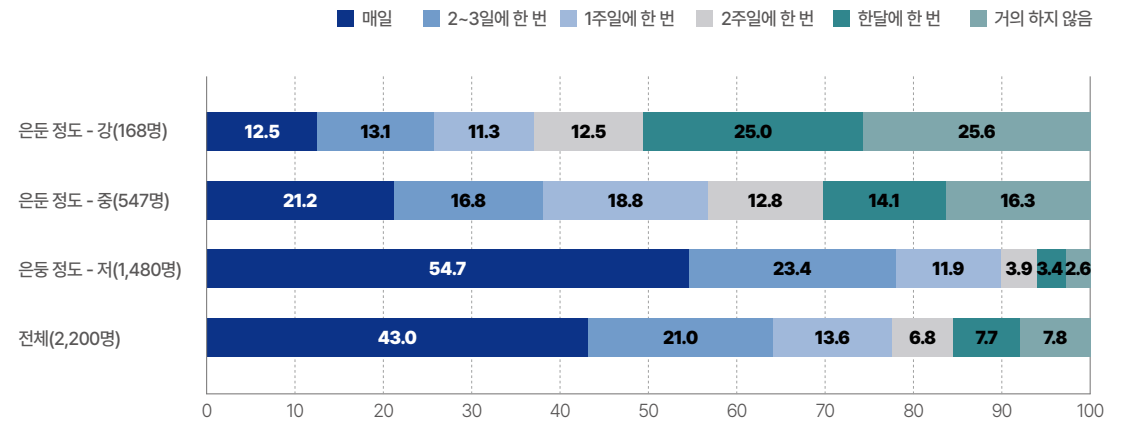
사회적으로 고립된 시기 (단위: %)



은둔 정도 강할수록 대화 빈도 줄어

전체 2,200명 중 친구(이성/동성)와의 대화를 매일 하는 경우가 43.0%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2~3일에 한 번 21.0%, 1주일에 한 번 13.6%이었다. 은둔 정도가 강해질수록 친구(이성/동성)와의 대화 빈도는 줄어들었으며, 은둔 정도-강 집단의 경우 ‘거의 하지 않음’이 25.6%, ‘한 달에 한 번’ 25.0%에 달했다. 매일, 2~3일에 한 번, 1주일에 한 번, 2주일에 한 번은 각각 12~13% 수준에 그쳤다. 이는 함께 살지 않는 가족과의 대화 빈도와 비교해서도 더 적은 수치였다.

타인과의 대화 빈도: 친구(이성/동성)과의 대화 (단위: %)



은둔 정도 강할수록 모임과 단체활동 저조

모임 및 단체 활동 항목 내에서의 참여 비율이 은둔 정도에 따라 차이가 컸다. 직장(동아리 및 노조활동 등), 학교동창회 등 참여 비율이 은둔 정도-저 집단에서는 41.0%였는데, 은둔 정도-중 집단에서는 7.7%로 급감하고, 은둔 정도-고 집단에서는 4.8%에 그쳤다. 비율 차이는 있지만, 지역 주민 자치회, 청년단체나 동호회, 마을 모임, 자원봉사, 취미나 운동 모임 항목에서도 은둔 정도가 높아질수록 모임 및 단체 참여 비율이 낮아지는 경향성은 일관되게 나타났다.

1년 이상 장기간 은둔 비중 높아

‘은둔 정도-중’, ‘은둔 정도-고’ 집단 전체로 봤을 때는 6개월 이상~1년 미만 30.7%, 1년 이상~3년 미만 29.6%, 6개월 미만 14.3%, 3년 이상~5년 미만 13.4%, 7년 이상 8.4%, 5년 이상~7년 미만 3.6% 순으로 많았다. 은둔 정도-중, 고 집단의 경우 1년 이상 장기간 사회적으로 고립되거나 은둔 생활을 하는 비율이 절반을 넘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은둔 정도-고 집단과 은둔 정도-중 집단을 비교하면 1년 이상~3년 미만인 비율이 은둔 정도-고 집단에서 높고, 6개월 이상~1년 미만 비율이 은둔 정도-중 집단에서 높았지만, 큰 차이는 아니었다.

은둔 정도-중, 은둔 정도-고 전체 기준으로 취(창)업이 잘 안돼서라는 응답이 46.4%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서 25.0%, 정신적·심리적 건강이 좋지 않아서 23.6%, 학교나 직장 등에서 인간관계가 잘되지 않아서 22.1%, 임신·출산 때문에 10.9%, 대학입시의 실패로 5.7%, 장애가 있거나 신체적 건강이 좋지 않아서 5.4%, (중·고등학교)학업 중단으로 2.1% 순이었다.

은둔 정도-고 집단은 취(창)업이 잘 안돼서 51.2%, 학교나 직장 등에서 인간관계가 잘되지 않아서 28.0%, 사회생활이 잘 맞지 않는다고 생각되어서 25.6% 비중이 특히 높았다. 반면, 은둔 정도-중 집단은 임신·출산 때문에 14.8%, 대학 입학 실패로 6.9% 비중이 은둔 정도-고 집단보다 높았다.

SPECIAL

충청남도
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출범
--
2023년 여성가족연구본부
하이라이트
--
특집 인터뷰

PART 1

2023 충남 성평등 포럼
--
대만연수
--
호주연수

PART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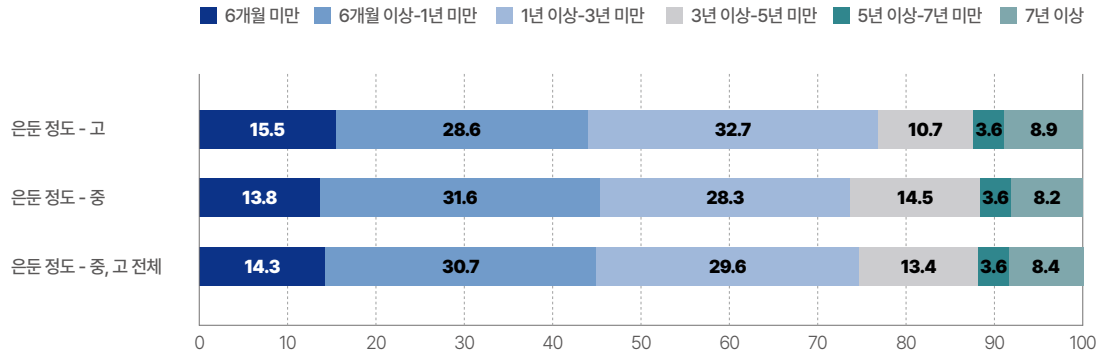
2023 충남여성 풀뿌리 자치학교
--
2023 충남여성소모임 인큐베이팅
Start-up
--
충남 여성 리더십 포럼
--
2023 충남 성주류화 제도
발전 포럼

PART 3

전략연구과제
--
기초연구과제
--
기본연구과제



현재와 같은 생활이 지속된 기간 (단위: %)



은둔 정도
강할수록
경제활동 기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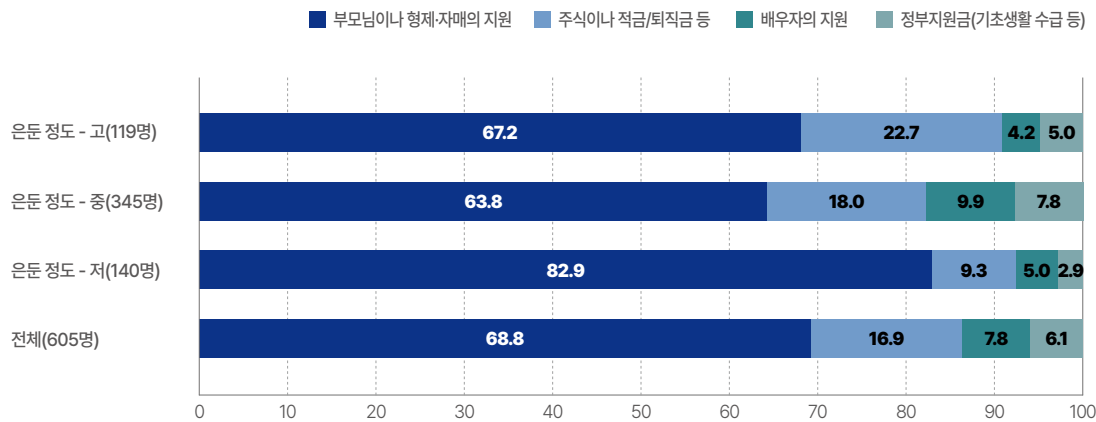
전체 응답자 중에서 지난주에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을 했다는 비율은 66.6%였다. 이 비율은 은둔 정도 집단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는데, 은둔 정도-저 집단에서는 지난주에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을 했다는 비율이 85.9%인데 반해 은둔 정도-중 집단에서는 27.4%, 은둔 정도-고 집단에서는 24.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시간 이상 일을 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605명 기준으로 부모님이나 형제-자매의 지원을 받는 경우가 68.8%였고, 다음으로 주식이나 적금/퇴직금 등 16.9%, 배우자의 지원 7.8%, 정부지원금(기초생활수급 등) 6.1% 순으로 생활비를 마련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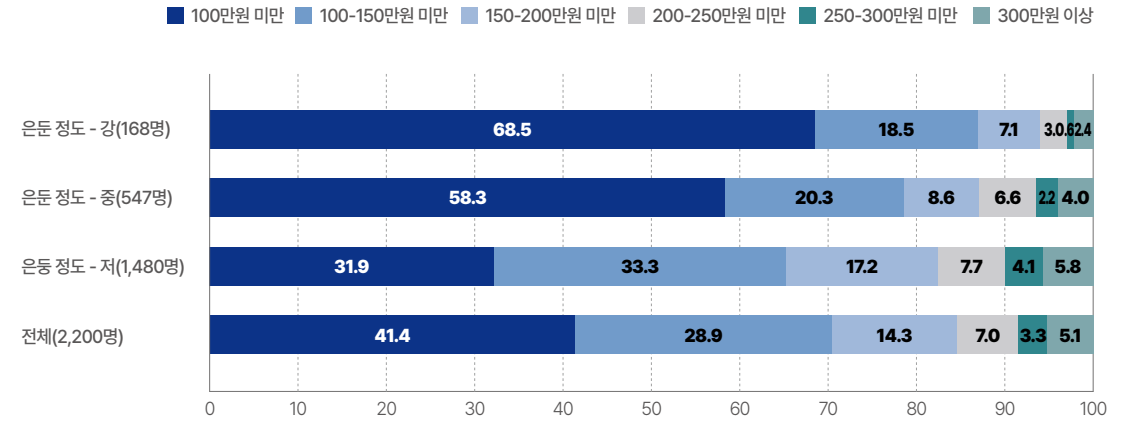
‘은둔 정도-고’ 집단에서는 주식이나 적금/퇴직금 등이라는 응답 비율이 22.7%로 가장 높았으며, 은둔 정도-중 집단에서는 부모님이나 형제-자매의 지원 비율은 조금 낮고, 나머지 3개 항목 비율은 조금씩 높았지만 차이는 적었다. 은둔 정도-저 집단에서는 부모님이나 형제-자매의 지원 비율이 82.9%로 높았고 나머지 항목 비율은 낮았다.

월 평균 생활비가 얼마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은둔 정도-고 집단은 100만 원 미만이 68.5%로 가장 많았고, 100~150만 원 미만 18.5%, 150~200만 원 미만 7.1%, 200~250만 원 미만 3.0% 순이었다. 은둔 정도-중, 은둔 정도-저 집단일수록 월 평균 생활비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생활비 마련 방식 (단위: %)



월 평균 생활비 (단위: %)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한
주요 정책
제언

- 사회적 고립 은둔 청년 지원 조례 제정
- 사회적 고립 은둔 청년 정책 전달체계 구축
- 고립 은둔 청년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 고립 은둔 청년 실태조사 정례화
- 고립 은둔 청년 지원을 위한 '통합 플랫폼' 운영
- 대학과 연계한 취업교육 훈련 프로그램 운영
- 고립 은둔 청년 발굴 시스템 구축

SPECIAL

충청남도
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출범
--
2023년 여성가족연구본부
하이라이트
--
특집 인터뷰

PART 1

2023 충남 성평등 포럼
--
대만연수
--
호주연수

PART 2

2023 충남여성 풀뿌리 자치학교
--
2023 충남여성소모임 인큐베이팅
Start-up
--
충남 여성 리더십 포럼
--
2023 충남 성주류화 제도
발전 포럼

PART 3

전략연구과제
--
기초연구과제
--
기본연구과제



충청남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방안 연구

연구자: 김선미 연구위원

충청남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실태 조사를 통해 종사자의 임금과 처우 실태를 파악하고 분석함으로써 전반적인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연구를 진행하였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평균연봉
3,600만 원

충청남도 사회복지시설 전체 종사자의 임금 수준은 연 34,764천 원, 월 2,897천 원이며, 평균 임금은 연 36,635천 원, 월 3,053천 원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2022년 4월 기준 1년 미만 근무자 제외한 종사자의 직급 및 시설유형, 시설 종류, 인정호봉 등의 구분 없이 모든 종사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것이며, 임금 분석은 기본급, 명절휴가비, 도비 매칭의 처우개선비와 정액급식비만 포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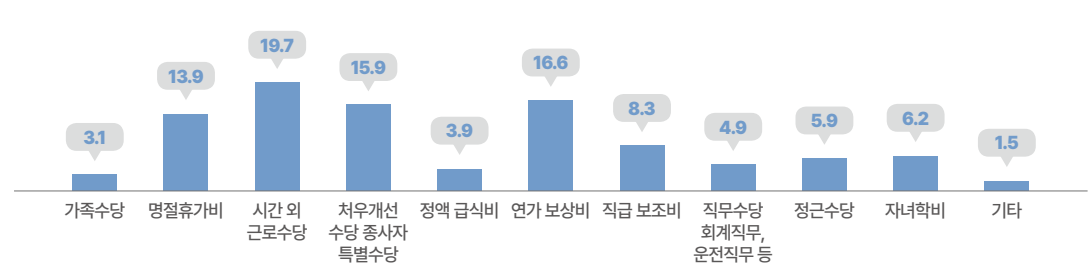
전체 종사자 임금 수준 (단위: 명, 천원)

구분	빈도	중위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연봉	3,651	34,764	36,635	10,469	3,724	88,009
월봉		2,897	3,053	872	310	7,334

시간 외 근로수당
필요하다는
인식 강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강화·신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수당(1순위)으로는 시간 외 근로수당이 19.7%로 가장 높고, 연가보상비 16.6%, 처우개선수당(종사자특별수당) 15.9% 등이 뒤를 이었다.

종사자 처우개선 위해 강화·신설 희망 수당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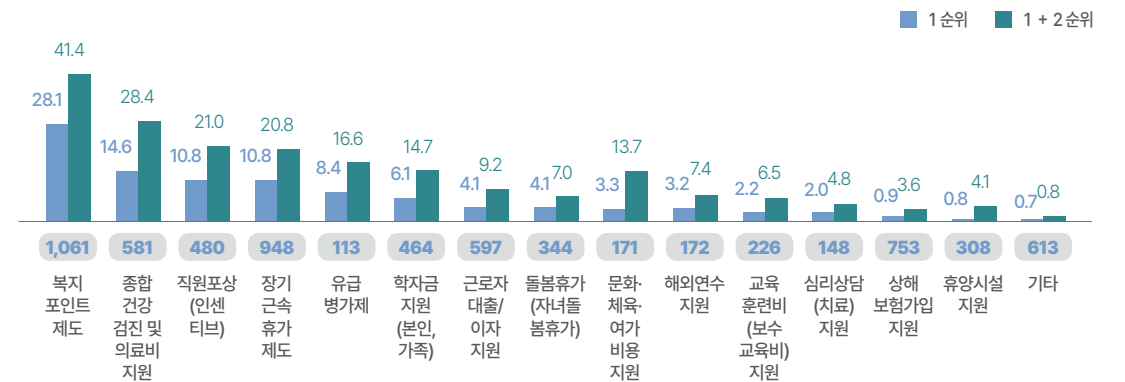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
수준의 가장
시급한 개선사항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은 보수 관련 가장 시급한 개선 사항으로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 상황’을 37.1%로 가장 많이 꼽았다.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 의무화’(23.0%), ‘사회복지시설 단일급여체계 구축을 통한 시설 간 종사자 보수 수준 격차 최소화’(9.3%) 등이 뒤를 이었다.

복지포인트 제도
가장 희망

종사자가 희망하는 복리후생제도 1순위는 복지포인트 제도(28.1%)였으며, 종합건강검진 및 의료비 지원 14.6%, 직원포상(인센티브 제도)와 장기근속휴가제도(안식휴가제) 10.8% 등으로 응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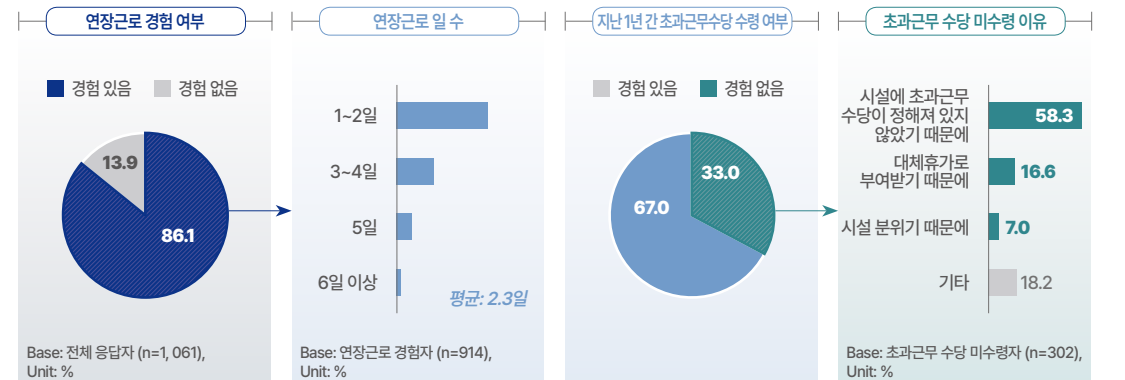
종사자 희망 복리후생제도 (단위: %)



초과-
연장근무에도
적정한 보상이
없다

전체 응답자의 86.1%가 연장근로 경험에 있으며, 그중 대부분 1~2일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다.(평균 2.3일) 연장근로 경험자 중 지난 1년간 초과근무수당을 받지 못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33%였으며, 미수령 이유는 ‘시설에 초과근무수당이 정해져 있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58.3%로 가장 높았다.

연장근로(초과근로) 경험 (단위: %)



SPECIAL

충청남도
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출범
--
2023년 여성가족연구본부
하이라이트
--
특집 인터뷰

PART 1

2023 충남 성평등 포럼
--
대안연수
--
호주연수

PART 2

2023 충남여성 풀뿌리 자치학교
--
2023 충남여성소모임 인큐베이팅
Start-up
--
충남 여성 리더십 포럼
--
2023 충남 성주류화 제도
발전 포럼

PART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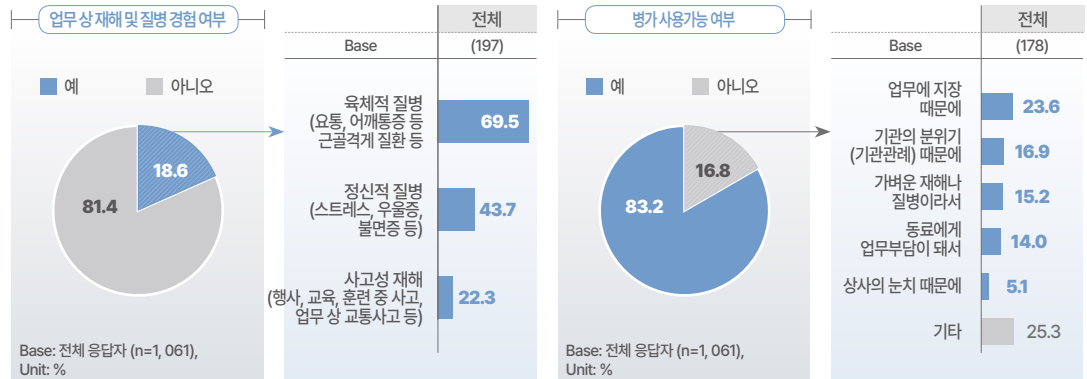
전략연구과제
--
기초연구과제
--
기본연구과제



업무상 재해 및 질병 경험 18.6%

지난 1년간 업무상 재해 및 질병을 경험한 비율은 18.6%였다. 육체적 질병이 69.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으며, 정신적 질병은 43.7%, 사고성 재해는 22.3% 순으로 조사되었다. 소속 시설 내 병가 사용 가능 비율은 83.2%로 나타났다.

업무상 재해 및 질병 경험 여부, 병가 사용 관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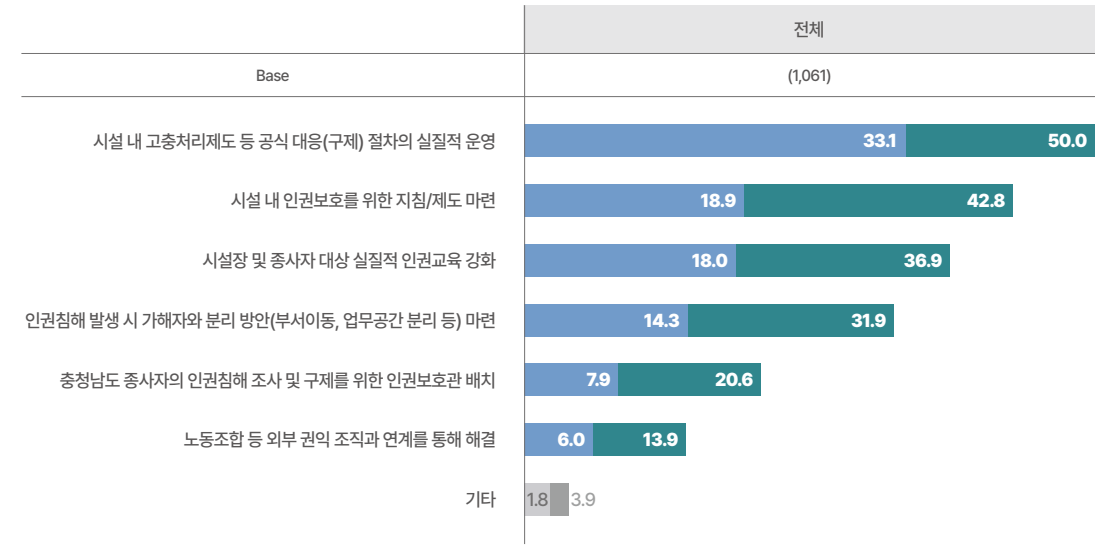
적잖은 직장 내 괴롭힘, 폭언 경험

지난 1년간 직장 내 괴롭힘 경험(복수응답)에 대해 '모욕·명예훼손(모욕, 비하, 무시, 헛소문 등)'이 11%로 가장 높았으며, '폭언(부적절한 질책/주의, 협박적 발언, 일방적 비난, 노성 등)'도 9.9%가 경험했다고 답했다. 종사자의 안전, 인권보호 및 증진, 차별 해소를 위한 효과적인 방법으로 '시설 내 고충처리 등 공식 대응(구제) 절차의 실질적 운영'(33.1%)을 가장 많이 꼽았고, '시설 내 인권보호를 위한 지침/제도 마련'(18.9%), '시설장 및 종사자 대상 실질적 인권교육 강화'(18%) 등도 많이 응답했다.

직장 내 괴롭힘 경험 (단위: %)

구분	Base	전체	구분	Base	전체	구분	Base	전체
1) 폭행	동료	12.5	4) 따돌림, 차별	동료	66.7	7) 후원강요	동료	2.5
	상급자	37.5		상급자	41.2		상급자	40.0
	기관장	12.5		기관장	17.6		기관장	57.5
	기타	37.5		기타	2.0		기타	15.0
2) 폭언	동료	27.6	5) 업무 외 강요	동료	16.7	8) 원하지 않은 종교행위 강요	동료	5.3
	상급자	47.6		상급자	50.0		상급자	26.3
	기관장	36.2		기관장	44.4		기관장	78.9
	기타	12.4		기타	16.7		기타	13.2
3) 모욕, 명예훼손	동료	41.9	6) 부당지시	동료	6.5	9) 신고에 따른 보복	동료	31.6
	상급자	47.0		상급자	58.4		상급자	36.8
	기관장	23.1		기관장	42.9		기관장	36.8
	기타	8.5		기타	5.2		기타	15.8

종사자의 안전 및 인권보호를 위한 우선순위 (단위: %)



종사자들이 원하는 것은 시간적, 경제적 지원

처우개선 사업 중 가장 만족도가 높은 사업은 자녀돌봄휴가 및 장기근속휴가제도 도입(3.16점)과 전문성 향상을 위한 종사자 교육비 지원(3.16점)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장 만족도가 낮은 사업은 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 미준수 시설 보수(기본급) 개선(2.57점)이었다. 지난 3년간 충청남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정도에 대한 만족도는 전체적으로 평균 2.53점(4점 만점)이었다.

시설 종사자 심층면접 결과

주제	하위주제
1) 근로환경의 문제	(1) 예산 지원 구조가 열악한 근로환경을 만들
	(2) 인력 확보가 어려움
	(3) 제도는 있으나 사용하기 어려운 현실
	(4) 여전히 존재하는 차별
2) 안전 및 인권의 문제	(1) 인권위험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없는 분위기
	(2) 실질적인 보호 방안이 없음
	(3) 시설 내부에서 해결이 어려움
3) 처우개선을 위한 방안	(1) 충청남도의 의지와 노력
	(2) 통일된 기준 마련과 현실적인 지원으로 근로환경 개선
	(3) 다양한 휴가 제도 시행과 확대
	(4) 다양한 교육 지원
	(5) 안전과 인권보장을 위한 체계 구축
	(6) 종사자와 사회복지 현장의 노력 필요

SPECIAL

충청남도
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출범
--
2023년 여성가족연구본부
하이라이트
--
특집 인터뷰

PART 1

2023 충남 성평등 포럼
--
대만연수
--
호주연수

PART 2

2023 충남여성 풀뿌리 자치학교
--
2023 충남여성소모임 인큐베이팅
Start-up
--
충남 여성 리더십 포럼
--
2023 충남 성주류화 제도
발전 포럼

PART 3

전략연구과제
--
기초연구과제
--
기본연구과제

2024~2026 충청남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방안 종합계획(안)				
목표	일자리 여건 강화를 통해 사회복지 종사자 모두 성장하는 충청남도			
추진 전략	전략1	전략 2	전략 3	전략 4
	임금체계 개선	안정되고 건강한 근로여건 조성	안전 및 인권 향상	전문 역량 강화
세부 사업	사업 1-1	사업 2-1	사업 3-1	사업 4-1
	근로기준법 준수 강화 ① 인건비 미준수 시설 보수(기본급) 개선 ② 시간 외 근로수당 최소 인정 시간 보장	종사자 건강보장 체계 수립 ①종합건강검진비 지원 ②종사자 표준 병가 지침 마련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 강화 ① 종사자 심리상담 지원 확대 ② 종사자 및 시설 운영을 위한 노무 상담 창구 확대 ③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 설립 추진	보수교육비 지원
	사업 1-2	사업 2-2	사업 3-2	사업 4-2
	정액급식비 지원	장기근속 정착 강화 ① 가족돌봄휴가제도 확대 ② 장기근속휴가제도 정착화	종사자 인권 보장 ① 직장 내 괴롭힘 관련 표준 취업규칙 마련 ② 인권보호 지침 및 제도 마련	신사회문제 대응력 강화 ① 교육 강화-교육 콘텐츠 개발, 찾아가는 교육 실시 등 ② 신사회문제 대응력 강화 - 복지아카데미 개설
	사업 1-3	사업 2-3	사업 3-3	사업 4-3
	처우개선수당 지원	종사자 상해보험료 지원	종사자 인권교육 확대	처우개선 민관 네트워크 구축
	사업 1-4	사업 2-4		사업 4-4
	처우개선위원회 정기적 운영	대체인력지원사업 확대		사회복지종사자 유공자 표창

충청남도 케어팜 연계 사회서비스 수요조사 연구

연구자: 정덕진 연구위원

케어팜을 통해서 아동, 노인, 장애인 등 기존의 사회서비스 이용자뿐만 아니라 사회적 고립감과 우울감 등 새로운 사회적 문제에 대응하여 자연친화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이에 사회서비스에 대한 수요결과를 토대로 충남 지역 특성에 맞는 케어팜 연계 사회서비스 실천 전략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충남도민 '문화와 여가' 사회서비스 원해

서비스 욕구(필요도)가 높은 영역은 문화·여가 서비스(17.4%), 신체건강 서비스(14.1%), 노인 돌봄 서비스(12.3%)로 나타났다. 서비스 충족률(필요도 대비 이용률)이 전국 대비 낮은 영역은 출산 지원 서비스(50.0%), 신체건강 서비스(30.5%), 주거지원 서비스(6.9%), 정신건강 서비스(0.0%) 등으로 서비스 확충이 필요한 영역이었다. 서비스 비용 지급 의사가 높은 영역은 문화 및 여가 서비스(13.8%), 신체건강 서비스(6.2%), 노인 돌봄 서비스(3.8%)로 나타남. 비용 지불 의사(월 이용 금액)의 경우, 다른 지역에 비해 재활 서비스(30만 원), 노인 돌봄 서비스(20.1만 원)가 높게 나타나 이용 의지가 높다고 볼 수 있다.

도민 대상 사회서비스 수요가 높은 영역

영역	서비스	필요도	충족률	이용의향	지불의사
성인돌봄	노인 돌봄 서비스	○		○	○
	장애인 돌봄 서비스	○			
	기타 성인 돌봄 서비스	○			
아동돌봄	출산 지원 서비스		○		
건강	신체건강 서비스	○	○	○	
	정신건강 서비스		○		
	재활 서비스				○
문화	문화 및 여가 서비스	○		○	
	주거지원 서비스		○		



SPECIAL

충청남도
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출범
--
2023년 여성가족연구본부
하이라이트
--
특집 인터뷰

PART 1

2023 충남 성평등 포럼
--
대만연수
--
호주연수

PART 2

2023 충남여성 풀뿌리 자치학교
--
2023 충남여성소모임 인큐베이팅
Start-up
--
충남 여성 리더십 포럼
--
2023 충남 성주류화 제도
발전 포럼

PART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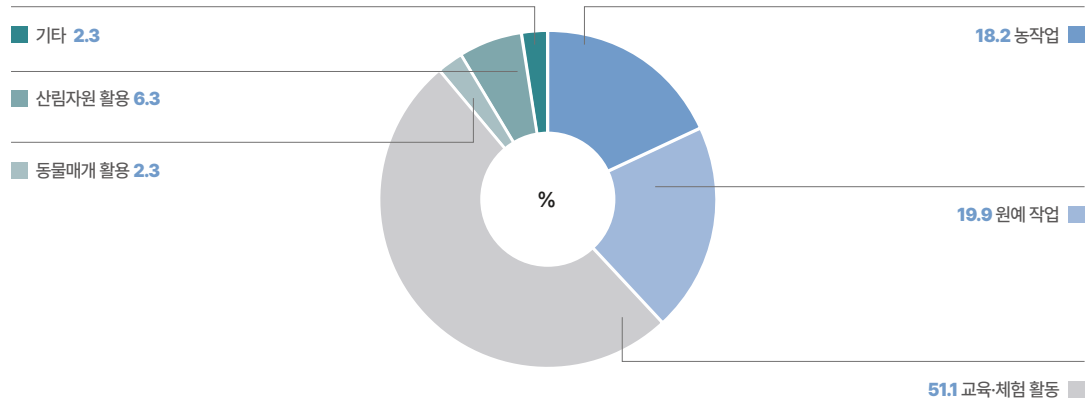
전략연구과제
--
기초연구과제
--
기본연구과제



**교육-체험 활동이
농장 프로그램의
절반**

농장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 유형은 교육-체험 활동(농산물을 활용한 음식 만들기, 장 담그기 등 배
우고 체험하는 활동)이 51.1%로 가장 많았으며, 원예 작업(19.9%), 농작업(18.2%) 등의 순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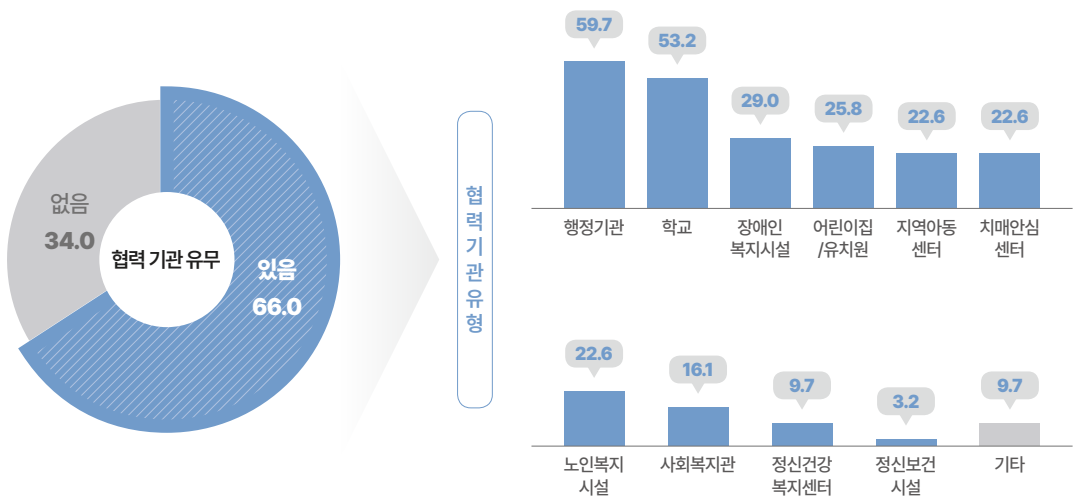
농장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 유형



**행정,
교육기관과의
협력 가장 많아**

프로그램 진행 시 협력 기관 여부에 대해서 '있다'로 응답한 비율이 66%였으며, 협력 기관으로는 행
정기관이 59.7%로 가장 많았고, 학교 53.2%, 장애인복지시설 29%,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25.8% 등
이 뒤를 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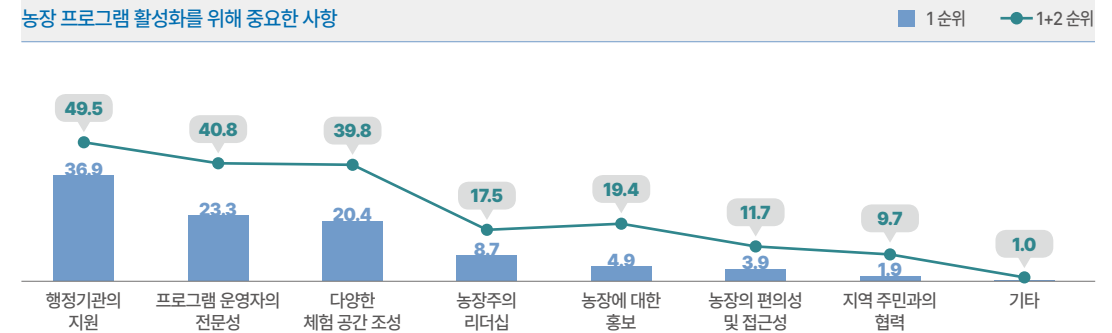
프로그램 진행 시 협력 기관 유무 및 기관 유형



**행정지원과
역량강화
필요성 인식**

농장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중요한 사항으로 '행정기관의 지원'이 49.5%, '프로그램 운영자의 전문
성' 40.8%, '다양한 체험 공간 조성' 39.8%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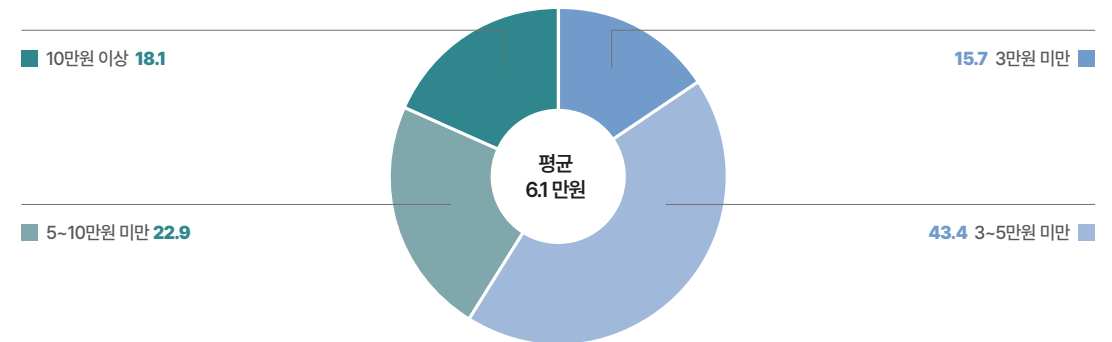
농장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중요한 사항



**케어팜 서비스
평균 적정 비용
6.1 만 원**

농장들은 케어팜 서비스 적정 비용으로 '3~5만 원 미만'이 43.4%, '5~10만 원 미만' 22.9%, '10만 원
이상' 18.1% 순으로 응답하였다. 이들 응답의 평균 적정 비용은 6.1만 원이었다.

케어팜 서비스 제공 시 적정 비용



**농장 시설
환경 개선,
경제적 지원
의견 가장
높아**

케어팜을 운영할 때 가장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점으로 '농장 시설 환경 개선'이 63.0%로 가장 많았고,
'프로그램 경비 등 경제적 지원' 43.0%, '지역 유관기관 협력 활성화' 32.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케어팜 관련 정책 중 농장 시설 환경 개선 사업은 지속해서 추진하며, 사회서비스 이용자의 특
성상 구매력이 낮은 계층(저소득 노인, 장애인 등)의 이용료 지원이 병행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사회서비스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이용자를 모집뿐만 아니라 프로그램 진행도
연계한다면 더욱 발전적인 케어팜 운영이 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SPECIAL

충청남도
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출범
--
2023년 여성가족연구본부
하이라이트
--
특집 인터뷰

PART 1

2023 충남 성평등 포럼
--
대만연수
--
호주연수

PART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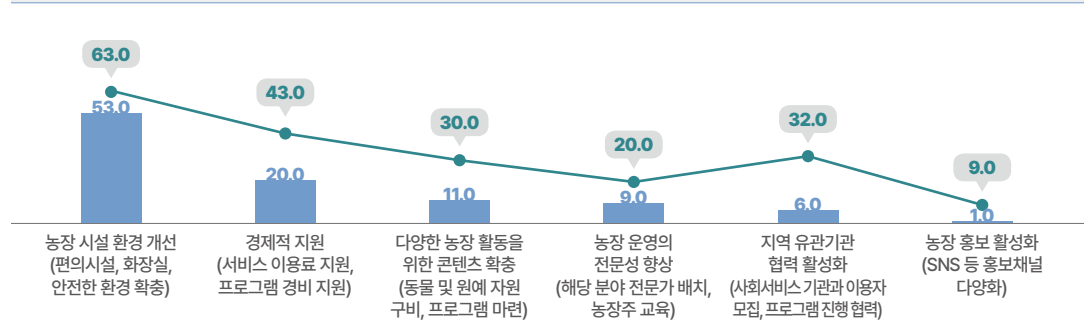
2023 충남여성 풀뿌리 자치학교
--
2023 충남여성소모임 인큐베이팅
Start-up
--
충남 여성 리더십 포럼
--
2023 충남 성주류화 제도
발전 포럼

PART 3

전략연구과제
--
기초연구과제
--
기본연구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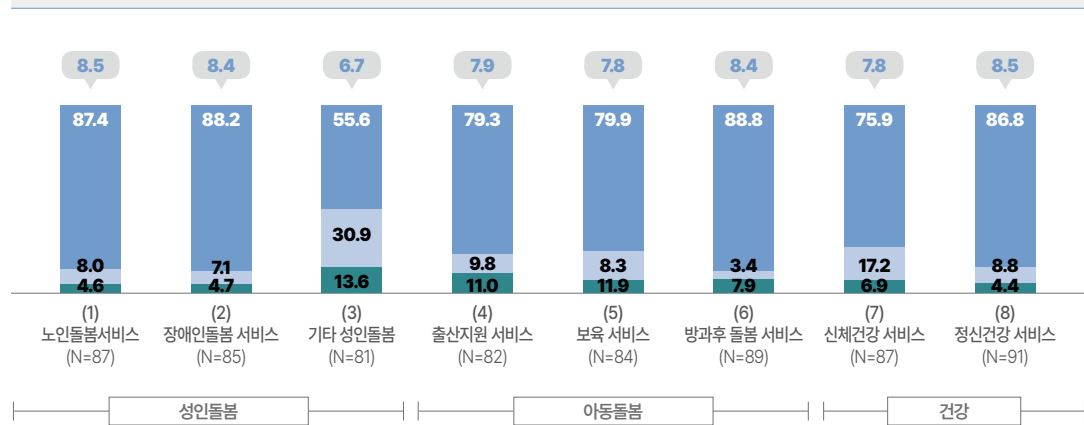
케어팜 운영 시 개선사항



노인돌봄, 정신건강 서비스 필요성 가장 높아

영역별 사회서비스의 필요성에 관한 질문에는 노인돌봄 서비스와 정신건강 서비스가 각 8.5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장애인돌봄과 방과후돌봄 서비스가 각 8.4점, 출산지원 서비스 7.9점 등이었다. 이는 충남의 노인 인구 비율이 높다는 점과 해결해야 할 사회문제(자살 등), 사회서비스 인프라가 부족한 영역의 보완 등에 대한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우리 지역에 필요한 사회서비스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종사자가 인식한 케어팜 프로그램 운영 방향

영역	지불의사
사회서비스 수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촌 지역 고령화 문제 대응(독거노인 돌봄) 장애인 심리사회적 재활, 일자리, 탈시설 지원 도민 대상 돌봄, 힐링 등 보편적 서비스 지원
케어팜 프로그램 운영 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용자 별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노인 영양·식사 지원, 장애인 탈시설을 위한 숙박·일자리 지원) 프로그램 효과성 평가 방식의 유연화(정성적 평가 병행) 케어팜에 대한 인식 확산과 홍보 활동 강화 농장에 대한 접근성, 편의성, 안전성 강화 중간지원조직을 통한 케어팜 전문인력 양성 및 서비스 전문성 강화 지원
케어팜 제도화 과정 고려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공인력 및 제공기관 등록 기준 사회서비스 단가 프로그램 평가 및 사업 품질평가 기준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한 주요 정책 제언

- 이용자의 욕구에 기반한 서비스 설계 및 평가
- 농장 운영자 및 프로그램 진행자의 역량 강화 지원
- 서비스 품질관리를 위한 적정 기준 마련
- 케어팜 활성화를 위한 다부처 정책사업 연계 지원
- 케어팜에 대한 인식 및 홍보 강화

충남의 사회서비스 수요를 반영한 케어팜 추진 방향

구분	내용
사회서비스 수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 지역 고령화 문제 대응 •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예방적 접근 • 복지사각지대 해소(장애인 심리사회적 재활, 탈시설 자립 지원) •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보편적인 서비스 지원(돌봄, 힐링)
우선 지원 대상	① 노인 ② 아동·청소년 ③ 장애인 ④ 다문화 가족 ⑤ 일반 시민
서비스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유아 및 아동 관련 서비스(출산지원 서비스, 방과후 돌봄) • 성인돌봄 서비스(노인 돌봄, 장애인 돌봄) • 신체/정신 건강 서비스, 재활 서비스 • 문화여가 서비스
케어팜 연계 추진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장 시설 환경 및 접근성 개선(편의시설, 안전한 환경, 이동 수단) • 이용자 별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 서비스 품질 향상(제공인력 전문성, 서비스 평가 등) • 다양한 부처간 융합적 지원과 협력 강화 • 케어팜에 대한 인식 확산과 홍보 강화

SPECIAL

충청남도
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출범
--
2023년 여성가족연구본부
하이라이트
--
특집 인터뷰

PART 1

2023 충남 성평등 포럼
--
대만연수
--
호주연수

PART 2

2023 충남여성 풀뿌리 자치학교
--
2023 충남여성소모임 인큐베이팅
Start-up
--
충남 여성 리더십 포럼
--
2023 충남 성주류화 제도
발전 포럼

PART 3

전략연구과제
--
기초연구과제
--
기본연구과제



충청남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관 협력 강화 방안 연구

연구자: 서보람 연구위원, 강동훈 선문대학교 사회봉사센터장, 이용재 호서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이 연구는 충청남도 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공공과 민간 협력 현황과 실태를 분석해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을 위해 진행되었다. 이를 통해 도내 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협력 관련 현황, 실태 분석을 통해 공공과 민간 협력 강화 방안 마련하고 이들의 공공과 민간 협력 강화를 위한 정책, 서비스 방안 마련을 통해 충청남도 사회보장 전달체계의 안정적 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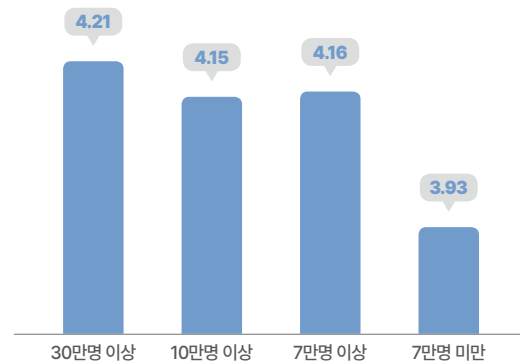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협의체 위원 전문성 '높다' 인식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의 전문성과 역량을 가지고 있다'에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85.3%였다. 인구 기준별로 인구수 '7만 명 미만' 지역의 평균 점수는 3.93점으로 인구수 '30만 명 이상' 4.21점, '7만 명 이상 10만 명 미만' 4.16점, '10만 명 이상 30만 명 미만' 4.15점과 비교했을 때 평균 점수가 낮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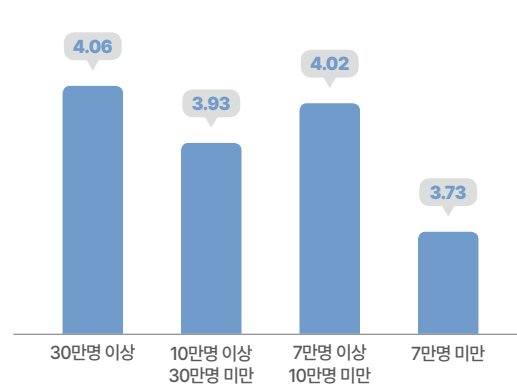
수요에 맞는 복지 서비스 인식 높아

'복지대상자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에 그런 편(그렇다+매우 그렇다)로 응답한 비율은 73.3%이었다. 인구수 '7만 명 미만' 지역은 평균 점수 3.73점으로 인구수 '30만 명 이상' 4.06점, '7만 명 이상 10만 명 미만' 4.02점, '10만 명 이상 30만 명 미만' 3.93점과 비교했을 때, 평균 점수가 낮았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의 전문성과 역량 수준 (단위: 점_5점 만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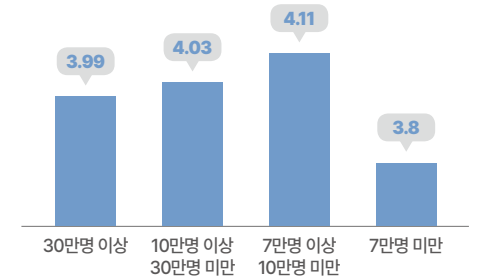
복지대상자 욕구에 맞는 서비스 제공 (단위: 점_5점 만점)



공공과 민간의 연계 협력 활성화

'공공과 민간의 연계 협력이 활성화되고 있다'에 그런 편(그렇다+매우 그렇다)로 응답한 비율은 79%이었다. 인구수 '7만 명 미만' 지역은 평균 점수 3.8점으로 인구수 '7만 명 이상 10만 명 미만' 4.11점, '10만 명 이상 30만 명 미만' 4.03점과 비교했을 때, 평균 점수가 낮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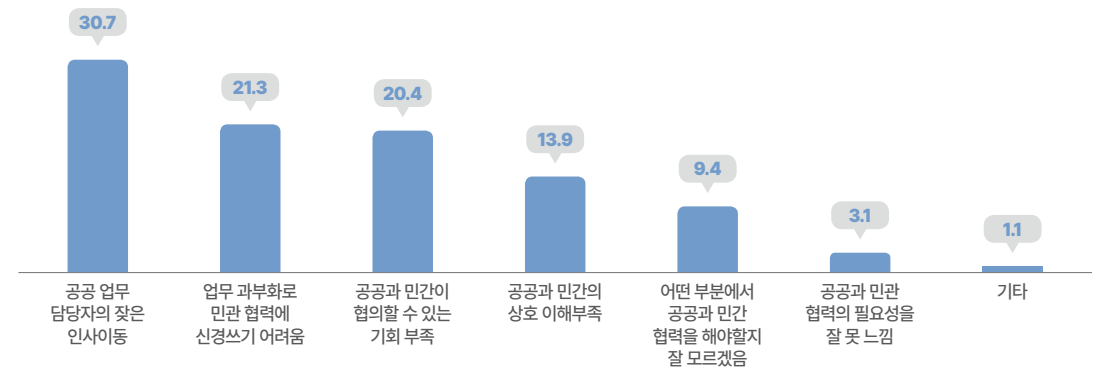
공공과 민간의 연계협력 활성화 (단위: 점_5점 만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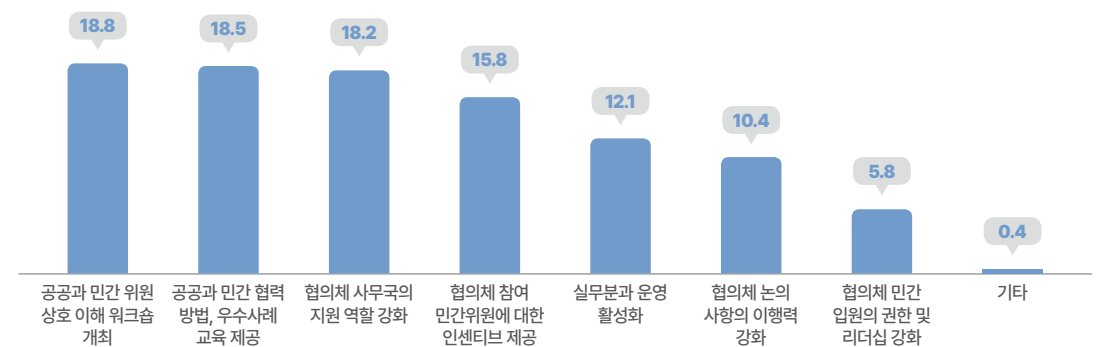
담당자의 인사이드가 협력의 장애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에 있어 민관협력의 장애물은 '공공 업무 담당자의 잦은 인사이동'이 30.7%로 가장 높았고, '업무 과부화로 민관협력에 신경 쓰기 어려움' 21.3%, '공공과 민간이 협의할 기회 부족' 20.4%, '공공과 민간의 상호 이해 부족' 13.9% 순이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에서 민관협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으로는 '공공과 민간 위원 상호 이해 워크숍 개최'가 18.8%로 가장 높았고, '공공과 민간 협력 방법, 우수사례 교육 제공' 18.5%, '협의체 사무국의 지원 역할 강화' 18.2%, '협의체 참여 민간위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15.8%였다.

민관협력의 장애물 (단위: %)



민관협력을 위해 필요한 지원 (단위: %)



SPECIAL

충청남도
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출범
--
2023년 여성가족연구본부
하이라이트
--
특집 인터뷰

PART 1

2023 충남 성평등 포럼
--
대만연수
--
호주연수

PART 2

2023 충남여성 풀뿌리 자치학교
--
2023 충남여성소모임 인큐베이팅
Start-up
--
충남 여성 리더십 포럼
--
2023 충남 성주류화 제도
발전 포럼

PART 3

전략연구과제
--
기초연구과제
--
기본연구과제



충청남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계자 심층면접 분석 결과	
구분	내용
협약체 활동을 위한 공간 필요	- 회의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협의체 사무실에 회의실이 없어 회의장 확보 및 이동에 많은 시간과 에너지 소모
	- 주차장 및 위원장실 등 인프라 미흡
	- 대규모 회의는 청사 회의장을 빌리는 경우가 많으나 청사 내에도 부족한 경우가 많음
	- 협의체 사무실 인프라에 관한 규정 등 기준 필요
제도개선 및 인프라 확충 측면	광역단위의 지원체계 필요
	공공의 관리체계 개선
	전문성 제고
협의체 활동 지원 측면	협약체 위원 간 소통 강화
	시군협의체와 읍면동협의체 간 소통 강화
	사무국 예산·인력 확충을 통한 협약체 활동 지원 역량 확대
	협약체 사무국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한 주요 정책 제언

영역	제언 사항
충청남도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광역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 마련 2. 열악한 시·군 대상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원 강화 3. 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관협력 예산 4. 민관협력형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공모 사업 운영 5. 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 강화 6. 충청남도 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원 연간 계획 수립 7. 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관협력을 위한 컨설팅 지원 8. 충청남도 사회보장위원회와 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연계
시·군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련 조례 개정: 민관협력 관련 주요 사업 조항 추가 2.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관협력 운영 예산 지원 3. 공공부문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인식 개선 4.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관련 주무부서의 안정적 운영, 일원화 5.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 직원의 고용 안정을 위한 노력 6.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 내 민관협력 환경 조성 지원 7.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분과 내 민관협력 분과 신설·운영 8. 기초자치단체장 주관의 주기적 연찬회 실시
협의체 사무국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의 전문성 제고 교육 개발·운영 2. 민관협력 교육과정 운영 3. 협의체 위원 간 연계·소통 기회 마련 4. 타지역 민관협력 우수사례 벤치마킹

SPECIAL

충청남도
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출범
--
2023년 여성가족연구본부
하이라이트
--
특집 인터뷰

PART 1

2023 충남 성평등 포럼
--
대만연수
--
호주연수

PART 2

2023 충남여성 풀뿌리 자치학교
--
2023 충남여성소모임 인큐베이팅
Start-up
--
충남 여성 리더십 포럼
--
2023 충남 성주류화 제도
발전 포럼

PART 3

전략연구과제
--
기초연구과제
--
기본연구과제



충청남도 사회보장의 지역 간 격차분석

연구자: 오정아 연구위원

사회서비스 보장 수준을 파악하고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서비스 공급기관의 현황 및 실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기관의 분포가 지역적으로 고르게 분포하고 균형적으로 위치하며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가 사회복지 서비스 보장 수준과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사회서비스 관련 복지 수요(인구학적 속성 등) 대비 제공 인프라, 행·재정적 여건 등 다양한 측면에서 지역 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실질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지역 간 격차분석을 통해 지역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충청도 내 지역별 복지 현황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기초자치 단위의 미시적 공간분석을 통해 복지 격차 완화를 위한 정책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110

충청남도 사회복지 자원 분포 현황

전체 4,071개 복지관련 기관 중 사회·복지 관련 기관이 총 3,095개로 76.03%를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 많은 기관은 건강·의료 분야 기관으로 742개소(18.23%)로 확인된다.

교육·학문 기관은 총 95개로 2.33%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공공·사회기관이 73개(1.79%), 사회복지 단체는 단 1곳만 설치되어 있다.

복지 관련 시설은 도내 전역에 분포하지만, 인구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더 집중적으로 분포하는 것으로 보이며, 천안시와 아산시 인근에 가장 밀집되어 있다. 총 3,095개의 사회·복지 관련 시설 중 노인 복지 관련 시설이 1,742개로 전체 사회·복지 기관의 56.28%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그 뒤를 이어 재가 노인요양센터가 315개(10.18%), 사회복지단체가 291개(9.40%)였다.

건강·의료 분야 기관은 공주시와 청양군 인근의 산간 지역을 제외하면 대체로 고르게 분포하고 있다. 그러나 서산시 일부와 태안군 등에는 건강·의료 분야 기관 분포 밀도가 높지 않았으며, 특히 안면도 일대와 도서 지역에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사회기관은 시군구 단위에서 최소 1개소 이상이 있는데, 특히 천안시와 아산시를 비롯한 동북부 지역에 많이 분포하는 반면에 금산군, 논산시, 서천군과 같은 남부 지역에는 상대적으로 기관이 적게 분포하고 있었다.

교육·학문 분야 기관들은 다수가 지역아동센터였으며, 영유아 아동이 많이 분포하는 곳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설치되어 있다. 아동 인구가 많은 천안시 서북구와 남동구, 아산시에 가장 많이 분포하며, 논산시와 금산군에도 상대적으로 많이 분포하고 있었다.

충청남도 시군구별 사회복지 관련 시설 분포 현황

시군구	건강·의료		공공·사회기관		교육·학문		사회·복지		아동복지시설		치료·상담		협회·단체		계		인구	
	수	%	수	%	수	%	수	%	수	%	수	%	수	%	수	%	수	%
계룡시	19	2.6	1	1.4	1	1.1	42	1.4	0	0.0	0	0.0	1	4.5	64	1.6	44,475	2.1
공주시	47	6.3	7	9.6	2	2.1	221	7.1	0	0.0	3	9.4	0	0.0	280	6.9	102,571	4.8
금산군	27	3.6	2	2.7	8	8.4	177	5.7	0	0.0	1	3.1	2	9.1	217	5.3	50,092	2.4
논산시	51	6.9	5	6.8	15	15.8	219	7.1	0	0.0	2	6.3	2	9.1	294	7.2	112,617	5.3
당진시	52	7.0	5	6.8	6	6.3	209	6.8	0	0.0	1	3.1	4	18.2	277	6.8	168,253	7.9
보령시	39	5.3	1	1.4	7	7.4	203	6.6	0	0.0	0	0.0	0	0.0	250	6.1	97,157	4.6
부여군	25	3.4	3	4.1	2	2.1	161	5.2	1	9.1	1	3.1	1	4.5	194	4.8	62,343	2.9
서산시	60	8.1	4	5.5	2	2.1	267	8.6	1	9.1	3	9.4	0	0.0	337	8.3	176,413	8.3
서천군	20	2.7	2	2.7	3	3.2	142	4.6	1	9.1	0	0.0	1	4.5	169	4.2	49,964	2.4
아산시	80	10.8	8	11.0	17	17.9	287	9.3	1	9.1	6	18.8	4	18.2	403	9.9	334,539	15.8
예산군	36	4.9	6	8.2	2	2.1	176	5.7	1	9.1	0	0.0	1	4.5	222	5.5	77,385	3.6
천안시 동남구	71	9.6	9	12.3	10	10.5	297	9.6	1	9.1	6	18.8	1	4.5	395	9.7	255,647	12.0
천안시 서북구	137	18.5	8	11.0	12	12.6	263	8.5	3	27.3	9	28.1	1	4.5	433	10.6	401,912	18.9
청양군	13	1.8	2	2.7	2	2.1	94	3.0	0	0.0	0	0.0	1	4.5	112	2.8	30,266	1.4
태안군	20	2.7	3	4.1	3	3.2	115	3.7	2	18.2	0	0.0	1	4.5	144	3.5	61,335	2.9
홍성군	45	6.1	7	9.6	3	3.2	223	7.2	0	0.0	0	0.0	2	9.1	280	6.9	98,068	4.6
계	742	100	73	100	95	100	3,096	100	11	100	32	100	22	100	4,071	100	2,123,037	100

복지 관련 시설 천안시, 아산시에 집중

복지 관련 시설들은 충청남도 내에서 인구가 가장 밀집해 있는 천안시와 아산시에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인구 1,000명당 관련 시설의 수를 살펴보면 오히려 천안시와 아산시의 사회복지 관련 시설은 다른 지역과 비교해 높지 않았다. 그런데도 천안시와 아산시에는 건강·의료와 치료·상담 분야 복지시설은 타 지역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밀도를 보이고 있었다. 계룡시는 거의 모든 복지 관련 시설이 도내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장애인 관련 시설은 충남 시군구에 걸쳐 비교적 고르게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천안시와 아산시 주변에 밀집되어 있는 양상이다. 2022년 등록 장애인 1,000명당 시설 수로 환산하면, 생활시설은 공주시가 가장 많이 분포하고 이용시설은 청양군이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장애인 지원시설은 계룡시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복지 시설은 청양군에 65세 이상 인구 1,000명당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는데, 이는 경로당 수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노인 의료복지 관련 시설은 계룡시와 천안시 서북구가 가장 양호했고, 노인 일자리 지원기관 역시 계룡시가 가장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아동센터의 지역적 분포 양상에 의하면 다른 아동 관련 시설보다 지역적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었으며, 계룡시, 아산시, 천안시 서북구 등에서는 이들 시설이 상대적으로 적게 분포하고 있었다. 또한 아동공동생활가정은 대부분 충남 북부 지역에 집중적으로 분포한 반면, 충남 남부 지역에는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11

SPECIAL

충청남도
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출범
--
2023년 여성가족연구본부
하이라이트
--
특집 인터뷰

PART 1

2023 충남 성평등 포럼
--
대만연수
--
호주연수

PART 2

2023 충남여성 풀뿌리 자치학교
--
2023 충남여성소모임 인큐베이팅
Start-up
--
충남 여성 리더십 포럼
--
2023 충남 성주류화 제도
발전 포럼

PART 3

전략연구과제
--
기초연구과제
--
기본연구과제



충청남도 장애인 1,000명당 장애인 시설 수 분포 출처: 2022년 보건복지부 장애인현황

	생활시설	이용시설	지원시설
계룡시	0.60	1.20	0.60
공주시	1.03	0.92	0.46
금산군	0.85	0.85	0.21
논산시	0.48	0.48	0.19
당진시	0.38	0.56	0.28
보령시	0.46	0.80	0.23
부여군	0.14	0.57	0.14
서산시	0.48	0.67	0.19
서천군	0.54	0.90	0.18
아산시	0.37	0.55	0.18
예산군	0.13	0.66	0.26
천안시 동남구	0.55	0.62	0.16
천안시 서북구	0.21	0.83	0.35
청양군	0.00	1.23	0.31
태안군	0.19	0.75	0.19
홍성군	0.27	0.54	0.54

충청남도 시군구별 65세 이상 노인인구 1,000명당 노인 복지시설 분포

노인보호 전문기관	노인일자리 지원기관	여가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	주거복지	
계룡시	0.00	0.17	7.00	1.40	1.92	0.00
공주시	0.00	0.03	14.95	0.76	1.07	0.03
금산군	0.00	0.06	20.58	1.37	2.03	0.06
논산시	0.03	0.03	16.18	1.09	1.24	0.09
당진시	00.0	0.03	10.56	0.63	1.15	0.03
보령시	0.00	0.04	15.30	0.44	1.17	0.00
부여군	0.00	0.09	19.96	0.73	1.37	0.00
서산시	0.00	0.03	11.31	0.78	1.97	0.00
서천군	0.00	0.00	17.67	0.62	2.06	0.00
아산시	0.02	0.02	11.85	0.83	1.73	0.02
예산군	0.00	0.04	14.95	0.86	1.37	0.08
천안시 동남구	0.00	0.03	9.73	0.9	1.25	0.08
천안시 서북구	0.00	0.00	9.43	1.26	2.30	0.03
청양군	0.00	0.09	27.14	0.61	1.05	0.00
태안군	0.00	0.05	11.70	0.54	1.02	0.00
홍성군	0.00	0.04	14.91	0.52	1.41	0.00

충청남도 시군구별 12세 이하 아동 1,000명당 아동시설 분포

	아동공동생활가정	아동양육시설	아동자립지원시설	지역아동센터	아동 수
계룡시	0.00	0.00	0.00	0.73	5,517
공주시	0.15	0.00	0.00	1.34	6,696
금산군	0.00	0.33	0.33	5.68	2,992
논산시	0.00	0.37	0.00	3.04	8,219
당진시	0.27	0.00	0.00	0.65	18,517
보령시	0.00	0.28	0.00	1.26	7,125
부여군	0.00	0.3	0.00	2.41	3,317
서산시	0.11	0.00	0.00	0.82	18,200
서천군	0.00	0.00	0.00	4.04	2,723
아산시	0.19	0.02	0.00	0.79	43,185
예산군	0.20	0.20	0.00	2.24	4,914
천안시 동남구	0.21	0.04	0.00	1.17	23,984
천안시 서북구	0.08	0.04	0.00	0.69	47,586
청양군	0.00	0.00	0.00	2.02	1,485
태안군	0.86	0.00	0.00	2.86	3,502
홍성군	0.00	0.11	0.00	1.32	9,069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한
주요 정책
제언

- 1)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 사업 개발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 사업(특구 사업)
 - 타 시·도 자체 특구 사업 추진 사례 벤치마킹
- 2) 충남형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 사업 개발
- 3) 충청남도 고령 발달 장애인 노년기 전환 특화 서비스



SPECIAL

충청남도
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출범
--
2023년 여성가족연구본부
하이라이트
--
특집 인터뷰

PART 1

2023 충남 성평등 포럼
--
대만연수
--
호주연수

PART 2

2023 충남여성 풀뿌리 자치학교
--
2023 충남여성소모임 인큐베이팅
Start-up
--
충남 여성 리더십 포럼
--
2023 충남 성주류화 제도
발전 포럼

PART 3

전략연구과제
--
기초연구과제
--
기본연구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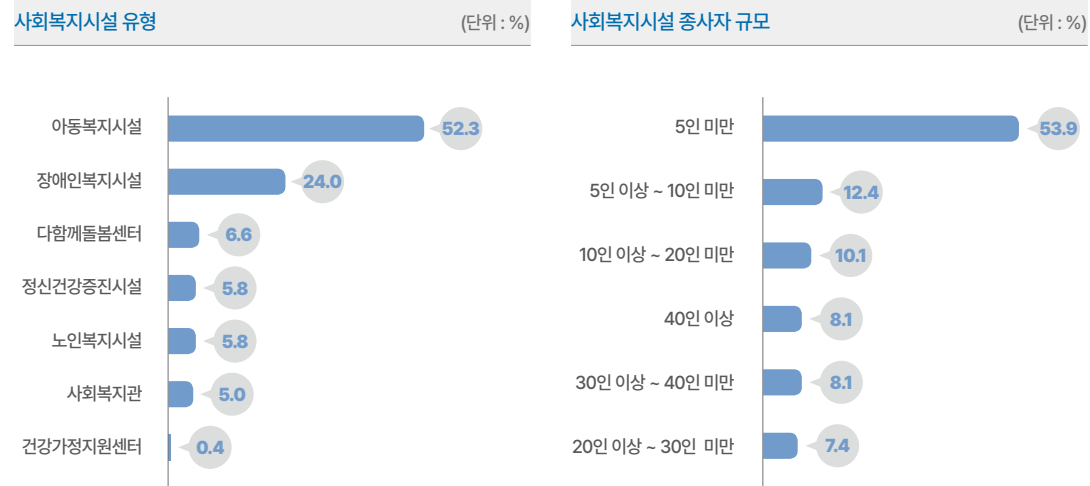
충청남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지원사업 분석 연구

연구자: 이정랑 부연구위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지원사업은 중앙정부에서 사회복지 분야 일·가정 양립, 법정 휴가제도 등 처우 개선을 위한 정책 노력 차원에서 2018년 1월에 도입하였다. 충청남도는 2017년 사회복지 생활시설 종사자 인력 대체 시범사업을 자체적으로 추진하였다가 2018년에 보건복지부 사업으로 전환하였는데, 2022년 충청남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지원사업의 실적은 파견 대상 시설 478개소 중 66개소(13.8%)만 사업을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는 충청남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지원사업의 욕구 및 실태조사를 통하여 사업의 활용성을 키우고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충청남도의 지원 및 정책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아동과 장애인 복지시설이 대부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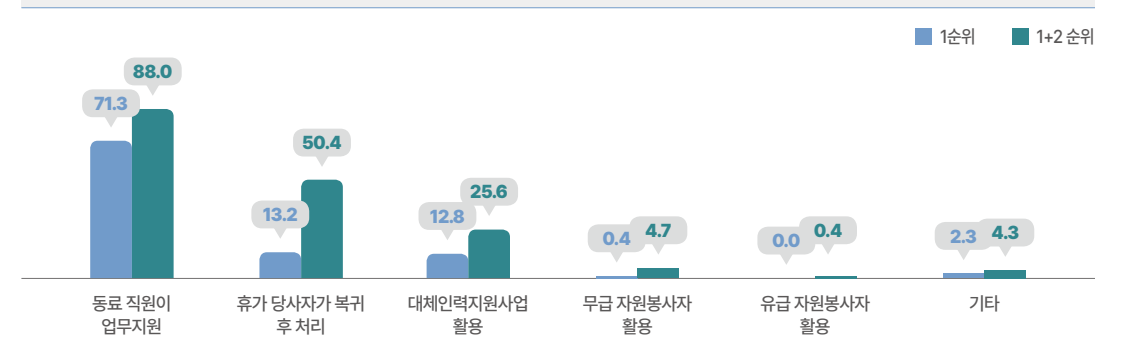
조사에 참여한 사회복지시설은 총 258개소로 시설의 유형은 아동복지시설 52.3%, 장애인복지시설 24.0%, 다함께돌봄센터 6.6%, 노인복지시설 5.8%, 정신건강증진시설 5.8%, 사회복지관 5.0%, 건강가정지원센터 0.4%였다.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규모는 5인 미만 53.9%, 5인 이상 ~ 10인 미만 12.4%, 10인 이상 ~ 20인 미만 10.1%, 30인 이상 ~ 40인 미만과 40인 이상 8.1%, 20인 이상 ~ 30인 미만 7.4%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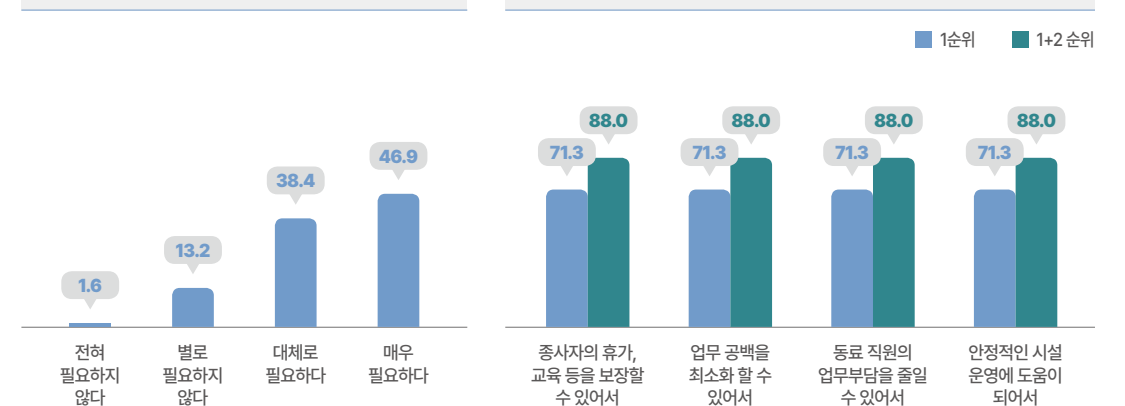
대체인력 지원사업 활용도 낮아

시설 종사자가 휴가, 교육 등의 사유로 단기가 업무 공백이 발생할 경우, 업무지원 방법에 대해 1+2 순위는 동료 직원이 업무지원 88.0%, 휴가 당사자가 복귀 후 처리 50.4%, 대체인력지원사업 활용 25.6%, 무급 자원봉사자 활용 4.7%, 기타 4.3%, 유급 자원봉사자 활용 0.4% 순이었다. 충청남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지원사업의 필요 정도에 대해서는 매우 필요하다 46.9%, 대체로 필요하다 38.4%, 별로 필요하지 않다 13.2%, 전혀 필요하지 않다 1.6%였다. 사업을 활용하는 이유에 대한 응답으로 1+2순위는 종사자의 휴가, 교육 등을 보장할 수 있어서 64.1%, 업무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어서 60.9%, 동료 직원의 업무 부담을 줄일 수 있어서 31.5%, 안정적인 시설 운영에 도움이 되어서 27.2%였다. 사업 활용 시 어려운 점에 대한 응답으로 1+2순위는 긴급하게 필요할 경우 지원받을 수가 없음(종사자의 휴가를 예측할 수 없는 경우 등) 59.8%, 파견인력의 수가 부족하여 필요할 때 지원받을 수가 없음 56.5%, 지원 기간이 짧음, 지원받는 인력(사회복지사)의 분야가 제한됨 17.4%, 파견된 대체인력의 전문성이 낮음(경력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등) 13.0%, 어려운 점 없음 7.6%, 관련 서류 작성이 불편함(사진 제출, 매월 만족도 조사 등) 6.5%, 기타 1.1% 순이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지원사업을 활용하지 않은 시설은 그 이유로 기관의 특성상 대체 업무가 불가능해서 39.8%, 파견인력의 업무능력을 잘 몰라서 35.5%, 이용자와의 관계 형성이 어려울 것 같아서 25.9%, 기타 24.7%, 사업에 대해 잘 몰라서 17.5%, 사업 신청 절차가 어려워서 15.7%로 응답했다.

단기간 업무 공백 시 업무지원 방법 1+2순위 (단위: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지원사업 필요 정도 (단위: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지원사업 활용 이유 1+2순위 (단위: %)



SPECIAL

충청남도
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출범
--
2023년 여성가족연구본부
하이라이트
--
특집 인터뷰

PART 1

2023 충남 성평등 포럼
--
대만연수
--
호주연수

PART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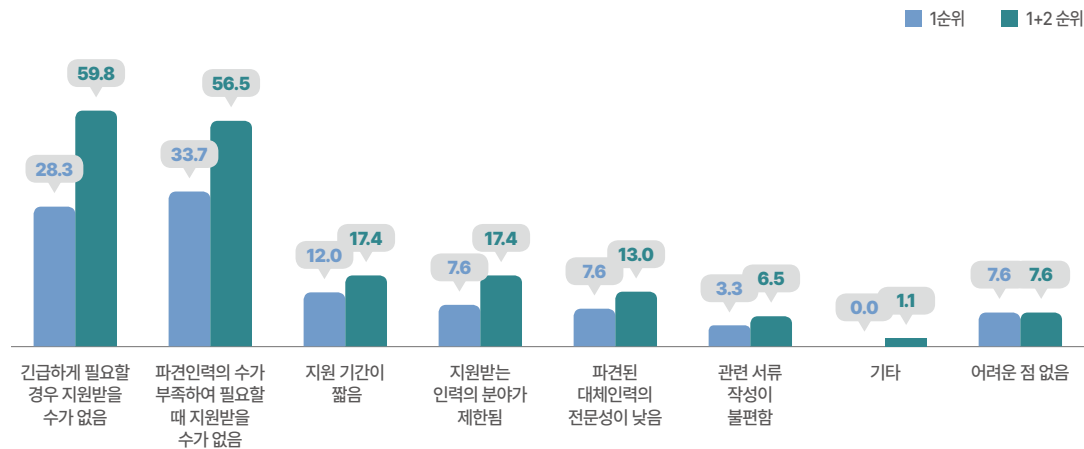
2023 충남여성 풀뿌리 자치학교
--
2023 충남여성소모임 인큐베이팅
Start-up
--
충남 여성 리더십 포럼
--
2023 충남 성주류화 제도
발전 포럼

PART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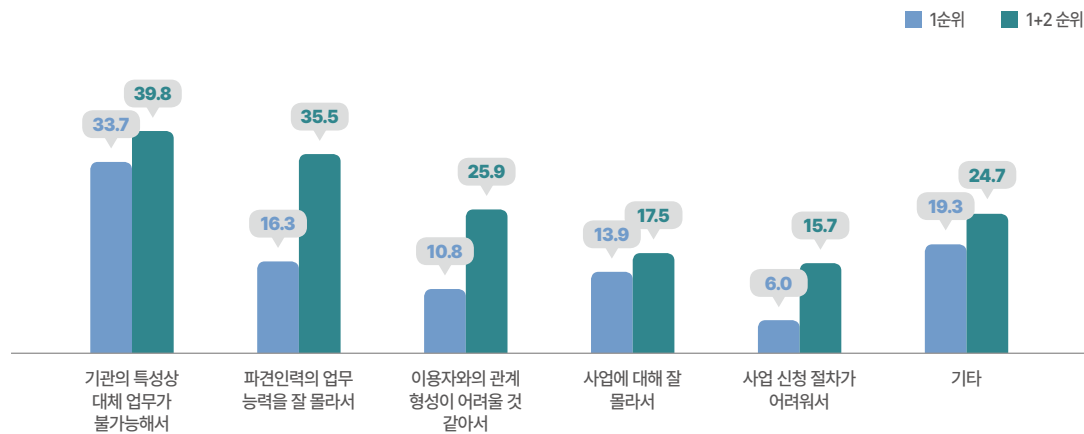
전략연구과제
--
기초연구과제
--
기본연구과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지원사업 활용 시 어려운 점 1+2순위 (단위: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지원사업 활용 시 어려운 점 1+2순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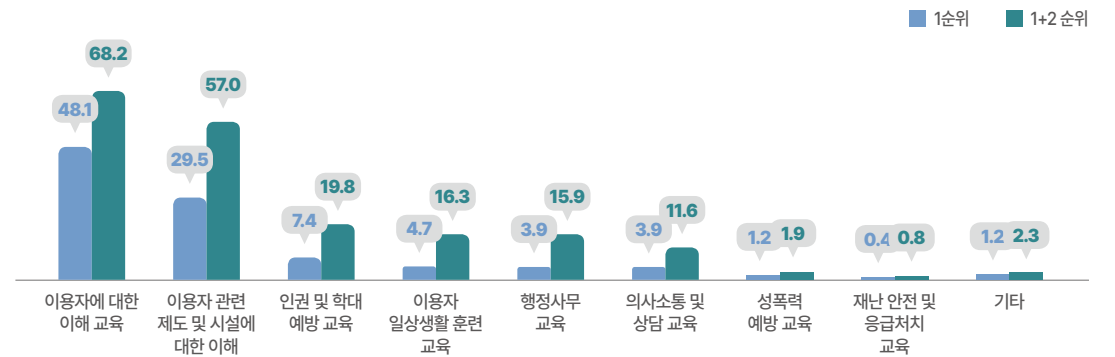
대체인력 지원사업 전제는 파견 인력 역량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지원사업 활용 시 파견인력에게 필요한 교육 내용에 대해 1+2순위는 이용자에 대한 이해 교육 68.2%, 이용자 관련 제도 및 시설에 대한 이해 교육 57.0%, 인권 및 학대 예방 교육 19.8%, 이용자 일상생활 훈련 교육 16.3%, 행정사무 교육 15.9%, 의사소통 및 상담 교육 11.6%, 기타 2.3%, 성폭력 예방 교육 1.9%, 재난 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 0.8% 순으로 응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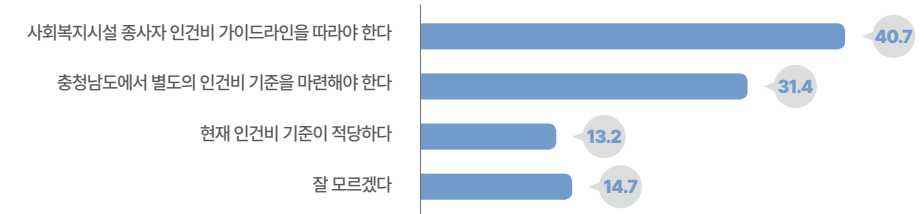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지원사업 파견인력의 적정 인건비 기준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따라야 한다 40.7%, 충청남도에서 별도의 인건비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31.4%, 잘 모르겠다 14.7%, 현재 인건비 기준이 적당하다 13.2% 순이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지원사업의 활용성을 높이는 데 필요한 것을 묻은 질문에는 이용자 유형에 따른 전문인력 파견 35.3%, 긴급 또는 돌발상황 등에 대한 지원 33.3%, 보육교사, 조리사 등 다양한 인력 파견 확대 29.5%, 지역별 파견인력의 확대 27.5%, 지원 기간의 연장 23.3%, 관련 서류의 간소화 18.6%, 대체인력지원사업의 홍보 강화 12.4%, 주말, 야간 파견 확대 10.5%, 기타 1.6%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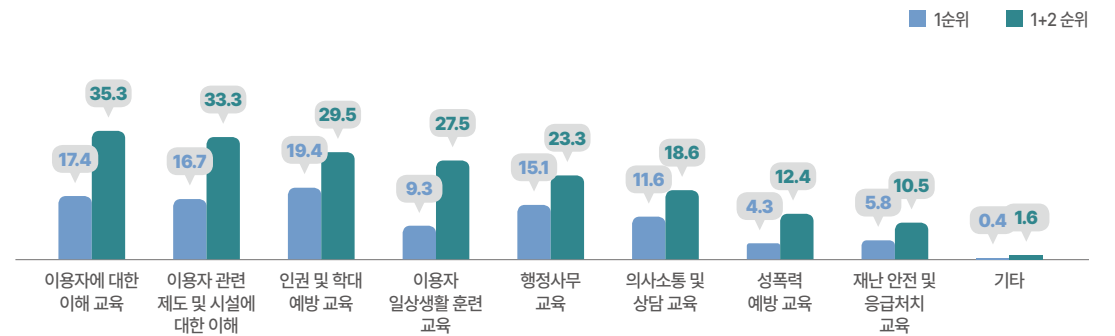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지원사업 활용 시 파견인력에게 필요한 교육 내용 1+2순위 (단위: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지원사업 파견인력의 적정 인건비 기준 (단위: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지원사업의 활용성을 높이는 데 필요한 사항 1+2순위 (단위: %)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한 주요 정책 제언

- 1) 대체인력지원사업 인력의 처우 개선으로 양질의 일자리 마련
- 2) 사회복지대체인력지원센터 관리자 인력 확대
- 3) 대체인력 활용에 대한 기관의 인식 향상과 업무 매뉴얼 마련
- 4) 충청남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지원사업 확대
- 5) 대체인력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체계 구축
- 6) 사회복지시설과의 협력, 서비스 질 관리, 홍보 등 위탁-운영 기관의 역할 강화

SPECIAL

충청남도
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출범
--
2023년 여성가족연구본부
하이라이트
--
특집 인터뷰

PART 1

2023 충남 성평등 포럼
--
대만연수
--
호주연수

PART 2

2023 충남여성 풀뿌리 자치학교
--
2023 충남여성소모임 인큐베이팅
Start-up
--
충남 여성 리더십 포럼
--
2023 충남 성주류화 제도
발전 포럼

PART 3

전략연구과제
--
기초연구과제
--
기본연구과제



성평등 충남을 만드는 사람들

원장

팀명	직급	이름	업무
원장	원장	조경훈	충남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업무 총괄

기획조정실

이름	직위(직책)	전공분야	업무
송미영	수석연구위원(실장)	사회복지학	연구, 교육, 행정팀 업무총괄,
공석	연구위원	-	대외협력 및 홍보사업
호지영	지원직	-	사업수행 예산 조정 보조, 기획조정실 업무지원

연구팀

이름	직위(직책)	전공분야	업무
우복남	선임연구위원(팀장)	언어문화학	다문화
김영주	수석연구위원	문화사회학	인권
안수영	선임연구위원	노동사회학	일자리연구, 성인적자원개발
태희원	선임연구위원	여성학	성주류화, 여성농업인
맹준호	연구위원	사회복지학	사회복지정책
안세아	연구위원	행정학	정책학, 여성정책, 가족정책
오민아	연구위원	교육학	사회교육
이경하	연구위원	사회학	성주류화
정덕진	연구위원	사회복지학	
오정하	연구위원	문학(아동복지)	
김선미	연구위원	사회복지학	
서보람	연구위원	사회복지학	
이정랑	부연구위원	사회복지학	
김평화	부연구위원	문학(아동복지)	
허현진	연구원	사회복지학	성주류화
김미란	지원직	-	연구팀 연구지원

교육·사업팀

이름	직위(직책)	전공분야	업무
임우연	선임연구위원(팀장)	가족사회학	업무총괄, 사업기획 및 운영
조윤진	연구위원	사회복지학	교육, 연구조성사업
허선영	지원직	-	교육사업팀 연구지원

성별영향평가센터

이름	직위(직책)	전공분야	업무
이경하	연구위원(센터장)	사회학	성별영향평가센터 총괄,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예산, 성인지 통계, 연구 컨설팅
오민아	연구위원	교육학	성별영향평가센터 운영지원, 성별영향평가 및 연구 컨설팅
이정윤	전담연구원	사회학	성별영향평가센터 운영관리,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예산 컨설팅, 컨설턴트 관리, 포럼개최 및 교육지원
정새롬	전문인력		성별영향평가센터 운영관리,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예산 컨설팅, 컨설턴트 관리, 포럼개최 및 교육지원

행정팀

이름	직위(직책)	업무
김기석	행정팀장	행정팀 업무 총괄, 경영평가
김매화	관리6급	일반회계 예산 결산, 기금, 세입세출 외
나영주	관리7급	인사, 노무 담당
이수민	관리8급	용역, 교육 담당
황선덕	지원직	원장실운영, 행정지원

여성의 목소리에 귀 기울입니다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여성가족연구본부는
성평등 충남을 실현하기 위해 지역의 많은 여성과 소통하며
다양한 현안을 찾아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연구 성과는 충청남도가 정책을 수립하고 실현하는 데 중요한 토대가 되며,
실효성 있는 도정을 이끌어 가는 데 크게 이바지합니다.
우리 여성가족연구본부는 시시각각 달라지는 사회적, 문화적 환경에 대응하며
여성 인권 신장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2023 **Vol. 42**

여성이 새로 여는 세상



충청남도

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여성가족연구본부는

'함께하는 따뜻한 공동체'

충남 실현을 위한 여성가족·사회복지

정책연구기관입니다.

모두가 평등하고 행복한 세상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